

I. 서론

I. 서 론

1. 연구배경

시간이 없다.

청소년들은 시간이 없다.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은 청소년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유의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전통적으로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기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생각해왔다. 사실 청소년들은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갖추어야 할 책임과 의무 그리고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시간을 준비한다. 이렇듯 목적 지향적인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논리는 주요한 부분을 지나쳐 버리고 있다. 그것은 청소년을 성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겪는 연령 계층으로만 이야기 하고 있는 점이다. 만일 청소년기가 성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그들은 철저히 통제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이상적인 성인 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은 일정한 교육틀속에 묶여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성인으로서 성장하는 하나의 단계이기 이전에 인격체를 가진 개인이며, 어른이와는 달리, 미숙하지만 주체적으로 사고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생활한다. 비록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기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시간이 절대로 유예적인 것 만은 아니다.

한편, 오늘날 청소년기는 총체적인 삶의 부분으로서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청소년들은 매우 다양한 삶의 형태와 과정에 서있다. 이미 사회는 청소년기를 잠시 참아야 하는 시간, 성인이 되어 가질 수 있는 달콤한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즐거움과 주체적인 삶의 선택을 사회구조속에서 잠시 유보해야 하는 시간으로 남겨두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현실

가치를 지향하는 절대적인 목표로 청소년들을 내몰고 있는 역설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즉, 그들에게 삶의 풍요하고 의미있게 살아가는 과정을 가르치기 보다는 앞으로 잘살수 있도록 또한 존경받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제도화시켜 그것을 향한 지름길로 나가는 길을 알려주는데 급급하다. 다시말해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기 개성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실제로는 출세, 성공지향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인정한 당위는 사회환경의 모순때문에 나도 불가피하게 휩쓸릴 수 밖에 없다는 자위를 하며,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우리의 생활환경과 의식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다양하고 스스로의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모두 합의할 수 밖에 없는 이상적인 성인 즉, 성공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에 열중하게 하며 모든 시간을 몰두하게 한다. 그것은 사회나 가정, 개인 모두에게 괴로움을 주지만 어느 한쪽의 자각으로 개선될 수 없는 사회구조적 역사와 관련된 뿌리깊은 난맥으로 당장에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에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다시말해 전인격체로서 바르게 성장하고 청소년기에 의미있는 삶의 과정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외면해 버릴 수는 없다. 그들에게 시간을 찾아주어야 한다. 삶의 부분적인 즉, 학업=성공의 단선적 논리에 의해 제공되는 시간이 아닌, 자유롭고 복합적인 행동과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적인 발달과 성취지향적 행위를 요구하는 편중된 교육과 육성체계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동의하며, 나아가 그러한 교육이 각종의 사회적 문제와 병리를 일으키는 즉, 만족스러운 사회구성과 발전의 방향이 아니라고 인식한다면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기 위해 덕성과 신체를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성인집단이나 청소년들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는 동기를 부여하는데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동기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 이상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도덕적이며 당위성이 강한 동기와 현실에서 이익을 가져다 줌으로써 스스로 변화하게 하려는 실제 유인가가 높은 동기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이러한 두가지 동기가 모두 유발될 수 있는 심리 그리고 사회적 체제가 바람직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이것은 많은 경우 상반되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청소년의 건전하고 바람직한 육성을 위해 전자의 동기를 심정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사회속에서 가치정도를 볼 때 아무런 현실적 매력을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의 동기만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두 동기간의 불일치는 일반적으로 행동이나 사업실행의 원동력인 동기유발의 과정에 불균형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의 일치된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육성방안은 그 사업실행 전략의 차원에서 이러한 동기유발을 통한 참여와는 또 달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각종의 방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즉, 그들에게 시간을 줌으로써 나아가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를 인지하게 하여, 참여를 통한 동기의 강화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회 부여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양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써 동기를 유발하기는 쉽지 않다. 올바른 기회의 제공은 동기와 나아가 행동양식까지 염두에 둔 방법이 고려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말해 단순히 기회를 준다고 동기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기회를 하나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때 기회의 제공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을 위해 바람직한 활동내용 여부에 따라 보다 높은 동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전에 청소년들을 기회를 이끌어 오는 제공의 방법이 불합리하다면 그 기회는 시작부터 강한 부정적 선입관으로 출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회의 제공은 가장 기초적인 환경조성의 과제가 된다.

기본적으로 이같은 상황의 구성은 다음의 과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본계획」의 청소년활동부문 중점사업인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출발하고 있다.

청소년의 자발·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보다 나은 기회가 부여되는 청소년 성장요람 조성, 선진·민주·통일 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목표로 청소년들의 자율성 신장을 통하여 능동적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 청소년 기본계획은 「청소년활동부문」, 「청소년복지부분」, 「법제보강부분」, 「재정확충부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부문」은 청소년기본계획의 핵심사업이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으로는 수

련거리개발, 수련터전 확보, 수련활동을 위한 청소년지도자의 제도적 양성·배치, 청소년 단체의 적극적인 육성 등이다. 또한 이 사업에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유도하기 위해 수련활동 참여동기유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방안연구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사업의 하나이다.

2. 연구목적

앞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가 청소년들에게 기회의 제공을 통한 동기유발의 강화, 그리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참여와 행동을 유도하는 고리속에서 연구 배경을 갖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기본계획」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활동인 바, 그 활동을 위한 시간확보는 궁극적으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으로써 그 방법이 해결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정책적 배려나 합의로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교육제도의 개선, 청소년근로조건에 수련활동참여규정명시 등)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능률적인 방안이다.^{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은 제도적인 확보 방안을 위한 과정이다. 시간확보에 따른 정책적인 모색은 자칫 동기나 행동의 연결고리를 미리 생각지 않은 단지 어떤 활동의 필요에 따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가시적으로는 성공적인 확보방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지속성과 연속성에 문제가 따른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확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을 제공한다면 그 시간이 앞서 말한대로 현실적으로 유인가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들어 현재와 같이 치열한 입시제도 아래에서 학생들의 교육과정의 부분을 수련활동 참여시간으로 대치한다면 그 시간이 의도한 바 목적으로 쓰여지기 보다는 다시 입시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노력으로 능률적이고 보편화된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합리성이

주)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시간의 제도적 확보 방안은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배경지원 부문으로 학생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제도 개혁 방안과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들을 위한 시간확보를 위한 제도적 실천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부록1 참조]

내재되어 있어야 타당성이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참여 주체인 청소년들의 욕구와 환경요인과 더불어 시간이라는 양적 개념을 다른 수준에서 인식하고 접근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 참여시간을 확보해 주는 일은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된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같은 상황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정하도록 전국민적 동기유발을 일으키는 방안등이 강구되어질 수 있으나 여기서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실태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시간확보 즉, 시간할애의 우선순위를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시간을 찾고자 한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곧 동기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제도적인 수련활동시간 마련을 위해 하나의 과정을 모색하는 기초적 방안이 되며 또한 획일적이고 제도적인 시간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성인들과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수련활동이 가능한 참여시간을 설명해 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책적인 대안마련에 선행하여 청소년들의 생활시간과 시간활용의 욕구에 따른 수련활동 시간확보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지속적이며 동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는 한편, 청소년 수련활동의 참여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의 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의 포괄적인 개념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청소년육성의 기본목표인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에서 지적 교육의 편중으로 인해 덕성과 체력의 건전한 발달의 기회와 과정의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아래 나온 구체적인 실행사업의 범위에서 다루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본 연구는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련활동부문의 참여시간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청소년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시간 및 활용방법을 통하여 합리적인 참여시간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 내용 및 시간활용방법을 토대로 그들의 수련활동 참여시간에 관련된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합리적인

수련활동 참여시간의 기초방안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내용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 실태를 알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청소년들의 시간활용 및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에 따른 의식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수련활동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청소년집단유형별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등 연구실행 과정상의 제약으로 인해 청소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 내용 및 시간활용 방법과 욕구를 조사하므로써 연구목적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학생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을 하루, 한달, 일년으로 구분하여 시간에 관한 의식과 연계된 청소년들의 시간활용 내용을 중심으로 각종 자료와 문헌을 통해 파악한다. 이것은 수련활동시간이 일상생활 시간의 한 부분이라는 논리와 일상생활시간 전체가 수련활동시간이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시간 인식을 기초로 접근하므로써 일상생활시간 실태와 관념을 통해 수련활동 참여시간을 위한 기초적 배경을 삼고 있다.

III 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을 토대로 학생청소년들을 지역별로 할당 표집하여 실제로 그들의 일상생활내용에 따른 시간활애 정도와 시간활용에 관한 의식 및 수련활동 참여시간에 대한 욕구를 파악한다.

IV 장에서는 II 장과 III 장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학생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참여시간과 관련된 욕구를 정리하고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지를 모색하므로써 시간확보의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V 장의 결론과 연결되어 몇몇 정책대안을 유출해내고 있다.

이 내용은 정책·제도적 시간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며 또한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수련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시간이 무엇인지 나타내주는데 그 의의를 갖을 것이다.

4. 연구방법

연구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로 나누어 진행된다.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각종의 문헌, 신문, 잡지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청소년 일상생활 시간 실태를 알아보았다.

2) 조사연구

실제 청소년들의 시간활용내용에 따른 시간의 양과 시간활용의식 및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개요

조사경과를 보면 1991년 8월부터 설문문항 구성과 검토작업을 거쳐 조사표본 선정을 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10월 부터 회수된 질문지에 대한 통계처리 작업에 들어갔다.

설문지의 문항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그 영역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생청소년의 하루 생활시간

학생청소년의 하루 생활시간을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학교수업시간, 학교외의 학습시간, 공부하는 시간, 가정내의 일을 하는 시간,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 여가시간, 책읽는 시간, 텔레비전 시청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평일, 토요일, 일요일 등의 평균 소비시간의 양을 조사하였다.

나) 생활시간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

학생청소년들이 하루 생활시간의 각 부분을 보내는데 있어서 시간의 활용방법과 시간에 대한 인식과 행동형태를 파악하였다.

다) 수련활동 참여시간에 관한 인식

학생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 8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여러가지의 세부 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한 뒤 활동진행의 유무를 조사하고, 그 활동의 빈도와 기간을 알아보았다. 또한 활동과 시간과의 관계속에서 그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표본규모는 전국적으로 1,600명으로 정하고 지역별, 성별, 학교급별,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계열별(인문고, 실업고) 분포를 고려하였다.

전체 청소년 인구를 모집단으로 각 교급의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비례하여 할당표집을 하였다. 또한 각지역별로, 가능한 많은 학교가 안배되도록 유의하여 한 학교에 한 학급만을 선정하였다.

〈丑 I-1〉

지역	학교급	중		인문고		실업고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87	81	46	45	46	43	337(24.8)
강원/춘천		51			52			103(7.6)
충남/대전		27	42	33	40			142(10.4)
충북/청주			46	41				87(6.4)
전남/광주		41	50	39	52			182(13.4)
전북/전주		51						102(7.5)
경남/부산		27	84	42	32	42	51	227(16.7)
경북/대구		43	48	42	46			179(13.2)
합 계		316 (23.3)	351 (25.8)	243 (17.9)	267 (19.6)	88 (6.5)	94 (6.9)	1359 (100.0)

이것은 응답자 성별, 지역별 변인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성별

〈표 I -2〉 응답자의 성별 · 학교급별 분포

단위 : 명(%)

학교 \ 성별	남	여	계
중 학교	316(23.3)	351(25.8)	667(49.1)
인문계 고등학교	243(17.9)	267(19.6)	510(37.5)
실업계 고등학교	88(6.5)	94(6.9)	182(13.4)
계	647(47.6)	712(52.4)	1,359(100.0)

전체적으로 남자 47.6%, 여자 52.4%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각 집단별 토도 이와같은 성비로 표집되었다.

나) 지역별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24.8%, 직할시 53.7%, 기타시 21.5%로 직할시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표집대상을 직할시를 포함한 각 시도로 선정하여 접근하기 용이한 학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였기 때문이다.

〈표 I -3〉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단위 : 명(%)

지 역	서울	직할시	기타시	계
빈 도	337(24.8)	780(53.7)	292(21.5)	1,359(100.0)

다) 응답자의 개인배경

부모의 연령을 보면 40대가 부 62.3%, 모 68.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부 28.0%, 모 12.3%, 30대 부 2.5%, 모 18.0% 등이었다.

이는 응답자가 중·고등학생이라는 적은 우리나라의 결혼연령으로 보아 일반적인

부모의 학력을 보면 부의 경우 고졸이 41.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졸이 20.0%로 많아 과반수이상의 고졸이상의 학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모의 경우는 고졸이 38.0%, 중졸이 28.7%, 국졸이 20.2%로서 부의 경우보다는 학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90~110만원이 21.5%, 70~90만원이 16.2%, 50~70만원이 14.6%로 50만원에서 110만원 사이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단위 : 명 (%)

	부	모
30대	34(2.5)	244(18.0)
40대	847(62.3)	925(68.1)
50대	380(28.0)	160(12.3)
60대이상	29(2.1)	11(0.8)

단위 : 명 (%)

		부	모
무	학	10(0.7)	27(2.0)
국	졸	128(9.4)	275(20.2)
중	졸	246(18.1)	390(28.7)
고	졸	565(41.6)	516(38.0)
대	졸	272(20.0)	130(9.6)
대	졸 이 상	72(5.3)	10(0.7)

〈표 I -6〉

응답자의 개인배경-부모님 직업

단위 :명(%)

					부	모
무				직	37(2.7)	754(55.5)
일	용	근	로	자	102(7.5)	69(5.1)
근		로		자	197(14.5)	84(6.2)
농	림	어	업	자	109(8.0)	96(7.1)
자		영		업	345(25.4)	245(18.0)
사		무		직	406(29.9)	82(6.0)
관		리		직	54(4.0)	5(0.4)
전		문		직	42(3.1)	11(0.8)

〈표 I -7〉

응답자의 개인배경-가족의 월평균 소득

단위 :명(%)

소	득	비	율	소	득	비	율
30만원미만		37(2.7)		90~110만원		292(21.5)	
30~50만원		121(8.9)		110~130만원		156(11.5)	
50~70만원		198(14.6)		130~150만원		121(8.9)	
70~90만원		220(16.2)		150만원이상		211(15.5)	

II. 청소년 생활시간

II. 청소년 생활시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시간은 크게 보아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의 전부이고 부분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청소년수련활동 시간을 양적 개념으로 보아서는 그 일부가 되지만 시간에 관한 개인적 인식에 따라서는 전부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시간을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는 내용들의 나열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생활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시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을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시간들을 찾아내어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또한 생활시간 활용하면서 생기는 욕구와 시간에 관한 인식과 관련시켜 생활시간의 실태를 파악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이 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연령대의 느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어른이 될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낀다. 그것이 삶이란 한계 상황속에서 비롯되는 어쩔수 없는 초조감이기도 하지만, 삶의 과정이란 측면에서 또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어른들은 시간이 곧 돈으로 환산될 만큼 자율적인 시간의 세계속에서 살고 있다. 다시말해 어른에게 시간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똑같이 주어진 과정이다.

한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자신의 목표와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더 구체적으로 말해 바람직한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인 동시에 젊음을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타율적인 요소가 강한 반면 매우 많은 가능성과 사회적인 허용성을 가진다.

물론 적지않은 수의 청소년들의 어른들과 거의 비슷한 때로는 똑같은 생활환경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신체나 정신적인 조건의 싱싱함에 의한 무한성과 어른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는 가변적인 개

념이 된다.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천체 물리학자인 존 그리빙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시간이란 시계나 달력에 표시되는 일정한 페이스(pace)로 가차없이 흘러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일그러지고 굽은 것이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그것을 측정한 사람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극단적인 예를들면 거대한 별이 붕괴되어 발생한 블랙홀(black-holes)은 시간을 지워버리면 그 부근에서는 시간이 정지되어 버린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시간은 물리적인 개념현상으로 본 것이지만 사람의 인식변화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는 의미에 간접적인 시사를 준다.

시간이란 객관적이지만 동시에 주관적인 것이다. 시간이란 사람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 각 개인의 의식수준에 따라 어떤 사람은 1초를 1년처럼 길게 느끼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 반대의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렇듯 시간은 시간이 갖고 있는 단수의 개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계층 또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서정주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김소월의 시중 「저 달이 이렇게 사모칠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라는 귀절이 보인다.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럭저럭 전성나발로 살던 사람이 모처럼 오랫동안 제 정신이 나서 보고 싶던 어떤 여자쯤 눈에 삼삼히 그때 따라 유달리 실감되었던 걸 말한것이었지.——

즉, 같은 시간이라도 어떤 느낌과 마음을 갖고 활동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주는 의미는 매우 다르다.

이것은 주어진 시간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쓰인다는 뜻과는 같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식과 내용을 갖고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시간의 성과나 질이 다르게 나타남은 물론, 그로인해 한 사람의 의식과 태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시간은 많은 부분이 타율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사실 어른들의 경우 시간을 활용하는 주된 범주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청소년 더우기 학생 청소년의 경우, 그들의 시간은 교육이라는 제도적인 틀속에 대부분이 묶여져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젊고, 살아있고, 움직인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간을 또 다른 인식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을 그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의미 있게 즉 다가오는 삶의 준비기로서, 또한 그 자체가 의미있는 과정으로서 봄으로써 새로운 시간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바, 이에 따라, 그들이 하루를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한달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일년동안에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자료됨은 물론, 나아가 수련활동 참여시간의 합리적 모색방안 마련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

1.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하루는 24시간이다. 학생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하루가 평일이냐 토요일 일요일이냐에 따라 하루의 시간은 앞서 말했듯이 단순한 단수 개념이 아니고 25시간도 되고 23시간도 될 수 있다.

지루한 날은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재미있는 하루는 시간이 무척 빨리 지나간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 자체의 변화가 아닌 의식의 흐름에 있는 시계가 바뀐 것이다. 실제 시간과 함께 움직이는 의식의 시계는 흘러가는 상태에서는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하지만 그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의식의 반추를 통해 평가를 내린다.

그러나 불행히도 학생청소년들에게 시간은 학업을 중심으로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의식의 중심도 공부가 모든 시간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하루는 학업을 중심으로 한 여러가지 생활배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관점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의식화되지는 않지만 움직이고 있는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흐름을 내용별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밥먹으며 시계보고 시계보며 또 먹고

학교시간은 더럽게 긴데, 잠자는 시간은 왜 이리 짧을까. 학교가 잠자는 곳이면 좋겠다. 책상이 침대라면 좋겠다. 간신히 일어나 시계를 보고 한숨을 쉰다. 세수를 하면서 밥을 먹을까 말까. 밥을 먹으면 차가 가버리고 밥을 안먹으면 차를 탈수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 시계보고 시계를 보면서 또 먹고 시계를 보고

학생청소년의 하루는 대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부터 등교시까지이고, 둘째는 학교생활, 셋째는 하교시부터 잠자리에 들기 까지의 시간이다.

대체로 아침시간은 매우 분주하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6시부터 8시 사이인데, 청소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갠다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씻는 일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같은 일들을 계층별로 차이가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즉 어느 계층의 청소년이나 씻고 옷을 입는 일은 스스로 하지만, 이불을 스스로 개는 일을 하는 경향은 빈민층 청소년들이 강했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지만, 빈민층 청소년들은 많은 수가 속옷만을 입고 자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외출복을 더입는 식이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p.30).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계층이나 연령에 크게 관계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아침시간을 보낸다.

내 치솔은 우리 식구 치솔보다 휴식을 많이 한다. 나는 용의 검사할때만 치약을 조금 묻힌다. 그리고 다음 주 용의검사 할때까지 휴식을 취한다(백영현, p.187).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학교에서의 한시간 아니 단 10분도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반해 집에서의 아침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다. 이것은 비단 학생청소년의 경우만은 아니고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는 마 찬가지이지만 그들에게 더우기 짧게 느껴지고 빨리 지나가는 이유는 수동적인 행동과 과정이 계속되는 까닭이다.

학생들은 아침시간을 학교가기 위한 준비과정으로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사실 학교생활의 즐거움은 능동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피동적의 행동양태의 작은 파격속에서 이루어지듯이 학생들은 학업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의무로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에서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

이것은 연령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가지는 원초적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시간은 양극적인 현상이 보인다. 하나는 한없이 지루하고 고통스럽다는 느낌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런 의식없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다. 타율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지루하고 괴롭다는 사실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의미도 적어도, 시간을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면 타율을 준비하는 것도 자의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는 사실으로 인해 그 시간에 전혀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원하지 않은 일을 준비하는 시간은 아무런 기대감도 없을 뿐 아니라, 다가오는 일에 대한 고통때문에 의식없이 지나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청소년들의 아침시간은 멍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없이 그냥 하던 버릇대로 움직인다. 만일 그들에게 이 시간이 이성 친구와 약속이 있다든가, 친구와의 즐거운 약속이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의 의미와 관점은 달라진다.

이성친구와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며 ‘루루’거리며 양치질을 하고 세수하고 또 거울을 한번보고 옷맵시에도 신경을 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학교갈 때 준비하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을 발견하다.

그리고 준비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강한 바램을 나타내며 속으로 웃을 것이다.

한편 어떤 면에서는 아침시간을 학교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든 관심이 없다. 단지, 약속된 시간, 즉, 등교시간을 지키기 위한 노력만이 있을 따름이다.

편다. 또 편다, 어른들은 비웃는다. 한 5분만 일찍 일어나면 될 것을, 어제는 그말대로 실천해 보았다. 그래도 편다. 또 편다. 왜 뛰느냐? 학교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왜 지각안하려고, 야단맞기 싫어서, 근데 왜 뛰냐. 모르겠다. 그것 생각할 겨를이 어디있나

결국 학생청소년들의 아침은 일상생활에서 아침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있지만, 그들은 옷입는 것, 세수하는 것, 밥먹는 것, 가방을 챙기는 것 모두를 시계와 같이 한다. 어쩌면 일어나기 전부터 시계와 시간은 그들을 강박하는 거대한 공룡이면서도 달콤한 유혹인지 모른다. 그렇게 그들은 학교로 향한다.

2) 지루한 공부, 재미있는 친구

숨이 턱까지 차서 도착하면 일찍 나와서 우아하게 앉아있는 친구들이 불쌍해보인다. 무슨 영화를 보자고 새벽같이 나와서 기다리나. 우선, 입씨름으로 정신을 들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첫시간부터 땀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하루는 땀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진리였으면 뇌까리면서 무사히 첫시간을 보낸다. 이제부터 꿈 짝없이 기계적으로 오후까지 닭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책상과 함께 살아야 한다. 때론 너무 좋아 입술로 부딪치고 뺨을 부딪친다. 선생님의 강한 질투의 눈길에 때로는 곤혹을 치른다. 책상을 향한 나의 짝사랑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흔히 피교육자의 3대 괴로움을 표현할때 춥고, 졸립고, 배고프다는 말을 쓴다. 학교에서의 학생은 열심히 공부한다. 그런데 졸립다, 배고프다. 아침 첫시간 부터 오후 끝시간까지 졸립고, 휴식시간 마다 배고프다. 그리고 무섭다, 춥다. 지겨워서, 무서워서, 하기 싫어서.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시간은 잘 조직화된 내용으로 가득찬 시간표에 움직인다. 그들이 정한것이 아닌 정해진 시간에 의해 생활한다. 공부시간에 휴식을 하면 안된다. 휴식시간에 공부를 하면 비웃는다.

체육시간이 들어 있는 날마다 우루루 물려 와서 묻는 말. 선생님 체육합니까? 그 말이 듣기 싫어 체육시간은 때먹지 않고 운동장에 나갔는데도, 체육복을 갈아입고 있는데도 “체육합니까?”다. 매일 딱딱한 나무의자에 5, 6시간을 앉아 있어야 하는 일은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아이들에겐 고역이다. 더구나 조용히해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안도록 들어온, 또 들어야 할 교실에서 지루한 산수문제나 풀고 답임의 꾸중을 들어야 하는 아이들에겐 체육시간이야 말로 일하다 먹는 새참처럼 기다려진다.

어슬렁거리며 귀찮게 나간 운동장에는 시작중도 치기전에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체육부장의 조심스런 말이 들린다. “야 너저들 줄 좀 잘서라. 저번때 맨치로 선생님이 트집잡고 체육안할라”(백영현, p.145)

그렇다고 학생들이 공부를 필요없는 것, 그것을 위해 보내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생각지도 않고, 그들에게도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많지만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고 강의를 듣는 지적 학습과정은 비록 그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청소년들을 위한 합리적인 교과 과정이라 할지라도, 늘 고통스러움을 준다.

심리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은 표변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들은 엄청난 공상도 즐기고, 마구 뛰어 놀고 싶어하며, 강한 호기심도 있다. 학교 교육이 그러한 청소년의 특성을 바탕으로 짜여진 교육체계속에서 운영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엉뚱함이 튀어나온다.

그러나 타율적인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의 시간은 학업성취라는 면에서는 생산적일 수 있으나 즉, 성인을 위한 준비기간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면에서는 당위적일 수 있지만 청소년들이 하나의 개체로서 그 시기에 삶의 총체적인 즐거움과 의미를 갖는 자발적 움직임을 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소용 가치가 있는 시간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생활 시간이라는 개념을 물리적 시간을 그속에서서 내용면에서 본 것이지,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시간을 의미화한다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학교는 두가지 축의 맞물림으로 인해 움직인다. 하나는 학업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체제 속에서 특별한 인간관계이다. 앞서 말했듯이 학업과정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타율적인 과정이다.

이에 반면 충분히 자율적인 즉 스스로 원하는 기대효과의 과정을 가질 수 있다.

학업이 학생들에게는 큰 공룡으로 보이지만 그속에서 여전히 청소년들이 갖는 속성들이 어떤 형태로든 비집고 나타난다.

저희 학교 선생님은 멋쟁이에요. 사실 점심시간에 점심먹는 친구는 거의 없구요. 점심을 먹어도 한 5분이면 끝나요. 선생님은 나머지 시간에 반장이나 혹은 그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해서 갖가지 오락을 마련해요. 노래도 하고, 팝송해설도 하고,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평도 하고, 흥내도 내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잘 안들어 오시고,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겐 강요하지 않으셔요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사실을 발견하다. 학교는 재미있는 곳이 아닐지라도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 행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고, 의미를 가진다.

친구들과 재잘거리는 소리, 그시간.

학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지겨운 시간.

화장실에서 툭 치는 장난을 하는 휴식시간.

학생들은 휴식시간과 점심식사시간을 그들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노는 시간’으로 생각한다. 한 1학년 여학생과 3학년 남학생은 이 ‘노는 시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쫄딱히 노는시간 10분! 우리는 다음 시간 수업준비보다는 자리를 떠나 떠드는 것이 더 재미있다. 하루에 학교와서 노는 시간이 많으면 1시간에 10분 정도지만 우리는 이 쫄딱한 10분을 재미있고 즐겁게 활용한다. 국민학교 댄 선생님께서 교무실에 내려가지 않아서 너무 시끄럽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가시기 때문에 떠돌어도 선생님께선 누가 어떻게 떠든지 모른다.

헤롱헤롱 졸다가도 끝 종치는 소리에 우리는 갑자기 기운을 되찾는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 교실에서 약식 배구, 우유갑 하키, 그냥 무작정 뛰기, 그럴 때 우리의 신조는 ‘인생을 즐기는 것’이다. 교입이고 뭐고 걱정거리가 없다. 그럴 즈음에 들리는 또 하나의 종소리. 우리는 풀이 죽어 교실로 들어간다. 딱딱한 책상에 앉는 순간 생활신조도 바뀐다.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영덕, 1991).

때르릉 종이 울린후, 선생님 발자욱 소리를 듣는 그 초조와 기대의 시간.

문제는 그 시간들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둘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어떤 시간을 줄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학교공부는 필요하지만 지겹다. 그리고 아쉽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지 않다. 그 과정속에서 어떤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갖는나에 따라 좌우된다. 동전은 앞면만 있을 수 없다는 진리는 새로운 사실, 아니 누구나 알지만 큰 강박속에 귀찮아 별 의미를 주지 못했던 시간을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향한다.

3) 집에 다녀오겠습니다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빠빠’경음이 고막을 후빈다. 9시가 됐다는 신호다. 또한 이젠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기도 하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선생님” 하루의 일과가 끝나서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교문을 나설때가 제일 마음이 가볍고, 다소나마 까닭모를 안도감이 나를 감싸는 건 무슨 까닭일까? 저녁 별들이 곱다. 언젠가 별뿔뿔을 보며 소원을 빌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런 기분도 나지 않는다. 하루종일 딱딱한 나무 의자위에서 쌓인 피로나 알 수 없는 불만을 누구에겐가 토로하며 울부짖을 힘도 없다. 그저 집에 빨리 가서 영혼이 없는 이 육체를 눕히고 싶을 뿐이다.(이땅의 아이들과 함께, p.61).

학교수업 끝나면 집으로 돌아간다. 친구들과 삼삼오오 짝을 지어, 때로는 혼자 터벽터벽 집으로 향한다. 학생들은 그 시간동안 자신들도 생각지 않은 많은 것들을 한다.

군것질 거리를 찾기도 하고 물건이 진열된 가게를 기웃거리며, 전자오락실을 가기도 한다.

혼자 올 때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 집에 가서 해야할 일 등을 생각하며 길가의 돌맹이를 툭툭 차기도 하고, 발걸음을 세면서 걷는다. 이런 것들 대부분은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큰 목적 때문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행위이며 시간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교에서 내준 숙제와, 자신의 학업에 대해 생각하며, 어떤 형태든 학교의 학습을 또 다시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곳— 예를 들어 과외활동이나 학원에서의 수강—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특히 상급학교의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경우, 이 행동은 거의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학교시간표와 같이 조직적으로 짜여지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강한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는 소위 자율적인 학습을 진행한다.

비록 이것은 제도적인 책무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간접적 압력을 느끼는 어쩔 수 없는 자기 선택적 행위이며 시간이기 때문에 이중 부담을 느낀다. 즉, 이 시간은 학교내 학습 시간을 보완하는 부분이므로 자율을 가장한 심각한 타율로 강조하지만, 또한 그 행동이나, 시간을 외면해버리면 불안해진다.

만일, 상급학교의 진학열망이 강한 학생이라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보다 즉 학교에서의 수업시간 보다는 더 큰 동기유발의 시간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학생이 받는 심리적 압박은 고조에 달한다.

학교에서 보충수업은 마치고 나면 7시 30분이다. 아침보다는 낮지만 어쩐지 딱딱하게 느껴지는 저녁 도시락을 부리나게 먹고, 열전의 용사들이 모여있는 성찬이네 집으로 간다. 그곳은 정말 시간이 돈이다. 과외선생님이 수준을 맞추어 짜는 멤버들은 하루의 기본적 격전을 치르고 난 축치진 모습들이지만 방정식의 리듬에 맞추어 숨소리를 죽이는 불펜의 사각거림이 시작된다. 무표정한 친구들,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는 아니 할 필요가 없는 그 시간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마음은 그저 무감각하다.

학생들은 잠시 집으로 간다. 휴식을 취하러가기 보다는 하루동안의 학습내용을 반성하러 간다.

집에 돌아온 학생들은 신문, TV, 가족과의 담소 등을 때로는 하지만 그의 머리속엔 공허로운 메아리로 다가온다. 졸리운 눈으로 이곳은 학교가 아니지 빨리 선생님을 만나 뵈러 가야지. 얼마나 걱정하실까?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많은 수의 학생들은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내일 일은 잠자리에 들기전에 고민해도 충분하다. 그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곧장 집에 가기를 꺼리거나, 집에 가서 가방을 놓고 거리로 나돈다. 특별히 할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아닌 곳, 집이 아닌 곳에서 있는 시간이 좋다.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이곳 저곳 기웃거린다.

때로는 집으로 돌아오자 마자 TV나 라디오에 묻혀, 애국가 시작부터 끝까지 듣고, 그것도 모자라 이어폰을 끼고 음악과 함께 잠을 청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과후의 시간을 매일 일정하지 않게 자유롭게 보내려고 애쓴다. 물론 그 시간조차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 중 가장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렇듯 진학을 위해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물론 시기의 문제이지만)도 청소년으로서 갖는 관심과 흥미가 있으며 결국 가정으로 돌아와 다음날을 준비한다. 비록 학교공부의 연장에서 방과후를 보내는 학생도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을 보는 인식의 차이는 크다.

시간은 그 절대량이 무척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양이 시간의 질, 추상적인 뜻이지만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많지 않다. 생리적인 문제이지만 때로는 많이 잔다고 피로가 풀리기 보다는 짧은 시간 숙면함으로써 개운함을 느끼는 때가 종종 있다.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절대시간(그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회의는 있지만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을 제외한 시간이 양적으로는 부족하고 그나마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새로운 시간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생청소년은 하루를 학교가는 준비와 학교생활, 방과후 가정이나 사회(친구들과 관계)에서의 생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자명한 전제 이전이라도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떤 시간들을 택해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만족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나 행위를 유발시키느냐는 시각의 전환에 달려 있다.

다시말해 학생의 하루 생활주기를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상당한 어려움

과 문제가 따른다. 그러므로 주어진 현실과 상황속에서 각각의 시간을 어떤 인식을 갖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의 하루 시간은 표면적으로는 획일적일 수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매우 다양해 질 수 있다.

학생들은 하루를 인간존재로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필요한 생활과 소위 그들의 본분이라고 일컬어지는 학업과정으로 보낸다.

흔히 이것은 최종적인 시간속에서 하루를 지내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실제 그 시간들이 여러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는 사실과 시간과 청소년이라는 가변성을 연관시켜 주는 하루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준다.

하늘을 보자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그때 떠오르는 마음이 여유가 하루의 생활 중 가장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큰 정신적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그것이 삶의 한 목표가 되는 원동력, 그리고 즐거움과 인간으로서의 희노애락을 느끼는 순간의 제기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의 하루는 25시간이 있어도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자유롭게 줄 수 있는 시간을 10분이라도 찾는다면 그것은 하루를 보내는 핵심이 될 것이다.

2. 한달을 어떤 계획으로 생활하나

신세대의 꿈은 거창하지 않다. 그들은 막연한 미래보다 분명한 현실에 집착하며 비합리적 희생을 요구하는 공동체적 삶보다 합리적이고 안온한 개인생활을 추구한다.(신세대—그들은 누구인가 上, p.39).

일반적으로 학생청소년들에게 한달의 의미가 깊이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한달은 용돈 지출계획, 월정고사, 그리고 평균 4번의 일요일, 조금 더 의식을 하고 있다면 새달을 맞는다는 가벼운 긴장과 각오 정도이다.

왜냐하면 타율적인 시간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한달의 모습은 하루하루가 모인 날들로서 편의상 구분짓고 있다는 의미외에는 별다른 활용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달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다. 어른들과 같이 월급제 또는 월단위로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생활속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한달

은 하루보다, 일년보다 더 큰 비중있게 생각하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은 시간개념과 함께 자신의 행동이나 범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설정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시간의 미래성과 관련이 깊다. 좀 다른 관점의 예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재의 시점을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는 시점은 순간순간 과거로 바뀌고 계속 새로운 현재 시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이길우 역, p.90)

이같은 관점이라면 학생청소년에게 하루의 의미는 단순한 생활속, 즉 자신의 생활 가운데 있는 존재의 움직임이지 그것을 통제하거나 구성할 수 아무런 가시적 현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적어도 주변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놓여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반영하는 보일 수 있는 시점 다시말해 시간들이 되어질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한달의 시간이 어떤 관점에서 계획되고 생활되어 지는 지를 알아봄으로써 학생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과 그 관념, 행동범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1) 계획한 무계획의 휴식

한달을 구분하는 개념은 많다. 초순, 중순, 하순으로 나누기도 하고,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 구분방식이 어떻든 간에 한달이라는 시간은 하루하루가 모인 시간이라는 것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루는 대체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의 전시간을 의미하지만, 한달은 그 하루 하루에 날짜가 부여되어 있으며 그 날들은 또한 평일, 일요일, 토요일, 그외에도 달의 성격에 따라서 월중행사와 방학 등의 특별한 시간개념이 있는 하나의 단위시간이 된다.

학생청소년들에게 학업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만 그것은 당위요, 미래지향적인 행위로 비추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부는 지금은 지겹지만 미래가 밝고, 유흥가와 타락은 지금은 신나고 재미난 것 투성이지만 미래가 어둡고 암울하다. 난, 과연 어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박준형, 1990).

청소년들은 공부보다는 노는데 관심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물론 이

것은 공부에 대한 시각의 문제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들은(적어도 많은 어른들과 함께)공부를 학교라는 제도의 틀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피동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노는 일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라 여긴다.

따라서 한달에 4~5번 있는 주말(일요일까지 포함)은 그들에게 자신의 자율적인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긴요한 시간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다. 공부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대부분 그것은 보다 자유롭게 ‘놀 권리’를 갖기 위한 사전책무에 지나지 않는다. 청소년의 주위에는 많은 환경의 유혹이 산재해 있다.

텔레비전, 라디오, 전자오락실, 공놀이, 롤러스케이트장, 청소년디스코장, 그리고 재미있는 친구들과 이성과의 멋진 만남 등 무수히 많다. 이러한 선택은 학생의 개인적 가치와 선호 그리고 교급별, 남녀별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점때문에 어느 것을 택해도 즐겁다.

중학생들은 비교적 주말을 자유롭게 지내는 반면에 고등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7~8시간이며, 사설 독서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휴식을 취할 때도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며 지낸다. 그래도 평일에 비하면 여유가 있어 텔레비전도 보고 친구들과 운동을 하면서 지내기도 한다.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축구·농구·탁구 등 운동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공통적이며,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 음악에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에게 오디오 시스템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디스크를 사서 모은다든가, 음악을 듣는 시간이 증가한다. 악기 중에서도 기타를 배우고 싶어하며, 실제로 기타를 칠 줄 아는 학생이 많다. 클래식보다 팝송, 재즈, 가요를 선호하며, 좋아하는 가수들의 라이브 컨서트를 가기도 한다. 또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도 많아, 친한 친구들과 주말에 만나 점심을 사먹고 영화관에 가기도 한다.(황정규외 3인, p.24)

그러나 이렇게 노는 활동은 공부와 학업과는 달리 집안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할수록 놀이문화도 매우 물질화되고 과학적이고 값비싼 도구를 이용하게 된다. 즉 예전에는 친구들 몇몇이 모여서 동네 길목에 선을 그어 놓고 갖가지 몸과 몸이 부딪치는 놀이를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전자오락기에 앉아서 서로 편을 갈라 오락기를 매개로 각종 놀이를 즐긴다. 물론 이것은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경제적 정도에 따라 각 계층간의 놀이문화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한달의 계획을 짜는데 있어 금전적인 여유가 그들의 놀이 나아가 자율적인 문화 향유의 선택기회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매력때문에 별로 하는 일 없이 지내더라도 무척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이다. 그들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지만 또 다른 기분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친구를 만나고 평일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만나지 못하는 이성친구와의 교제도 한다.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말을 이용하여 만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성교제를 전전하게 하면 괜찮다고 의식적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고등학생 때에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고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을 한다. 학생들도 교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편이기 때문에 극소수의 학생만이 꾸준히 데이트 하는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그룹 미팅을 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미팅 주선은 중학교 때 남녀공학을 다녀 여학생을 많이 안다든가, 여자친구가 있는 학생들을 주선한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교에 입학하면 미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미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황정규외 3인, p.24)

많은 학생들의 경우 한달 동안에 공부하겠다는 의지는 강해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 그들의 머리속의 계획은 주어진 기간동안 어떤 재미있는 것을 하면서 노느냐는 문제가 더욱 강한 현실로 다가온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양분한다. 즉 공부하는 것과 잘 놀 수 있는 것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하는 반면, 때로는 벗어나게도 한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주말의 시간은 그들에게 황금같은데 빠르다. 그 빠른 시간에 청소년들은 친구를 만나고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에 심취 해야하고 영화도 보아야 한다. 결국 휴일은 자신의 멋진 계획과는 상관 없이 지나가지만 또 다른 휴일을 계획하면서 보낸다. 그것은 시간에 대한 아쉬움 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공부의 염려외에는 노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시간배분 형태를 학습시키지 못한 어른과 사회의 책임을 질타하는 안타까움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청소년들은 학교가 아닌 공간과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즐거움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무척 귀중하게 생각하며 활동하려고 하지만 실제 시간활용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이나 의미가 크지 않은 행동만 되풀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것은 그들이 각박한 시간들 속에서 비교적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의 당혹감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2) 무계획한 계획속의 긴 공부

새로운 달을 맞는 기분은 늘 설레이지만 두렵기도 하다. 특히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 첫달은 매우 큰 긴장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된다. 그들은 빠른 시간동안 주어진 환경과 사람들을 올바르게 탐색할 수 있는 데 보낸다.

학생들에게 일년 중에서 가장 긴장되고 활기찬 때는 3월 달이다. 3월 초 학생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등교한다. 그들의 관심은 학급담임교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이 누구인지 쫓려 있다. 학생들은 학급담임 교사와 급우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급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 학생들은 누가 담임교사가 되던지 새 담임교사에게 적응할 마음의 준비를 갖춘다.(이영덕, p.36)

신입생이 아닌 경우에는 3월은 학기가 시작되는 달이므로 새로운 친구, 담임선생님 등에 적응을 하는 기간이다. 또 이 시기는 중학생의 경우 월정고사가 있는 날이다. 월정고사란 한 학기에 있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외에 한 학기에 두번에 걸쳐 주요과목에 대해서 치루는 시험이다. 사실 청소년들에게 시험은 학업의 여려부담 중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긴장과 압박을 가져다 준다. 학기 초의 시험은 자신을 평가하고 또한 선생님이나 학우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더욱 가중된다.

3월 이후 학생들은 춘계소풍, 백일장, 수련회, 사생대회, 교내합창대회와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학교인 경우에는 종교에 관련된 각종 행사를 치른다. 또한 그들은 중간고사와 학기말시험 준비를 하고 특히 고등학생은 대입준비를 위한 공부가 계절의 바뀔도 잊게 할 만큼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다달이 공부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생활한다. 이 때의 공부는 어떤 공부를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단지 공부를 해야하고 늘 공부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들은 공부에 대한 타당성이전에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공부한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일상생활은 그 흐름의 마디마디가 ‘공부’와 연관되어 있다. 어떤 활동도 그 자체로서 비학구적인 활동도 있지만 그런 활동조차도 ‘공부’와는 무관할 수 없다. 예컨대, 쉬는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눈을 부릅뜨고 공부를 한다든지 아침 특강을 듣기 위해 일찍 일어난 학생이 오전수업시간 내내 존다든지 하는 것은 이러한 권한을 보여 주고 있다. 요컨대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일과는 ‘공부’에 의하여 주도되고 또한 그것이 방과 후의 일과, 즉 도서관, 독서실에서의 공부, 집에서 공부로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이영덕, p.98)

학생청소년은 한달동안 많은 행동과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달이라는 시간은 오직 공부에서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시간표를 작성해서 시키는 공부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고등학교 고학년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년에 따라서는 보충수업시간의 연장 등으로 적지 않은 시간 공부에 시달리게 하지만 평균 하루에 7~8시간 안팎의 수업을 받고 있다. 물론 이것은 하루시간의 1/3에 해당하지만 방학과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한달 내내 공부속에서 파묻혀 산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타율적인 시간이며 또한 학생은 공부라는 사회적 인식이 절대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들에게 공부는 계획도 할 수 없을 만큼 일상화되어 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통제된 틀속에서 한달이라는 전체 시간에 압박을 가한다. 즉, 한달을 공부라는 시간으로 조여놓고 있다.

3) 가짜 공부와 진짜 놀기

학생들에게 공부와 이별(?)하는 달이 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방학은 적어도 학생들에게는 자유로운 한달이다. 아마도 한달에 대한 계획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도 계획성 있게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달이 바로 방학일 것이다.

학생청소년들이 방학 때 해야 할 일은 무척 많다. 그들의 표현에 따르자면 밀렸던 공부도 해야하고, 여행도 가야하고, 못졌던 잠도 싹껏 자야하고, 보고 싶었던 책과 듣고 싶었던 음악도 마음껏 들어야 한다.

실천의 여부를 떠나서 누구나 방학을 앞두고 멋진 계획을 그려 본다.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년일지라도 방학 때 해야할 공부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초조한

마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시간의 압박에 시달린다.

계획한 일정량의 방학학습을 해 놓으면 1,2학년들은 자유롭게 노는 편이다. 그들은 오락실에서 가서 오락을 한다든가 친구들과 만나 운동을 하고 또는 집에서 형제들과 놀이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등 주말의 생활유형과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여름방학에는 가족전체가 어디로든지 피서를 간다는 점이다. 그리고 고등학생 정도의 남학생들은 방학에는 친구들과 모여 운동을 한다. 때로는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친다든가 볼링장에 가서 볼링을 하는 등 중학생보다 성인들이 하는 운동을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고등학생들은 관심이 있는 활동이나 취미생활에 대해서 중학생보다 적극적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자아의식이 싹트면서 감성적인 면이 개발되어 문학·음악등에 매우 관심을 갖게 되지만 방학중에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공부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황정규외 3인, p.26)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학기간에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계획을 세운다. 하나는 소위 밀렸던 공부라고 일컫는 부족한 학과과목에의 보충이요, 다른 하나는 공부때문에 제약을 받았던 각종 놀이를 즐겁고 알차게 해보는 일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이 방학이라는 시간에 이 두가지 축을 조화시키려 하지만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무척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보다 근원적인데서 찾을 수 있다. 적어도 우리가 청소년육성의 기본목표를 흔히 이야기하는 지·덕·체의 바람직하고 균형있는 발전에 두고 있다면 학교에서의 공부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생들의 각종 학습 과정은 지적 발달의 범주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와 동등하게 바른 덕성과 품성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논리이다. 너무나도 많이 논란이 되어 온 지적 발달의 편중은 학생들의 생활시간을 구성하는 기본틀을 흔들고 있다. 즉, 학생들은 제도적인 -물론 덕성과 체력이 꼭 제도적인 형태의 교육으로 보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체계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교육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그것이 장차 사회속에서의 개인의 위치와 자격을 규정해 주는 사회환경 때문에 공부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으며 자아도 그렇게 내면화시킨다. 따라서 제도밖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루고자 하는 덕성이나 신체의 발달은 늘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때로는 그것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고 덕성이나 신체의 발달을 모두 공부 즉, 지적 학습능력의 범주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처

구니 없는 모순을 초래한다.

이같은 부조화는 결국 공부는 제일 중요하지만 강한 억압으로 다가오며 ‘노는 것’은 별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재미있는 것으로 보여, 오직 ‘노는 것’의 눈에 보이는 기능적인 면만 추구하는 거듭된 잘못을 범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방학은 무척 다양하게 지낼 수 있는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해도 공부라는 강박관념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의미있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만다.

4) 계획된 한 달의 모습

학생청소년들이 한 달의 시간을 몇 차례있는 토요일, 일요일, 나머지 평일들, 그리고 방학기간 등의 집합체로 나누어 그들의 생활시간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한 달을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청소년들이 만나는 대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시각이다.

청소년들은 한달을 가족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학교에서는 그리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생각한다. 그들이 의식하던 또는 못하던 간에 가정, 학교, 교외에서의 생활을 계획한다.

가정에서 청소년들은 한 달의 시간을 가족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다른 가족원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낸다. 부모, 형제와의 관계속에서 그들은 청소년기의 속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다른 구성원들을 동일시하면서 생활한다.

청소년이라는 시기 또는 이유때문에 가정내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수동적이다. 시간의 관점에서 그들의 생활이 가족의 한 달 시간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의사결정권을 갖고 능동적으로 시간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요원으로서 수동적인 행위자의 기능을 대부분 갖고 있다. 이같은 행위자는 한 달의 계획을 가족을 위해 할애해야 할 시간이나 일의 분담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기중심으로 시간을 꾸미며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시간이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다시말해 그들은 가족과의 관계 더 나아가 가족을 위해서 한달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 달계획을 가족으로 부터 지지 받기를 원하며 때로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청소년들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가족내에서 갖는 즉, 부모와 갖는 시간 보다는 스스로 계획하여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찾는다. 우리는 어른

들에게서 아이들이 커서 가족과 함께 외식 하기 싫어 한다는 섭섭함이 묻어있는 푸념을 흔히 듣는다. 소위 품안의 자식이라는 이야기는 청소년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청소년의 강한 욕구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영역에서 학생청소년들의 시간계획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시간표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예를들어 어려서부터 관행화된 한달의 한번 가족과의 외식이나 외출, 여행, 친척집에서의 모임 등에 참여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렇듯 가족과의 관계를 분리하여 시간을 맞추려는 청소년들은 한달의 시간을 효율성 즉,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중요시되는 일 중심으로 할애해 나간다.

이 중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획하는 시간은 교외에서의 활동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와의 만남, 종교활동을 하는 시간, 음악회에 가는 회수 등을 한달의 시간중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느낀다.

결국 학생청소년들은 한달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실천하고 평가하여 다음의 달을 준비하는 노력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또한, 한달을 구성하고 있는 시간의 각기 다른 요인들 때문에 일관성있는 계획을 세워 진행하기는 어려우나 그들은 하루나 한 주일과는 다른 모습으로 한달을 맞이하고 생활한다.

그들은 한달의 시간을 주단위 또는 일일 단위로 아니면 내용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생활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학업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그 시간들은 매우 개인적이며 때로는 배분방식마저 생각지 않는 피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3. 일년동안 무엇을 하나

학생청소년들에게 일년은 매우 긴 시간이다.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 기간동안에 청소년들은 어른들과는 달리 큰 폭의 심리, 신체적 성장을 보인다. 또한 학생청소년들에게 일년은 한 학년을 보낸다는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일년의 시간이지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는 큰 차이가 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하루는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일년이라는 시간단위로 보았을 때 청소년들의 시간활용형태는 천의 얼굴로 나타나게 된다.

연초가 되면 일년의 계획을 세운다. 학생청소년의 경우 일년의 계획은 공부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년 중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생이라는 신분때문에 늘 학업에 대한 강박관념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그들은 학교생활과 학업외에 자신의 성장과 생활에 도움을 될 수 있는 갖가지 내용의 활동을 계획한다.

여기서는 일년이라는 시간을 학생청소년의 청소년기 활동과 문화 그리고 성장의 측면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알아봄으로써 그들의 시간활용의 총체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1) 끝있는 배움의 길

배움의 길은 끝이 없지만 학생청소년들에게 배움은 하나의 결과를 향한 과정일 뿐이다. 모든 학생청소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의든 그렇지 않던 간에 그들은 제도라는 사슬에 묶여 상급학교 진학을 배움의 목표로 삼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학교에서의 교육은 지·덕·체의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하나의 이상이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청소년들은 지·덕·체를 통합하여 진학이라는 학습틀속에서 매일 배우며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일년 중 배움이란 계속적인 과정을 통한 학습이 지식과 정보의 인지로 변해버린 공간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낸다.

고등학생들이 그들 생활의 핵심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공부’란 교과를 학습하는 것을 뜻하며, 특별활동은 ‘공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이 규정한 교과에는 ‘주요과목’과 ‘기타과목’이라는 위계가 있다. 학생들은 교과학습만이 공부라고 생각한다. 현행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교육과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특별활동은 인간교육 혹은 전인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교과 학습과는 별도의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특별활동을 ‘공부’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특별활동 예컨대, 소풍, 수학여행, 체육대회, 합창대회 등은 ‘행사’라고 불리우는 명백히 수업에서 제외되는 활동이다.(이영덕, pp.98-99)

이러한 이유는 공부가 상급학교 진학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생활을 공부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는 시간으로 구분한다. 공부하는 시간은 진학에 필요한 학습과목을 수업할 때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은

그들이 생각하는 -진학시험에 관계되는 과목- 공부를 제외한 학교내에서의 모든 시간이다.

학생청소년들은 한 학년동안 학교에서 두 가지를 얻는다. 하나는 진학시험에 필요한 공부와 각종 자료를 습득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친구교제와 공부속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을 주요한 과목이외의 시간에서도 얻는 역설을 가진다.

그들은 한 해동안 공부의 성과를 위해 노력하며 자신이 원했던 성적이나 상급학교의 진학을 통해 거의 한해동안 투자했던 시간의 전부를 평가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한 해동안 거의 매일 쉬지 않고 배우며 그것을 위해 생활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은 배움을 점수화하는 방법을 얻고, 성적표를 시간의 결과물로 갖게 된다. 이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관계없이 청소년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매우 큰 시간의 덩어리에서 원하지 않는 객관적이며 못마땅한 점수의 낙인을 강요당하고 또한 그것을 가진다.

2) 보이지 않는 모습

청소년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 그들의 생각과 신체가 모두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청소년 자신이나 사회 모두 그 변화가 그를 포함한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청소년들은 자유롭고 싶어한다. 그들이 갖는 시기는 사춘기로 대표된다. 사춘기는 성역할의 정체감을 이루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가치를 내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 시기에 전생애 걸친 자신의 인생관과 사회적 성격의 큰 부분을 완성한다. 그들은 사랑과 인생, 그리고 죽음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인 명제일 뿐이다. 이러한 배움은 공부라는 커다란 공통앞에서 하나의 사치이고 왜소한 몸부림이 되고 만다.

그래도 많은 청소년들은 일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며 또한 실제 의식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일을 한다. 이같은 일을 통해 청소년들은 심리·사회·신체적으로 성장·발달한다. 청소년들이 일년에 걸쳐 하는 일은 그 자신의 생활양식의 유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자신의 성격에 따라 생활양식이 결정되고 그에 의해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일에 부딪치든 간에 독특한 형태속에서 움직인다.

여 운승은 청소년의 생활양식 유형을 편의적 물질 추구형, 현실비관형, 독립성취지향형, 스포츠선호형, 가족중심형, 정보탐사형, 변화추구형, 집단참여형, 전통주의형, 현실만족형, 신앙중시형, 개인주의형, 절약형, 생존궁핍형, 건강주의형 등 15가지로 나눈 뒤, 한 조사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은 편의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유형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기질을 보여주는 독립성취지향형이나 집단참여형, 현실비관형 등은 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여 운승, p.195).

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일년동안 변화보다는 안정속에서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생활한다. 이것은 사회문화적 배경은 물론 학생청소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입장과도 상관이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청소년들이 일년이라는 시간을 매우 수동적인 생활양식으로서 채우고 있다는 간접적 증거도 된다.

그들은 일년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는 정확한 인식없이 하루의 시간, 짜여진 시간속에서 이끌려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위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의 선택에 따라 즉 청소년기의 욕구에 따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의 제한을 느끼기때문에 재미있고 보람있게 하는 행위도 늘 위축된 상태로 진행된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취하는 일이 꼭 가시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성숙하고 있다. 행위와 사고가 변화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늘 새롭게 정립한다. 가정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행위형태가 점점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찾는다. 이같은 심리적인 성장은 현실과 이상사이의 괴리속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 주위의 여러사람에게 심한 피해를 입히는 행동의 근원을 제공한다.

어른에 비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일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여러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나간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 삶의 전과정을 거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한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3) 얻는 것과 잃은 것

한 해의 시작은 1월이다. 새해 첫날 달력의 큰 숫자가 눈앞에 다가오면 청소년들은 결심을 한다. 올해는 성적을 올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줄넘기와 체조를 통해 몸을 튼튼하게 하고, 한달에 몇권이상의 책을 읽으며,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대폭 줄이겠

다. 그리고 친구들과 자주 싸우지 않고, 우리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듣겠다는 상당한 분량의 자기와의 약속을 한다.

이 약속이 일년동안 지속되든 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간에 첫 달의 의미는 한해를 멋지게 그리는데 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방학기간이 마음을 안심시켜며 새해를 맞는 즐거움과 희망에 넘쳐 시작한다. 청소년들은 어른에 비해 더 큰 소망을 새해에 가진다. 청소년들에게 과거는 빨리 지나갈수록 좋다. 그들은 늘 미래에 살고 있다. 공부라는 중압감에 시달리면서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조금은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시도도 해본다. 친구들과 어울려 그냥 돌아다니 보기도 한다. 잠시 학교에서의 생활을 잊고 싶은 그들은 한 살의 나이를 더해 성숙해가는 자신을 스스로 감지하고 싶어한다. 좀더 어른스럽게 생각도 해보고, 동성이나 이성 친구와의 관계도 다른 차원으로 이끌고 싶어한다. 또한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더 많이 이해하려는 노력도 해본다.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와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또래집단과 어울려 돌아다니고, 때로는 수영, 스케이트, 팝송에 혼자 심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듯 느슨하게 풀어진 마음은 개학이 다가오면서 초조감으로 바뀐다. 방학으로 긴 시간을 소비했는데 뚜렷이 해낸 일이 없고, 계획대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는 자책감과 두려움에 당혹스러워 한다. 중·고등학교시절 동안에 6번 정도 밖에 없는 방학을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새학년을 맞이해야 하는 곤혹스러움은 실제 많은 것을 이룬 청소년이라도 갖는 즉, 누구에게나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이다.

그것은 적어도 방학이 학생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운 기간이므로 그 시간을 소비하였다는 데서 오는 심적인 부담이 크며 개학을 하고 학교에 다니면 일정한 시간을 통제받으며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한 그것은 간혹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변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개학과 함께 이러한 증상을 어렵지 않게 극복한다. 그들에게 학년 초의 개학은 지난 학년을 마무리 하는 동시에 새로운 학년의 시작을 의미한다. 사실 공부가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학습과정 이전에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현실적인 비판의 풍토에서 상급학년으로의 진급은 큰 의미를 갖지 않지만 새로운 친구, 환경, 그리고 자신을 물리적 변화에서 들여다보는 또 하나의 삶의 계기가 된다. 또한 한단계 높은 교과목을 공부하며 새로운 학습풍토를 조성해 나간다. 이같은 탐색의 기간은 교외에서의 행동에도 제약을 주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게 한다. 비행학생이라도 낮모

르는데서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듯이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친구관계나 새로운 학습과정에 대한 적응을 위해 애쓴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무난히 적응해 나가지만 적지않은 청소년들이 현재보다는 과거에 집착하는 등 적응하지 못해 일년내내 갈등과 괴로움을 겪는다. 그들은 예전의 행동을 찾는 등 퇴행현상도 보인다. 전 학년에서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만 찾아서 어울리며, 심지어 휴식시간이나 방과 후에도 그들을 찾아 생활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에서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현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폐쇄적 세계를 구축한다. 이런 경우 하나의 개인적 성격차이에서 비롯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이지만 간혹 이같은 행동이 심해져 이전과는 매우 다른 세계속으로 즉 비행이나 지나친 자책감, 열등감, 소외감 등에 빠져들어 예기치 못한 행동양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과정이 진척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생활도 자리를 잡는다. 공부잘하는 학생,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학생, 우스게 소리를 잘하는 학생, 말성꾸러기 등 자신의 성격과 행동특징을 나타내며 학교에서 집으로, 집에서 학교를 바쁘게 왕래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수많은 지식과 만난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물리, 역사 등을 외우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또한 그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점친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이나 행동을 이탈시키고 싶어한다.

나는 가끔 종소리가 울리고 한참 후에도 선생님이 안들어 오시면 가벼운 흥분을 느낀다. 때로는 귀를 쫓긋 세워 발자국소리를 들으려 애쓴다. 실컷 떠들던 아이들도 조용해진다. 혹시... 오늘 ‘독려’선생님이 아프신 것이 아닌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가. 사실 선생님이 결근하셨어도 우리에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우린 그 시간에 분명 자습을 해야하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도 아닌데... 그래도 아이들은 즐거워한다. 선생님이 안오시면.

점심시간의 외출, 방과 후 햄버거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잡담을 나누는 일. 그런 시간들이 지식의 압박속에서 늘 가시방석같은 불안에눌려 있다는데 안타까워한다.

1학기(봄학기)는 지루하다. 적지 않은 교내외의 행사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행사로서 끝난다. 어느때 피곤하기까지 하다. 실제로 소풍, 수양회, 합창대회 등은 즐거운 학교행사이고 가족과 함께 놀러가는 것도 즐겁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즐겁지만 그 당일은 또 내일이 기다리기 때문에 불안하다. 배우는 곳이 학교이고 다른 행위는

공부에서 벗어나는 오락이며 휴식이다. 결국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의 부메랑속에서 청소년들은 살고 있다.

여름방학이 되면 많은 청소년들은 여행계획을 세운다. 부모와 바둑고단기사의 수를 능가하는 싸움을 벌리며 허락을 받아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다. 그들에게 여행의 목적은 공부를 벗어나는 것이다. 바다로 가서 해수욕도 하고 키타치며 노래도 한다. 산에 가서 노래부르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다. 산의 많은 나무, 바다의 멋진 정경들을 바라보며 나무의 이름을 외우며 노을을 바라보며 젊음을 생각하기엔 머리가 너무 지쳐 있다. 그냥 자기들의 은어를 써가며 논다.

결국 청소년들은 수많은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모두 공부라는 강박관념에 얽매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학기는 청소년들에게 1학기보다 많은 부담을 준다. 공부하기에 좋은 계절은 반대로 놀기에도 좋다는 뜻이 된다.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아니면 진학을 앞에 둔 학생은 또 다른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때, 자신의 삶이 유보당하고 있다고 느끼며 행동 하나하나의 이유보다 그 과정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청소년은 일년의 과정속에서 시간과 시간속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내용과 행동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의미는 잃어가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잃어가는 것보다는 기억의 저편으로 물리치며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지식과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면책의 기쁨을 누리지만 자신의 문화와 생각을 행동화시키는 시간을 하나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조차 언어적표현과 시간표처럼 짜여진 행동으로 인식하며 생활하고 있다.

Ⅲ.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 및 수련활동시간

Ⅲ.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 및 수련활동시간

청소년 전전 육성을 위해서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지식편중과 입시위주의 교육형태는 학생청소년들의 균형있는 발달에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몇몇 개개인의 의지와 생각에 의해 변화하기는 힘들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꾀하고자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책적인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수련활동에 따른 환경조성 방안도 그 일환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여건조성을 위한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같은 시간확보는 매우 간단한 정책적 의지나 국민적 합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참여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시간활용형태와 욕구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같은 과정으로부터 본 연구는 시작되었으며 이 장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를 위한 기초적 작업으로서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과 수련활동 시간의 실태와 욕구를 조사함으로써 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생활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확보 방안을 연구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점은 현재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문제이다.

학생청소년의 일상생활 시간은 활동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시간량에 따라 크게 수면시간, 학교수업과 그외의 공부시간, 식사·신변잡일 등 생활필수 시간과 여가시간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1) 수면시간

우리나라 학생청소년의 수면시간은 평일에 7시간 15분, 토요일에는 7시간 40분, 일요일에는 8시간 10분으로 청소년의 적절한 평균 수면시간 9시간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

잠자는 시간

	성 별		학 교			지 역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평일	7:10	7:20	7:40	6:35	7:10	7:10	7:15	7:20
	F: .261		F: 251.07**			F: 9.789***		
	M: 7 시간 15 분							
토요일	7:40	7:40	7:50	7:20	7:40	7:40	7:40	7:45
	F: .237		F: 58.634**			F: 1.467		
	M: 7 시간 40 분							
일요일	8:10	8:10	8:30	7:40	8:20	8:10	8:10	8:10
	F: .777		F: 69.241***			F: 2.542		
	M: 8 시간 10 분							
합계 (실수)	47.6 (648)	52.3 (712)	49.1 (668)	37.5 (511)	13.4 (182)	24.8 (338)	53.7 (731)	21.5 (292)

P<.01, *P<.001

하루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는 수면시간은 한창 성장중인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신체·정신 발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활동이다. 청소년에게는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이 있다. 따라서 수면욕구는 청소년마다 다르다(미국에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에는 수면욕구가 증가한다고 한다). 이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매일 9시간이 적절한 평균치이다. 〈표 Ⅲ-1〉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청소년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평일에는 남학생이 7시간 10분, 여학생이 7시간 20분으로 청소년 적절한 평균 수면 9시간에 크게 못 미치지만 토요일에는 이보다 조금 더 많은 7시간 40분으로 여학생과 남학생의 수면시간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에는 남·여학생 모

두 8시간을 넘은 8시간 10분으로 평일과 토요일에 비해 비교적 풍부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요일에는 등교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 늦잠을 자기 때문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인문계와 실업계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교수업을 받는 평일에는 중학생 7시간 40분, 인문계 고등학생 6시간 35분, 실업계 고등학생이 7시간 10분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중학생이 아직 입시압력을 덜 받고 있으며 실업고 역시 입시경쟁과 무관하며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입시경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토요일에는 거의 비슷한 시간 수면을 취하고 있으나 일요일 역시 인문계 고등학생이 7시간 40분으로 중학생 8시간 30분, 실업계 고등학생 8시간 20분에 비해 수면시간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소하지만 의미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평일에는 서울이 7시간 10분, 직할시가 7시간 15분, 기타시가 7시간 20분으로 대도시 일수록 수면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거의 같은 시간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수업과 그외의 공부시간

어른들의 노동시간에 해당되는 자율학습시간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수업시간과 학원에서의 수업·과외·TV과외를 포함한 학교외의 학습시간 그리고 집에서의 예습·복습시간 등 수업과 공부시간은 학생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간이다.

학생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수업과 그외의 공부시간은 생활시간 중 가장 핵심적인 시간으로 이들은 평균 평일에는 11시간 35분, 토요일에는 8시간 30분, 일요일에는 3시간 45분 공부한다고 응답했다.

(1) 학교 수업시간

학생청소년들의 학교 수업시간은 평균 평일에는 8시간 10분, 토요일에는 4시간 45분으로 나타났다.

평일 학교수업시간은 중학교가 7시간 55분, 실업고가 7시간 45분 인문고가 8시간 30분으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토요일 역시 인문고가 5시간 15분으로 중학교 4시간 30분과 실업고 4시간 30분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학교수업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입시가 주원인임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남학생과 여학생간에는 다소 여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수업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커다란 의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별로는 기타시가 8시간 15분, 직할시가 8시간 10분, 서울이 7시간 55분이라는 차이가 나온 것은 학교선정시 비례적으로 서울보다는 직할시가 직할시 보다는 기타시에 수업량이 적은 중학교와 실업고가 더 많이 포함됨에서 기인한다.

〈표 Ⅲ-2〉 학교수업시간

	성 별		학 교			지 역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평일	8:10	8:15	7:55	8:30	7:45	7:55	8:10	8:15
	F : 31.425***		F : 240.938***			F : 31.699***		
	M : 8 시간 10 분							
토요일	4:40	4:50	4:30	5:15	4:30	4:40	6:00	4:30
	F : 199.610***		F : 1313.417***			F : 139.904**		
	M : 4 시간 45 분							
합계 (실수)	47.6 (648)	52.3 (712)	49.1 (668)	37.5 (511)	13.4 (182)	24.8 (338)	53.7 (731)	21.5 (292)

***P< .001

(2) 학교외 학습시간

학교외의 학습시간은 과외, 학원에서의 수업, TV과외 시간등을 포함한 시간을 말한다. 조사결과 평균 학생들은 평일에는 1시간 25분, 토요일에는 1시간 30분, 일요일에는 1시간 15분이란 시간을 입시나 취업을 위해 과외나 학원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는 학교별로 평일에는 중학교 1시간 40분, 실업고 1시간 15분, 인문고 1시간 10분 순으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일에는 인문고가 학교자체에서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장시간 학교에 붙잡아 두는 반면 실업고 학생들은 학교수업시간만으로 자격증 따기에 부족한 실력을 기르기 위해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학원수업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실업고가 인문고에 비해 학습시간이 5분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은 취업을 위한 필수 기능인 주산, 부기, 영타, 한타, 컴퓨터 등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위해 입시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학원에 의존하고 있다.

〈표 Ⅲ-3〉

학교외의 학습시간

	성 별		학 교			지 역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평일	1:20	1:30	1:40	1:10	1:15	1:30	1:25	1:15
	F : 12.386***		F : 27.972**			F : 4.466*		
	M : 1 시간 25 분							
토요일	1:20	1:30	1:30	1:25	1:15	1:20	1:30	1:15
	F : 8.318**		F : 1.979			F : 4.980**		
	M : 1 시간 30 분							
일요일	1:10	1:20	1:15	1:25	55	1:10	1:25	1:05
	F : 5.806*		F : 6.582***			F : 3.276*		
	M : 1 시간 15 분							
합계 (실수)	47.6 (648)	52.3 (712)	49.1 (668)	37.5 (511)	13.4 (182)	24.8 (338)	53.7 (731)	21.5 (292)

*P< .05, **P< .01, ***P< .001

또한 중학교 학생들이 인문고에 비해 30분이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고등학생에 비해 적은 수업시간으로 인해 더 많은 자율시간을 갖게 된 결과 자율적으로 고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다음 〈표 Ⅲ-4〉의 조사결과가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학교외 학습여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재 학교이외의 곳에서 정기적으로 학과수업의 보충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학교 46%, 실업고 29.1%, 인문고 26.7%가 현재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위의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학교외 학습은 남학생 34.4% 보다 여학생이 38.4% 많이 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43.9%, 직할시 34.4%, 기타시 33.2% 순이었다.

학습동기는 〈표 Ⅲ-5〉를 보면 62.2%가 본인이 원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Ⅲ-4〉

학교외 학습여부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실수)
있다	65.6	61.6	54.0	73.3	70.9	56.1	65.6	66.8	63.5(861)
없다	34.4	38.4	46.0	26.7	29.1	43.9	34.4	33.2	36.5(495)
합계 (실수)	47.7 (646)	52.3 (709)	49.0 (665)	37.5 (509)	13.4 (182)	24.9 (337)	53.6 (727)	21.5 (292)	100.0 (1356)
χ^2	2.33		51.25***			10.75**			

P< .01, *P< .001

〈표 Ⅲ-5〉

배우게 된 동기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실수)
내가원해서	57.1	66.1	55.2	69.3	83.6	62.5	60.8	65.3	62.2(310)
부모님이 시켜서	34.3	26.4	37.1	22.1	9.1	29.6	31.8	25.5	29.9(148)
선생님또는 선배의원유	1.8	1.8	1.0	2.9	3.6	3.9	0.8	1.0	1.8(9)
친구의원유	6.7	5.7	6.8	5.7	3.6	3.9	6.7	8.2	6.1(28)
합계 (실수)	44.4 (220)	55.6 (275)	61.4 (305)	27.7 (135)	10.9 (55)	30.1 (150)	50.5 (250)	19.4 (95)	100.0 (495)
χ^2	4.41		27.74***			8.87			

***P<.001

학교별로 보면 본인이 원해서 스스로 하고 있는 경우는 실업고 83.6%, 인문고 69.3%, 중학교 55.2%로 나타난 반면 부모님이 시켜서 한 경우는 중학교 37.1%, 인문고 22.1%, 실업고 9.1%를 보여 실업고 학생들이 의사결정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부

모로 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같은 현상은 교습비의 한달 비용에 대한 조사가 입증해 주고 있다. 83.6%가 본인 스스로 원해서 과외학습을 받는 실업고의 경우에는 2~4만원 대가 67.2%이고 10만원 이상이 3.6%인데 반해 부모님이 시켜서 한다는 비율이 높은 중학교나 인문고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의 한달 교습비를 내고 있는 학생들이 26.8%, 49.6%로 높게 나타나 중학교나 인문고 학생들이 실업고 학생들에 비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

한달 교습비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2~4만원	26.0	32.0	20.0	36.2	67.2	21.3	30.4	41.0	29.2(145)
4~6만원	24.2	20.7	27.2	12.5	20.0	11.3	23.2	37.8	22.0(109)
6~8만원	16.1	12.7	20.3	2.9	9.0	16.0	11.5	11.5	14.3(71)
8~10만원	4.4	4.3	6.5	1.4		6.0	1.0	1.0	4.2(21)
10만원이상	29.1	31.2	26.8	49.6	3.6	46.6	11.5	11.5	30.1(149)
합계 (실수)	44.4 (220)	55.6 (275)	61.4 (305)	27.7 (135)	10.9 (55)	30.1 (150)	50.5 (250)	19.4 (95)	100.0 (495)
χ^2	6.45		143.30***			70.08***			

***P<.001

이상과 같이 평일에는 중학교, 실업고, 인문고 학생 순으로 과외나 학원학습에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학교수업을 보충하고 있는데 반해 주말에는 토요일에 중학교(1시간 30분), 인문고(1시간 25분), 실업고(1시간 15분), 일요일에 인문고(1시간 25분), 중학교(1시간 15분), 실업고(55분)순으로 실업고 학생들의 학교외 학습시간이 월등히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인문고나 중학교에 비해 실업고 학생들이 주말에는 학습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실업고 학생들의 학원수강이 주중에 이루어지고 주말에는 대체적으로 공강인데 연유하고 취업으로 인한 긴장감은 입시로 인한 긴장감에 역시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3) 집에서의 자습시간

학생청소년들의 집에서의 자습시간은 평균 평일에는 1시간 55분, 토요일에는 2시간 15분, 일요일에는 2시간 35분으로 주말에도 공부에서 헤어날 수 없다.

〈표 Ⅲ-7〉

공부하는 시간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평일	1 : 50	2 : 00	2 : 00	2 : 00	1 : 30	2 : 00	1 : 50	2 : 00
	F : 7.099***		F : 16.147***			F : 8.449***		
	M : 1 시간 55 분							
토요일	2 : 10	2 : 15	2 : 15	2 : 30	1 : 35	2 : 00	2 : 15	2 : 20
	F : 1.189		F : 28.044***			F : 3.065*		
	M : 2 시간 15 분							
일요일	2 : 30	2 : 35	2 : 30	3 : 10	1 : 35	2 : 20	2 : 40	2 : 40
	F : 1.002		F : 66.202***			F : 2.965		
	M : 2 시간 35 분							
합계 (실수)	47.6 (648)	52.3 (712)	49.1 (668)	37.5 (511)	13.4 (182)	24.8 (338)	53.7 (731)	21.5 (292)

*P < .05, ***P < .001

예습·복습 등으로 짜여진 집에서의 자습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인문고, 중학교, 실업고의 순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일에는 인문고가 2시간, 중학교가 2시간, 실업고가 30분이 적은 1시간 30분 공부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인문고가 2시간 30분, 중학교가 2시간 15분, 실업고가 1시간 35분으로 실업고와 인문고 사이에는 약 1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일요일 역시 인문고가 3시간 10분, 중학교가 그보다 40분이 적은 2시간 30분, 실업고는 인문고 보다 1시간 35분 적은 1시간 35분을 자습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교 입시를 앞에 둔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취업을 앞 둔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자습시간이 요청됨을 보여준다. 자습시간 역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5~10분씩 공부를 더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커다란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학교수업과 그외의 공부시간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해 보면

1. 학교수업시간과 집에서 자습시간에 인문계 고등학생은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 보다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고

2. 실업계 고등학생은 학교수업시간이나 집에서 자습시간보다는 학교외의 학습시간(아마도 학원강습)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 중학생은 학교외의 학습시간과 집에서 자습시간에 비교적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세 부분에서 모두 조금씩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좀 더 치밀하고 악착스러운 데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생활 필수시간(식사, 신변잡일 등)

학생청소년들의 생활필수시간은 수면시간, 학교수업과 그외의 공부시간, 여가시간을 제외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식사시간, 여러가지 준비시간, 이동시간 그리고 가사일을 하는 시간등을 말한다. 이것들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거나 청소년들의 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학생청소년에게 있어 생활필수시간은 평일 3시간 36분, 토요일에는 4시간 5분, 일요일에는 3시간 28분으로 나타났다.

(1) 식사시간

학생청소년들의 식사시간은 평균 평일에는 1시간 15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시간 20분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세번 있는 식사시간은 공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청소년에게는 어른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즐길 수 있는 허용된 즐거운 시간일 것이다. 공부로 부터의 해방과 먹는 즐거움이란 이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표 III-8>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학생청소년들은 이 기쁨도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평일에는 학생청소년들의 아침, 점심, 저녁 세번의 식사시간이 평균 25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각각 27분으로 나타났다. 어떤 비율로 아침, 점심, 저녁시간이 분포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족이나 친구간의 자연스런 대

화의 자리도 아울러 마련해주는 식사시간으로는 위의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방송공사에서 1990년대에 조사한 국민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전국민 평균 식사시간이 평일에는 1시간 41분, 토요일 1시간 41분, 일요일에는 1시간 49분으로 나왔으며 연령이 많을 수록 식사시간량이 길어지며 전요일에 걸쳐 10세~19세의 식사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청소년들의 식사시간은 국민평균 식사시간에 크게 못미치는 시간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 조사 결과 여학생과 남학생의 식사시간이 일요일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평일과 토요일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5분씩 덜 식사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식사시간은 평일에는 중학교가 1시간 20분, 인문고 1시간 15분, 실업고가 1시간 10분, 일요일에는 중학교 1시간 25분, 인문고 1시간 20분, 실업고 1시간 15분으로 전요일 모두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순으로 식사시간을 길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울이나 직할시가 똑같이 평일 1시간 15분, 토요일 1시간 20분, 일요일 1시간 25분인데 비해 기타시 학생들은 이보다 5~10분 적게 식사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8〉

식사시간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평일	1 : 15	1 : 10	1 : 20	1 : 10	1 : 05	1 : 15	1 : 15	1 : 10
	F : 18.504***		F : 35.921***			F : 12.821***		
	M : 1 시간 15 분							
토요일	1 : 20	1 : 15	1 : 20	1 : 15	1 : 10	1 : 20	1 : 20	1 : 10
	F : 7.627**		F : 22.566**			F : 13.582***		
	M : 1 시간 20 분							
일요일	1 : 20	1 : 20	1 : 25	1 : 20	1 : 15	1 : 25	1 : 25	1 : 20
	F : .280		F : 18.029***			F : 12.092***		
	M : 1 시간 20 분							
합계 (실수)	47.6 (648)	52.3 (712)	49.1 (668)	37.5 (511)	13.4 (182)	24.8 (338)	53.7 (731)	21.5 (292)

P < .01, *P < .001

(2) 여러가지 준비시간

학생청소년들은 여러가지 준비시간으로 평일 41분, 토요일 43분, 일요일 48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III-9〉

여러가지 준비하는 시간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평일	40	42	43	38	42	40	42	41
	F : 6.071		F : 18.633***			F : 4.539***		
	M : 41분							
토요일	42	44	44	41	44	41	44	42
	F : 4.110*		F : 8.820***			F : 7.432**		
	M : 48분							
일요일	45	50	48	47	48	46	50	46
	F : 34.901		F : 2.187***			F : 7.432**		
	M : 48분							
합계 (실수)	47.6 (648)	52.3 (712)	49.1 (668)	37.5 (511)	13.4 (182)	24.8 (338)	53.7 (731)	21.5 (292)

*P< .05, **P< .01, ***P< .001

세수, 목욕, 옷갈아 입기, 등교준비시간 등을 의미하는 준비시간은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미소하지만 아주 일관성있고,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 남학생은 40분, 42분, 45분, 여학생은 42분, 44분, 50분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5분을 더 사용하고 있다는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청결과 외모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일반 상식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학교간에는 평일에는 인문고 38분, 실업고 42분, 중학교 43분, 토요일은 인문고 41분, 실업고 44분, 중학교 44분으로 나타나 인문고 학생들이 여전히 시간에 쫓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인문고 47분, 실업고 48분, 중학교 48분으로 차이가 거의 없

어 인문고 학생들도 일요일에는 다른 날에 비해 여유를 가질 수 있음을 추측케 한다.

지역별로는 토요일 모두 직할시, 기타시, 서울 순으로 평일 42분, 41분, 40분, 토요일 44분, 42분, 41분, 일요일 50분, 46분, 46분으로 시간이 짧아지고 있었다.

(3) 이동하는 시간

학생청소년들의 이동시간은 요일에 관계없이 하루 평균 50분이었다.

〈표 Ⅲ-10〉 이동하는 시간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평일	45	50	50	45	1 : 00	50	50	50
	F : 6.172*		F : 35.869***			F : 4.084***		
	M : 50분							
토요일	50	50	50	50	50	50	50	50
	F : 5.519*		F : 35.602***			F : 6.660***		
	M : 50분							
합계 (실수)	47.6 (648)	52.3 (712)	49.1 (668)	37.5 (511)	13.4 (182)	24.8 (338)	53.7 (731)	21.5 (292)

*P< .05, ***P< .001

학교와 학원등의 통학시간 등을 합한 이동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일에는 남학생 45분, 여학생 50분, 토요일에는 남·여학생 모두 50분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 평일에는 인문고 45분, 중학교 50분, 실업고 1시간으로 실업고학생들의 이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문고 학생들이 앞에서 설명되었듯이 학교공부와 집에서 자습시간에 의존하는 반면 실업고 학생들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학원에서의 강좌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토요일에는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의 이동시간이 50분으로 모두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평일, 토요일 모두 50분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실업고는 학군이 정해져 있지 않고 도시 중심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이동시간이 길어진게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 표에 나타난 학교통학 방법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이 중학교 49.8%, 인문고가 33.3% 인데 비해 실업고가 8.8%로 나타난 것이 이를 확인시켜 준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실업고 학생들은 90.7%로 인문고 64.4%, 중학교 48.3%에 비해 매우 긴 거리를 통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11〉 학교 통학방법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걸어서	36.5	39.6	49.8	33.3	8.8	41.8	36.0	39.0	38.1(517)
버스로	58.1	45.8	44.5	55.5	67.6	51.3	53.8	46.9	51.7(702)
지하철로	1.1	1.4	0.3	2.2	2.2	1.2	1.4	1.0	1.3(17)
자전거로	3.9	0.1	2.0	2.4	0.5	0.6	1.5	4.5	1.9(21)
학교버스로	0.5	13.0	3.58	6.7	20.9	5.1	7.3	8.6	7.0(95)
합계 (실수)	44.7 (647)	52.3 (109)	49.0 (665)	37.6 (510)	13.4 (182)	24.7 (335)	53.8 (730)	21.5 (292)	100.0 (1357)
χ^2	111.08***		158.59***			70.58**			

P< .01, *P< .001

(4) 가정내의 일을 하는 시간

학생청소년들이 청소, 취사, 빨래돕기와 동생돌보기, 어른들 심부름 등 가정내의 일을 하는 시간은 평일 53분, 토요일 1시간 10분, 일요일 1시간 20분으로 나타났다.

가정내의 일을 하는 시간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남학생은 각각 48분, 1시간, 1시간 10분 가정일을 돕는데 비해 여학생은 평균 17분이나 많은 58분, 1시간 20분, 1시간 30분을 가정일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 여학생들이 가정일과 좀 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학교별로도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인문고, 중학교, 실업고 순으로 평일에는 39분, 59분, 1시간 12분, 토요일에는 1시간, 1시간 15분, 1시간 30분, 일요일에는 1시간 15분, 1시간 20분, 1시간 40분씩 가정내의 일을 돕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입시와 가정경제력이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업고 학생들은 대학입시

지역별로도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낸다. 대도시의 학생일수록 가정일을 돕는데 적게 참여하고 있음을 보인다. 따라서 서울, 직할시, 기타시 순으로 평일 48분, 55분, 57분, 토요일 1시간,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일요일 1시간 15분, 1시간 20분, 1시간 30분씩 학생들이 가정일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성 남	별 여	학 교			지 역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평일	48	58	59	39	1:12	48	55	57
	F : 37.854***		F : 112.979**			F : 18.702***		
	M : 53분							
토요일	1:00	1:20	1:15	1:00	1:30	1:10	1:10	1:20
	F : 76.014***		F : 48.781***			F : 28.303***		
	M : 1 시간 10 분							
일요일	1:10	1:30	1:20	1:15	1:40	1:15	1:20	1:30
	F : 66.659***		F : 32.807***			F : 18.318***		
	M : 1 시간 20 분							
합계 (실수)	47.6 (648)	52.3 (712)	49.1 (668)	37.5 (511)	13.4 (182)	24.8 (338)	53.7 (731)	21.5 (292)

〈표 III-13〉에 따르면 가정일 중 남학생은 부모님 심부름 47.1%, 청소 35.6%, 집안꾸미기 6.4%, 동생돌보기 6.4% 순인데 비해 여학생은 청소 43.1%, 부모님 심부름 24.8%, 빨래 11.9% 순으로 각기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인문고 26.9%나 실업고 29.1%에 비해 중학생들이 41.6% 부모님 심부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실업고 학생들은 인문고나 중학교 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고른 분포로 다양하게 집안일을 돌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이나 직할시의 학생들에 비해 기타시의 학생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표 III-13〉

가정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내서 하는 일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청소	35.6	43.1	34.6	46.4	38.5	40.2	41.6	33.7	39.6(534)
밥짓기	1.6	2.1	0.9	2.4	3.8	1.8	1.5	2.7	1.9(25)
빨래	3.0	11.9	4.5	10.5	11.0	6.0	7.0	11.0	7.6(103)
동생돌보기 (함께 놀아주기)	6.4	7.2	9.5	5.3	1.1	5.7	7.0	7.6	6.8(92)
부모님 심부름	47.1	24.8	41.6	29.6	29.1	38.4	38.4	33.7	35.4(478)
집안꾸미기	6.4	10.9	8.8	5.9	16.5	7.9	8.1	11.3	8.7(118)
합계 (실수)	47.7 (643)	52.3 (706)	49.0 (661)	37.6 (507)	13.5 (182)	24.5 (331)	53.9 (728)	21.6 (291)	100.0 (1350)
χ^2	96.18***		82.78***			15.74			

P<.01, *P<.001

이상과 같이 학생청소년들은 수면, 공부, 여가시간을 제외한 생활 필수시간으로 평일에는 3시간 36분, 토요일에는 4시간 5분, 일요일에는 3시간 28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 ① 학생청소년들의 식사시간이 전체적으로 국민평균식사시간에 크게 못미치는 짧은 시간이고,
- ② 등교준비 등 여러가지 준비를 위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 ③ 이동시간을 실업고가 인문고나 중학교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와 집간의 거리가 멀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강습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 ④ 가정내의 일을 하는 시간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역할의 영향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실업고 학생들이 인문고나 중학교 학생에 비해 크게 차이나게 많은 시간을 가정내 일하는 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투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여가시간

청년층의 전기와 중기에 해당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시기는 아동으로부터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이때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장발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매우 불안정한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에는 인간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여가선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심한 입시경쟁과 급속도로 발전하는 선진공업국의 첨단과학에 발맞출 수 있는 기술개발만이 중시되어 청년층의 여가시간의 증가와는 달리 학생청소년들은 교육과정의 연장만큼 여가시간이 감소되고 있다. 인간은 여가를 가질 수 없을 때 불안과 초조, 공포와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삶에 있어서의 자기표현, 자기해방, 정서적 안정이나 긴장의 해소, 그리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방법과 자기만족을 위한 시간과 활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여가는 바람직한 생활태도와 수단으로서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절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표 III-14)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평일	55	55	1 : 05	40	1 : 10	50	55	55
	F : 1.021		F : 62.399**			F : 4.435***		
	M : 55분							
토요일	1 : 25	1 : 30	1 : 30	1 : 20	1 : 40	1 : 25	1 : 30	1 : 30
	F : 1.278		F : 14.245**			F : 4.555*		
	M : 1 시간 30 분							
일요일	1 : 35	1 : 40	1 : 35	1 : 35	1 : 45	1 : 30	1 : 40	1 : 35
	F : .497		F : 7.041**			F : 4.783**		
	M : 1 시간 35 분							
합계 (실수)	47.6 (648)	52.3 (712)	49.1 (668)	37.5 (511)	13.4 (182)	24.8 (338)	53.7 (731)	21.5 (292)

*P< .05, **P< .01, ***P< .001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네 영역(즉, 사람들과의 교제시간, 관람·감상·구경·스포츠 등 교양활동이나 취미활동시간, 독서시간, TV시청시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소요시간을 알아 보았다.

(1) 사람들과의 교제시간

친구, 친척 및 이성과의 교제시간이 포함되는 이 시간을 위해 학생청소년들은 평일에는 55분, 토요일에는 1시간 30분, 일요일에는 1시간 35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단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토요일과 일요일 1시간 30분, 1시간 40분으로 5분씩 더 만나고 있을 뿐이다. 학교별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입시압력을 많이 받는 순으로 교제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인문고, 중학교, 실업고 순으로 평일 40분, 1시간 5분, 1시간 10분, 토요일 1시간 20분, 1시간 30분, 1시간 40분, 일요일 1시간 35분, 1시간 35분, 1시간 45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학생들이 타지역에 비해 5분정도 적은 평일 50분, 토요일 1시간 25분, 일요일 1시간 35분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 III-15〉

친구들과 만나서 주로 하는 일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스포츠활동	18.0	0.7	8.6	8.8	10.4	9.3	7.4	12.3	8.9(121)
봉사활동	0.3	0.6	0.3	0.4	1.1	0.3	0.7		0.4(6)
디스코장가기	1.2	0.1	0.2	1.2	1.1		1.2		0.7(9)
전자오락	25.7	5.1	24.2	6.3	4.9	19.4	13.2	14.0	14.9(200)
연극, 영화, 음악회, 전시회 관람	13.2	15.9	9.6	20.4	16.5	16.1	14.1	14.0	14.6(198)
등산, 낚시	1.5	0.1	1.2	0.2	1.1	0.6	0.5	1.7	0.8(11)
여행	0.9	1.1	1.4	0.4	1.6	0.6	0.8	2.1	1.0(14)
함께대화	39.2	76.3	54.4	62.4	63.2	53.7	62.0	55.8	58.6(795)
합계 (실수)	47.7 (646)	52.3 (709)	49.0 (664)	37.6 (510)	13.5 (182)	24.7 (335)	53.8 (729)	21.5 (292)	100.0 (1356)
χ^2	6.45		143.30***			70.08***			

***P < .001

적으로 볼 때 확실히 평일 보다는 주말에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친구들과 만나서 주로 하는 일을 조사해 본 결과 역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빈곤한 여가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학생의 76.3%나 되는 숫자가 친구들과의 교제시간을 함께 대화하는 것으로 보내고 있었다. 남학생은 39.2%로 여학생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이지만 남학생 역시 가장 많은 수가 친구들과의 만남을 함께 대화하는 것으로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이 두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활동은 전자오락 25.7% 이었고, 그 다음이 스포츠 활동 18.0%이었다. 학교별로 보면 중학교 54.5%, 인문고 62.4%, 실업고 63.2% 모두 친구와의 만남을 함께 대화하는 것으로 보내는 학생들이 제일 많았고, 주시할 사항은 24.2%의 중학생이 친구와의 시간을 전자오락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학생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주로하는 활동들은 하교길에 쉽게 노력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활동으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활력을 재충전하는 바람직한 여가활동이라기 보다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친구와의 만남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의 배려가 뒤따라야 하겠다.

(2) 독서시간

신문, 잡지, 소설 등을 읽는 독서시간으로 학생청소년들은 평일 55분, 토요일 1시간 15분, 일요일 1시간 30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읽는 도서의 종류도 근래에 들어 매우 다양해졌다. 이들은 문학, 철학, 사상, 종교, 과학, 역사서, 일반교양서적 등 건전한 독서문화도 갖고 있지만 일간 스포츠, 월간잡지, 음란소설 등 바람직하지 못한 도서 문화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90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일년동안 신문, 잡지, 소설 등 인쇄물을 읽어 본 경험율을 보면 스포츠 신문 82.2%, 어린이 월간지 74.1% 청소년 월간지 66.5%, 여성월간지 53.5%, 월간 오락지 49.8%, 사건 및 야담잡지 47.5%, 일반주간지 44.9%, 기타 음란잡지 및 소설 38.9%, 성인만화 28.4%, 외국음란잡지 19.6%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학생청소년들의 도서 선택 경향이 어떤지는 본 조사로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독서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확실히 많은 시간을 독서에 사용하고 있었다. 남·여학생

각각 평일 55분, 1시간, 토요일 1시간 5분, 1시간 20분, 일요일에는 1시간 15분, 1시간 35분을 책일 읽는데 보내고 있었다. 학교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독서시간 역시 인문고, 중학교, 실업고 순으로 평일 45분, 55분, 1시간 10분, 토요일 1시간 5분, 1시간 15분, 1시간 30분, 일요일 1시간 20분, 1시간 30분, 1시간 35분으로 길어져 다시 한번 입시제도가 주는 스트레스로 인한 학생들의 여유부족을 감지할 수 있게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학생들이 타지역 학생들보다 독서시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독서시간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평일	50	1:00	55	45	1:10	55	50	55
	F : 41.567***		F : 54.145***			F : 2.021***		
	M : 55분							
토요일	1:05	1:20	1:15	1:05	1:30	1:10	1:15	1:15
	F : 55.363***		F : 26.562***			F : 2.972		
	M : 1 시간 15 분							
일요일	1:15	1:35	1:30	1:20	1:35	1:20	1:30	1:30
	F : 52.849***		F : 14.967***			F : 8.471***		
	M : 1 시간 30 분							
합계 (실수)	47.6 (648)	52.3 (712)	49.1 (668)	37.5 (511)	13.4 (182)	24.8 (338)	53.7 (731)	21.5 (292)

***P < .001

(3) TV시청시간

학생청소년의 여가활동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TV시청시간은 평일 1시간 25분, 토요일 2시간 25분, 일요일 2시간 40분으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이같은 장시간의 TV시청은 그들이 TV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시사해 준다. TV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꾸준히 계속되

어 왔는데 늘 긍정적이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어 왔다. TV에 열중한 청소년들은 그들의 잠재력과 창조력, 생산성을 희생당하게 된다고 연구결과들은 말한다. 청소년들이 도피장치로 TV를 이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정상적인 사회관계속에서 보다 TV의 환상세계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기가 쉽기 때문이다. 학생청소년들이 입시와 부모님의 감시 내지 간섭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조사결과에서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 TV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평일 1시간 15분, 1시간 30분, 토요일 2시간 20분, 2시간 30분, 일요일 2시간 30분, 2시간 50분으로 남학생에 비해 하루 평균 15분씩 더 여학생들이 TV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시가 남학생들에게 더욱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여학생과 남학생의 특성상 여학생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교별로는 평일에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인문고가 50분, 중학교가 1시간 40분, 실업고가 1시간 55분으로 중학교와 실업고가 인문고에 비해 1시간 이상 더 TV

〈표 III-17〉

TV시청시간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평일	1 : 15	1 : 30	1 : 40	50	1 : 55	1 : 15	1 : 25	1 : 30
	F : 35.523***		F : 212.768***			F : 24.282***		
	M : 1 시간 25 분							
토요일	2 : 20	2 : 30	2 : 35	2 : 10	2 : 45	2 : 20	2 : 25	2 : 35
	F : 21.423***		F : 54.751***			F : 13.087***		
	M : 2 시간 25 분							
일요일	2 : 30	2 : 50	2 : 50	2 : 30	3 : 00	2 : 40	2 : 50	3 : 00
	F : 17.059***		F : 31.521***			F : 2.455		
	M : 2 시간 40 분							
합계 (실수)	47.6 (648)	52.3 (712)	49.1 (668)	37.5 (511)	13.4 (182)	24.8 (338)	53.7 (731)	21.5 (292)

***P < .001

를 시청하고 있었다. 실업고, 중학교, 인문고 순으로 토요일 2시간 45분, 2시간 35분, 2시간 10분, 일요일 3시간, 2시간 50분, 2시간 30분으로 주말에는 모두 2~3시간 사이의 시청시간을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월등히 낮은 시청시간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 애청하고 있는 TV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전체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의 서열은 연속극 29.1%, 쇼프로 19.1%, 외국영화 16.4%, 스포츠프로 12.4%, 뉴스 12.0% 순이었다.

〈표 Ⅲ-18〉

TV-가장 많이 보는 분야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연속극	16.1	41.0	33.3	26.5	20.9	25.3	29.9	31.5	29.1(395)
스포츠프로	18.7	6.6	10.8	12.9	16.5	11.9	13.2	11.0	12.4(168)
쇼프로	18.9	19.4	17.4	18.2	28.0	22.3	18.2	17.8	19.1(260)
교양제작물	1.2	0.8	0.9	1.2	1.1	0.9	1.2	0.7	1.0(14)
뉴스	14.5	9.7	8.7	15.7	13.7	11.6	12.5	11.3	12.0(163)
국산영화	1.1	1.4	1.8	0.8	0.5		1.5	2.1	1.3(17)
외국영화	20.4	12.7	17.4	16.1	13.7	18.5	14.8	18.2	16.4(223)
만화영화	3.9	2.1	5.1	0.8	1.1	4.2	2.7	2.1	2.9(40)
볼시간이없음	3.7	3.2	2.7	4.5	3.3	3.6	2.9	4.8	3.5(47)
보지않음	1.5	3.0	1.8	3.3	1.1	1.8	3.2	0.7	2.3(31)
합계 (실수)	47.7 (647)	52.3 (710)	49.0 (666)	37.6 (510)	13.4 (182)	24.7 (336)	53.8 (730)	21.5 (292)	100.0 (1358)
χ^2	6.45		143.30***			70.08***			

***P< .001

(4) 교양 및 취미활동 시간

학생 청소년들은 학교외의 클럽활동, 관람, 감상, 구경, 스포츠, 하이킹, 산책 등 교양 및 취미활동시간으로 평일에는 50분, 토요일에는 1시간 15분, 일요일에는 1시간 30분을 사용하고 있다.

학생청소년들의 교양 및 취미활동시간은 TV시청시간을 제외한 다른 여가활동 즉

사람들과의 친교시간이나 독서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는 다른 활동과는 달리 전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별로는 평일에 여전히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인문고 40분, 실업고와 중학교 55분으로 15분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 차이가 5분으로 줄어들고 학교간에도 일관성이 없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입시에 쫓기는 인문고 학생들도 주말에는 긴장이 풀리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요구가 강해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역별로는 다른 여가활동과 마찬가지로 서울학생들이 타지역 학생들에 비해 적은 시간을 교양·취미활동으로 보내고 있었다.

〈표 Ⅲ-19〉 교양 및 취미활동 시간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평일	50	50	55	40	55	50	50	45
	F : .198		F : 37.822***			F : 9.371***		
	M : 50분							
토요일	1 : 15	1 : 15	1 : 20	1 : 15	1 : 15	1 : 10	1 : 20	1 : 15
	F : .153		F : 3.481*			F : 8.892***		
	M : 1 시간 15 분							
일요일	1 : 30	1 : 30	1 : 30	1 : 25	1 : 30	1 : 20	1 : 35	1 : 25
	F : 1.688		F : 3.293***			F : 9.569***		
	M : 1 시간 30 분							
합계 (실수)	47.6 (648)	52.3 (712)	49.1 (668)	37.5 (511)	13.4 (182)	24.8 (338)	53.7 (731)	21.5 (292)

*P< .05, ***P< .001

이들 교양·취미활동 중 학생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평상시 많이 접하고 있는 활동인 라디오 청취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청소년들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숫자가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었으며 라디오를 듣는 학생들 중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음악을 즐겨 듣고 있었다. 국산음악과 외국

음악의 청취율은 7 : 3으로 국산음악(가요)을 더 즐겨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별로는 차이를 보여 고등학생들이 75.7% 중학생보다 63.2% 높은 음악 청취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학생의 TV시청시간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같이 라디오는 우리나라 학생청소년들의 음악감상을 위한 훌륭한 그리고 보편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이는 수련활동을 위한 예능활동 영역 중 ‘현재하고 있는 활동’으로서 또한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음악감상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연속극	1.4	1.7	2.8		1.1	0.6	1.8	2.1	1.5(21)
스포츠중계	3.7	1.3	3.3	1.4	2.2	0.9	3.4	1.7	2.4(33)
국산음악(가요)	47.6	50.1	43.9	51.0	62.1	48.7	48.0	51.7	49.0(666)
외국음악(팝송)	20.9	20.1	19.3	24.1	14.3	19.9	20.0	22.3	20.4(278)
뉴스	2.2	1.5	1.9	1.8	1.6	1.2	2.5	1.0	1.8(25)
들을시간이없음	5.6	3.5	3.9	4.9	5.5	6.2	3.8	4.1	4.5(61)
듣지않음	18.7	21.8	24.9	16.9	13.2	22.6	20.5	17.1	20.3(276)
합계 (실수)	47.7 (647)	52.4 (712)	49.0 (668)	37.5 (510)	13.4 (182)	24.8 (337)	53.8 (731)	21.5 (292)	100.0 (1360)
χ^2	14.54*		52.95***			19.54			

이상과 같이 앞에서 제시된 학교청소년들의 여가활동내용을 종합하여 그 소요시간을 도표로 만들어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있었으나 학교별로는 인문고, 중학교, 실업고 순으로 여가시간의 양이 늘고 있었다. 인문고나 실업고의 여가시간은 평일에는 2시간 15분, 토요일에는 1시간 20분, 일요일에는 1시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인문고 학생들이 확실히 정신적 여유가 없고, 시간에 쫓기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TV시청시간은 여가시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이 되어 전체여가시간의(평일에는 35%, 토요일에는 38%, 일요일에는 37%) 삼분의 일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Ⅲ-21〉 청소년 여가활동과 여가시간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남	여	중 학 교	인 문 고	실 업 고	평 균	남	여	중 학 교	인 문 고	실 업 고	평 균	남	여	중 학 교	인 문 고	실 업 고	평 균
교제시간	55	55	1:50	40	1:10	55	1:25	1:30	1:30	1:20	1:40	1:30	1:35	1:40	1:35	1:30	1:45	1:35
독서시간	50	1:00	55	45	1:20	55	1:05	1:20	1:15	1:05	1:30	1:30	1:15	1:35	1:30	1:20	1:35	1:30
T V 시 청 시 간	1:15	1:30	1:40	50	1:55	1:25	2:20	2:30	2:35	2:10	2:45	2:25	2:30	2:50	2:50	2:30	3:00	2:40
교양 및 취미 활동	50	50	55	40	55	50	1:15	1:15	1:20	1:15	1:15	1:15	1:30	1:30	1:30	1:25	1:30	1:30
합계	3:50	4:15	4:35	2:55	5:10	4:05	6:05	6:35	6:40	5:50	7:10	6:25	6:40	7:35	7:25	6:50	7:50	7:15

이는 청소년들이 다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데에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즐겁게 부담없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TV라는 대중매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창조적이고 풍요로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

5) 학생청소년들이 원하는 하루

학생청소년들이 응답한 지금까지의 설문내용 분석에 따라 이들의 하루시간을 합산해보면 다음 <표 Ⅲ-2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하루 24시간이란 한정된 시간을 제시하고 이를 질문문항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제한없이 각 활동영역마다 현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시간을 기

<표 Ⅲ-22> 학생청소년의 하루

	평 일	토요일	일요일
수면시간	7 : 15	7 : 40	8 : 10
학교수업 및 공부시간	11 : 30	8 : 30	3 : 50
학교수업	8 : 10	4 : 45	—
학교외 수업	1 : 25	1 : 30	1 : 15
집에서의 자습	1 : 55	2 : 15	2 : 35
생활필수시간	3 : 39	4 : 03	3 : 28
식사	1 : 15	1 : 20	1 : 20
여러가지 준비시간	41	43	48
이동시간	50	50	—
가사	53	1 : 10	1 : 20
여가시간	4 : 30(2 : 20)	6 : 25(3 : 40)	7 : 15
친교	55	1 : 30	1 : 35
독서	55	1 : 15	1 : 30
TV시청	1 : 25	2 : 25	2 : 40
교양 및 취미활동	50	1 : 15	1 : 30
합 계	26 : 54(24 : 44)	26 : 38(23 : 53)	22 : 43

네째,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각각 독립시켜 문의한 각각의 항목에 충실히 응답하려한 결과 평일에 친교 55분, TV시청 1시간 25분, 독서 55분, 교양 및 취미활동 50분등 모든 여가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실제로 응답한 여가활동들을 모두 매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독서를 하게 되면 평일에는 55분쯤 한다는 것이지 날마다 55분간의 독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상과 같은 요인을 감안할 때 하루가 24시간이란 것을 고려하여 비현실적으로 응답된 평일과 토요일의 여가시간을 하루에 두가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절하면(예 : TV시청 + 친교, TV시청 + 독서 등) 여가시간이 2시간 정도로 단축될 것이다. 이 경우 학생청소년들의 하루는 약 24시간으로 조절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현상은 학생청소년들이 좀더 늘었으면 하고 바라는 생활시간과 좀 더 줄었으면 하고 바라는 생활시간에 대한 조사결과로도 알 수 있다.

학생청소년이 좀 더 늘었으면 하는 시간들을 순위별로 보면 협의의 여가시간 교양 및 취미활동 21.8%,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19.1%, 잠자는 시간 17.5%, 책읽는 시간 15.2%,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 10.5% 순으로 나타나 단연 협의의 여가시간을 선투로 한 친구와 만나는 시간, 독서시간 등 광의의 여가시간등이 우선순위에 놓였다. 또한 잠자는 시간도 17.5%나 되는 학생들이 좀 더 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나타나 일상생활 안에서의 휴식과 여유시간을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열망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그리고 학교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역으로 조사한 좀 더 줄었으면 하는 시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입증되었다. 학생청소년들 중 40.3%나 되는 숫자가 좀 더 줄었으면 하는 시간으로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을 첫째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TV시청시간 15.9%, 학교외 학습시간 13.7%, 잠자는 시간 9.6%, 가정내의 일을 하는 시간 9.4%을 선택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절대다수가 학교안팎의 공부에서 헤어나기를 원하고 있음이 강력하게 반응되었다. 그리고 광의의 여가활동중에 하나인 TV시청시간을 좀 더 줄이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15.9%나 되는 것은 학생자신들도 TV의 부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자신들이 지나치게 TV를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데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좀 줄었으면 하는 생활영역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간에는 별차이가 없었으나 남학생보다는 좀 더 많은 여학생들이 잠자는 시간과 TV시청시간을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응답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이 집에서 자습하는 시간과 독서시간을 좀 더 늘었으면 하는 시간으로 원하고 있었음에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용하다고 생각되는 TV시청시간이나 잠자는 시간을 학교공부로 보충하고 독서를 하는 좀 더 유용한 시간으로 바꾸었으면하는 여학생다운 성실성의 반영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학교간 차이에는 여전히 모든 학교 학생들이 학교수업시간을 줄이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원하고 있었다. 그중 인문고 학생들은 학교수업시간을 줄이기를 가장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학습시간에 대해서는 인문고 학생들이 월등히 낮은 비율로 공부시간의 감축을 원하고 있었다. 이는 대입을 앞둔 인문고학생들이 학교수업시간은 적어지기를 원하지만 학교공부를 보충할 기회인 학교의 학습시간은 나름대로 확보하고 싶은 원의에서 기인한 것 같다. 인문고 학생들은 또한 중학교나 실업고에

〈표 III-24〉

좀 더 줄었으면 하는 시간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잠자는시간	7.6	11.4	7.3	13.7	7.4	9.4	9.9	8.9	9.6(241)
식사하는시간	3.1	2.1	3.5	1.3	2.7	1.5	3.3	2.1	2.6(65)
학교수업시간	40.2	40.4	39.3	42.2	38.6	37.5	40.7	42.4	40.3(1011)
학교외의 학습시간	14.7	12.9	15.4	10.0	17.4	14.6	14.2	11.6	13.7(345)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	5.4	2.8	4.7	2.8	5.0	3.2	4.2	4.4	4.0(101)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2.4	2.3	2.7	1.9	2.4	3.6	1.8	20.3	2.4(59)
가정내의 일 을 하는 시간	9.1	9.7	11.0	6.4	12.7	11.2	8.4	10.1	9.4(237)
여가시간	1.0	0.5	0.9	0.6	0.6	0.5	0.8	1.0	0.8(19)
책읽는시간	1.9	0.9	2.1	0.3	1.5	0.5	1.5	1.9	1.4(34)
TV시청시간	14.5	17.1	13.1	21.2	11.8	18.0	15.1	15.4	15.9(398)
합계 (실수)	1177	(2507) 1330	1264	907	(2510) 339	616	1368	(2510) 526	100.0 (2510)
χ^2	33.09***		278.66***			29.46*			

*P< .05, ***P< .001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가 잠자는 시간과 TV시청시간을 줄이기를 원하고 있었다. 반면 실업고 학생들은 가정내의 일을 하는 시간과 학교의 학습시간을 다른 학교학생보다 더 줄이기를 원하고 친구만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 TV시청시간을 더 늘이기를 원하고 있었다.

즉 학생청소년들은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하루 일과중 학교공부와 학교외 학습시간을 줄이고, 스포츠, 문화, 교양,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친구들과의 교제시간을 더 늘이기를 원하고 있었다.

학생청소년들의 이러한 욕구는 ‘만일 하루의 시간여유가 주어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 응답한 결과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

〈표 Ⅲ-25〉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아르바이트	11.3	15.2	13.3	12.2	16.6	13.0	12.9	14.8	13.3(181)
스포츠활동	14.5	9.0	11.4	11.4	13.3	12.4	11.0	12.4	11.6(158)
가족들과의 대화 또는 모임	3.1	3.8	4.2	2.5	3.3	1.8	3.6	5.2	3.5(47)
독서	5.7	11.4	10.2	7.1	7.7	6.8	8.8	10.7	8.7(118)
교양강좌수강	0.2	1.1	0.3	1.2	0.6	0.6	0.5	1.0	0.7(9)
봉사활동	1.4	2.0	0.7	2.9	1.7	0.9	2.2	1.4	1.7(23)
종교활동	2.2	3.4	2.8	2.5	3.3	3.6	2.6	2.4	2.8(38)
여행	33.5	31.3	29.7	36.5	30.4	31.7	33.4	30.3	32.3(439)
학업외보충	2.2	2.1	2.4	2.2	0.6	2.4	2.5	1.0	2.1(29)
친구들과 오락활동	18.4	12.4	18.6	11.4	14.4	18.6	14.5	13.4	15.3(208)
혼자서의 사색	7.6	8.3	6.1	10.2	8.3	8.3	8.1	7.2	8.0(108)
합계 (실수)	47.7 (647)	52.3 (710)	49.1 (667)	37.6 (510)	13.3 (181)	24.9 (338)	53.8 (730)	21.4 (290)	100.0 (1358)
χ^2	41.30***		43.04**			19.88			

P< .01, *P< .001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으로 남학생, 여학생,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할것 없이 모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여행 32.3%을 택했다. 여학생들은 아르바이트 15.2%, 친구들과의 오락활동 12.4%, 독서 11.4%, 스포츠활동 9.0% 순으로 선호했고, 남학생들은 친구들과의 오락활동 18.4%, 스포츠활동 14.3%, 아르바이트 11.3%, 혼자서의 사색 7.6% 순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남·여학생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남학생들은 주로 스포츠활동을 여학생들은 독서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행을 제외한 활동에서는 학교간에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문고 11.4%나 실업고 14.4%에 비해 중학생이 18.6% 친구들과의 오락활동을 더 원하고 있는 반면 혼자서의 사색같은 것은 중학생 6.1%에 비해 고등학생인 인문고 10.2%나 실업고 8.3%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활동은 중학교 13.3%나 인문고 12.2%에 비해 실업고 16.6% 학생들이 더 원하고 있었다. 이같이 성별이나 학교 연령에 따라 활동욕구에 특이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모든 학생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바라고 있는 바램을 개인의 차를 고려한 활동으로 즐길 수 있도록 생활여건과 조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방법 모색을 위한 어른들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수련활동시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나

신체적인 면에서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급격한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는 청소년기에 속하는 학생들은 신체활동에의 욕구와 아울러 취미생활에의 욕구, 창조에의 욕구, 지적인 욕구를 갖게 된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년배 집단을 이루는 시기에 속함으로써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우애와 협동에의 욕구, 봉사에의 욕구도 갖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도 이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어진 환경속에서 나름대로 여러 영역의 활동을 하면서 생활해 나가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은 어떤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각 활동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어떤한지 알아보기 위해 활동영역을 8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스포츠 활동영역, 문예활동 영역, 봉사활동 영역, 전통문화활동 영역, 과학활동 영역, 예능활동 영역, 자연체험활동 영역, 예절수양활동 영역으로 나누어 참여여부,

현재하고 있는 활동,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과 시간이 많아
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시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스포츠 활동영역

(1)스포츠 활동의 참여정도

현재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다는 학생들은 61.7%로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학생의 71.7%가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2.5%인 여학생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67.0%로 63.4%인 중학교 학생들 보다도 참여율이 높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57.6%에 그침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과는 무려 10%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차이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활동을 통한 기쁨이나 만족에 대한 욕구는 동일하나 시간과 기회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 같다. 고교교육 평준화로 그만큼 입시에 대한 압력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적은 중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참여율이 높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참여율이 낮은 것을 보면 입시제도와 이에 따른 교육과정상의 시간에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스포츠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 <표 III-26>과 같다.

<표 III-26> 스포츠활동 참여여부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있 다	71.7	52.5	63.4	57.6	67.0	60.9	59.4	68.3	61.7(837)
없 다	28.3	47.5	36.6	42.4	33.0	39.1	40.6	31.7	38.3(520)
합계 (실수)	47.6 (646)	52.4 (710)	49.1 (666)	37.5 (509)	13.4 (182)	24.9 (338)	53.7 (729)	21.4 (290)	100.0 (1357)
χ^2	51.58*** 52.39***		6.65*			7.02*			

*P< .05, ***P< .001

(2) 현재참여 하고 있는 스포츠활동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을까?

물론 부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활동이지만 현재하고 있는 활동을 살펴보면 자전거타기 17.2%, 배드민턴 15.8%, 농구 10.9%, 탁구 10.2%, 롤러스케이트 7.5%, 축구 6.0%, 수영 5.6%, 배구 4.4%, 등산 4.1%, 테니스 2.7% 순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활동이 행해지고 있으나 ([부록 3-1]참조)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성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조금씩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남학생들은 자전거타기 16.2%를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 순으로 농구 15.5%, 탁구 13.2%, 축구 9.7%, 배드민턴 8.1%, 배구 5.5%, 롤러스케이트타기 4.9%인 반면 여학생들은 배드민턴 26.8%를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그 다음 자전거타기 18.5%, 롤러스케이트타기 11.3%, 수영 9.4%, 탁구 5.6%, 등산 5.4%, 농구 4.4%인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활동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들은 배드민턴이 19.6%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인 반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농구 15.2%와 자전거타기 15.2%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전거타기 18.8%를 가장 즐겨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별로

〈표 III-27〉

현재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 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자전거타기	16.2	18.5	63.4	57.6	67.0	60.9	59.4	68.3	61.7(306)
배드민턴	8.1	26.8	19.6	11.8	12.4	13.0	16.3	17.9	15.8(282)
농 구	15.5	4.4	7.2	15.2	12.8	12.1	10.4	10.6	10.9(194)
탁 구	13.4	5.6	9.7	11.8	7.7	11.5	10.0	9.3	10.2(182)
롤러스케이트타기	4.9	11.3	7.4	7.1	9.0	7.0	7.8	7.4	7.5(134)
축 구	9.7	0.8	6.4	5.0	7.3	5.5	6.1	6.4	6.0(107)
수 영	3.0	9.4	6.6	5.2	3.0	5.5	6.7	3.2	5.2(100)
배 구	5.5	2.6	2.4	8.2	1.3	4.8	5.5	1.2	4.4(78)
등 산	3.2	5.4	4.2	4.1	3.8	3.5	4.1	4.7	4.1(73)
테니스	2.0	3.7	2.2	3.6	1.7	2.4	2.4	3.7	2.7(48)

도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학생들은 배드민턴에 이어 자전거타기 18.2%, 탁구 9.7%, 플러스케이트 타기 4.9%, 농구 7.2%의 순이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농구와 자전거타기에 이어 탁구 11.8%, 배드민턴 11.8%, 배구 8.2%를 즐기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자전거타기에 이어 농구 12.8%, 배드민턴 12.4%, 플러스케이트 타기 9.0%, 탁구 7.7%의 순으로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어진 환경적, 물질적, 시간적, 여건에 따라 그리고 연령 단계에 따라 즐겨하는 활동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Ⅲ-27>은 현재하고 있는 스포츠 활동 중 가장 많이 하고 있는 10개의 활동에 대한 성별, 학교급별, 지역별 차이를 보여 준다.

(3) 스포츠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많은 스포츠 활동 가운데 한 개인이 경험해 본 활동은 개개인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것이다. 하고는 싶어도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하는 활동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시간에만 제한시켜 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해 보았다.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활동과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조사해

<표 Ⅲ-28>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수영	9.7	15.4	11.8	14.0	12.2	12.1	12.5	13.8	12.7(419)
등산	11.3	13.7	11.2	14.4	12.6	11.5	13.0	12.8	12.6(416)
태권도	5.5	7.0	5.1	7.3	8.0	5.4	6.3	7.4	6.3(208)
행글라이더	7.6	3.9	5.6	5.8	4.2	5.7	6.3	4.0	5.7(187)
축구	7.5	2.7	5.7	4.5	3.5	3.3	5.3	6.2	5.0(164)
테니스	2.7	6.4	2.9	6.8	4.9	4.3	4.9	4.0	4.6(152)
승마	3.8	5.3	5.9	3.1	4.0	5.9	4.2	3.9	4.6(151)
야구	6.8	1.7	4.6	3.5	3.7	3.0	4.3	4.9	4.1(136)
보울링	3.4	4.6	2.8	4.6	7.3	4.8	4.1	3.0	4.0(133)
합기도	4.4	3.6	3.0	4.8	5.6	4.1	3.6	4.9	4.0(132)

본 결과를 선호도별로 요약해 본 결과는 <표 III-28>과 <표 III-29>와 같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3-2>, <부록 3-3>참조).

<표 III-28>에서 보는 것처럼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들은 등산, 수영, 행글라이더, 축구, 야구 순인 반면 여학생들은 수영, 등산, 태권도, 테니스 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여학생들이 필요한 활동으로 태권도를 선택하고 있는것으로 이는 요즈음 학교주변 및 사회환경이 유해환경화 되면서 나름대로의 자구책 필요성을 느낀데서 오는 결과인 것 같다.

한편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과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표 III-27>와 <표 III-29>비교)은 거의 비슷한 반면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과는 전혀 다른 것(<표 III-27>와 <표 III-28> 비교)은 육구와 활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다.

<표 III-29>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자전거타기	15.2	22.0	19.8	17.5	17.8	17.2	18.7	20.6	18.7(565)
배드민턴	15.7	20.8	18.8	18.1	17.3	18.9	17.8	19.1	18.3(554)
탁 구	15.7	7.0	10.6	11.6	12.0	13.2	10.4	10.9	11.2(338)
롤러스케이트타기	4.0	8.7	7.2	5.7	5.8	6.4	7.2	4.4	6.5(195)
농 구	8.9	2.8	3.6	7.7	8.1	7.5	5.6	4.2	5.8(174)
체 조	1.5	7.7	3.8	4.7	8.1	2.9	4.2	8.4	4.7(142)

2) 문예활동 영역

(1) 문예활동에의 참여정도

청소년들의 문예활동에의 참여비율은 72.3%로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문예활동 영역에 독서, 일기쓰기, 편지쓰기, 독후감쓰기 등이 포함됨으로써 한창 문학작품에 관심을 쏟고 동년배들과 우정을 나누는 발달단계상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여학생들 83.4% 이 남학생들 60.2% 보다

20%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고, 중학교 학생들 65.7% 보다 고등학교 학생들 78.6%의 참여율이 더 높은데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의 기본욕구는 같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다음의 <표 III-30>은 문예활동에의 참여 여부에 대한 자세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III-30>

문예활동 참여여부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있 다	60.2	83.4	65.7	78.7	78.6	73.4	70.5	75.7	72.3(984)
없 다	39.8	16.6	34.3	21.4	24.4	26.6	29.5	24.3	27.7(377)
합계 (실수)	47.6 (648)	52.4 (712)	49.1 (668)	37.5 (511)	13.4 (182)	24.9 (338)	53.7 (731)	21.5 (292)	100.0 (1361)
χ^2	90.45*** 91.61***		28.37***			3.11*			

*P< .05, ***P< .001

(2) 현재 참여하고 있는 문예활동

문예활동 중 어떤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나 조사해 본 결과는 독서(36.3%)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일기쓰기 25.1%, 편지쓰기 23.9%, 시·산문짓기 5.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학생들과 달리 예쁜 엽서 만들기가 그 다음으로 많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어 라디오를 매체로 한 우정의 표현의 또 다른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다른 많은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으나(부록 <3-4>참조)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문예활동을 성별, 학교급별, 지역별로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II-31>).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문예활동 중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예활동은 극히 일면에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독서, 일기쓰기, 편지쓰기 외에는 그 참여도가 급격히 떨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활동은 시간이 많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이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음이 이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표 Ⅲ-32〉참조).

〈표 Ⅲ-31〉 현재 참여하고 있는 문예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독 서	45.3	31.7	43.9	30.1	34.9	36.0	35.8	38.1	36.3(681)
일기쓰기	20.7	27.3	20.7	28.1	27.7	26.2	24.6	24.7	25.1(470)
편지쓰기	17.6	27.2	21.1	25.6	26.9	22.7	24.5	24.0	23.9(449)
시·산문짓기	6.0	5.2	4.3	6.9	3.6	6.4	5.5	4.0	5.4(102)
문학의 밤	4.1	2.3	1.8	3.8	2.8	3.7	2.3	2.3	2.9(54)

(3) 문예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문예활동 중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는 〈표 Ⅲ-32〉에서 볼 수 있듯이 일기쓰기 33.2%, 편지쓰기 24.1%, 독서 15.4% 순으로 나타나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과 많이 일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32〉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문예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일기쓰기	32.2	34.0	31.7	35.0	33.8	33.6	32.4	35.0	33.2(960)
편지쓰기	21.0	26.7	22.6	25.4	25.5	22.6	24.2	25.6	24.1(696)
독 서	16.9	14.1	14.6	16.1	16.1	15.8	15.3	15.1	15.4(444)
시·산문짓기	10.2	7.5	7.7	9.8	8.8	8.5	9.7	6.3	8.7(251)
예쁜엽서만들기	7.4	6.1	8.7	3.9	7.0	6.5	6.6	7.0	6.6(192)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활동 외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가? 그들에게 시간이 허락된다면 하고 싶어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알아본 결과, 창작발표회와 학급신문 등의 제작 12.7%과 같은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 비슷한 비율로 시사토론 12.4%, 문학강좌 10.3%, 문학의 밤 9.0%과 같은 활동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들의 왕성한 지적욕구와 창작에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에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표 Ⅲ-33>에 나타나 있다.

〈표 Ⅲ-33〉 시간의 많아야만 할 수 있는 문예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창작발표회	10.3	14.7	12.0	13.3	13.5	11.3	14.2	10.2	12.7(392)
신문제작 (학급신문등)	13.8	11.7	13.5	11.1	14.3	13.3	12.2	13.1	12.7(391)
시사토론	11.8	12.9	13.6	10.7	12.4	12.9	11.9	13.0	12.4(382)
문학강좌	9.2	11.3	11.0	10.1	8.5	9.1	10.8	10.5	10.3(319)
문학의 밤	7.8	10.0	5.6	13.0	9.8	8.9	9.2	8.4	9.0(277)

3) 봉사활동 영역

(1) 봉사활동에의 참여정도

봉사활동에의 참여비율은 18.3%로 전통문화 활동에 이어 가장 낮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참여도가 낮고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중학교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음을 알 수 있는데(<표 Ⅲ-34>참조), 이는 불우이웃돕기 등에 여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욱 많아지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서울 18.1% 및 직할시 16.6% 보다는 기타시 23.0%에서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활동내용중 농촌봉사 활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듯싶다.

(2) 현재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

참여비율이 극히 적은 활동영역이지만 학생들이 현재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위문활동 28.2%, 국군장병께 편지쓰기 22.9%, 불우이웃돕기 17.6% 순이고 이외에도 환경

보호 캠페인 활동과 교통지도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3-7〉참조).

봉사활동 참여 여부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있 다	16.1	20.3	13.3	25.1	17.7	18.1	16.6	23.0	18.3(249)
없 다	83.9	79.7	86.7	74.9	82.3	81.9	83.4	77.0	81.7(1110)
합계 (실수)	47.6 (647)	52.4 (711)	49.2 (668)	37.5 (510)	13.3 (181)	24.8 (337)	53.8 (731)	21.4 (291)	100.0 (1359)
χ^2	3.68 3.96*		26.85***			5.83*			

*P< .05, ***P< .001

남학생들은 불우이웃돕기 23.8%, 위문활동 20.0%, 교통지도 활동 16.2%,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 13.8% 순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여학생들은 위문활동 33.7%, 국군장병께 편지쓰기 31.0%, 불우이웃돕기 13.4% 순으로 참여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이는 학교급별, 지역에 따라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중학교 학생들은 불우이웃돕기 23.9%, 국군장병께 편지쓰기 20.2%,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 16.5% 순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위문활동 36.9%, 국군장병께 편지쓰기 22.6%, 불우이웃돕기 15.5% 순인 반면 실업계 고등학

현재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위문활동	20.0	33.7	16.5	36.9	13.8	43.0	24.7	20.9	28.2(90)
국군장병계 편지쓰기	11.5	31.0	20.2	22.6	31.0	13.9	16.9	41.9	22.9(73)
불우이웃돕기	23.8	13.4	23.9	15.5	9.5	22.8	16.2	15.1	17.6(56)
환경보호캠페인	13.8	10.7	16.5	10.1	9.5	6.3	19.5	4.7	12.2(39)

교 학생들은 국군장병께 편지쓰기 31.0%, 위문활동 23.8% 외에도 여러 다른 활동에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Ⅲ-35〉참조).

(3) 봉사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학생들이 봉사활동 중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국군장병께 편지쓰기 49.7%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지역사회 청소활동 14.6%, 불우이웃돕기 11.5%, 교통지도활동 10.2%에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현재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Ⅲ-36〉).

〈표 Ⅲ-36〉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봉사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국군장병께 편지쓰기	48.3	50.9	49.3	48.6	53.7	50.4	49.2	49.9	49.7(1013)
지역사회 청소활동	15.2	14.0	14.4	16.6	9.9	13.3	15.5	13.8	14.6(298)
불우이웃돕기	12.2	10.9	14.0	8.9	9.9	13.7	10.3	12.1	11.5(235)
교통지도활동	11.3	9.3	9.2	11.0	11.7	10.0	10.4	9.9	10.2(208)

〈표 Ⅲ-37〉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봉사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농촌봉사활동	26.9	24.8	24.4	27.8	25.1	25.7	27.0	22.5	25.8(786)
위문활동	21.7	22.4	20.5	24.5	21.0	22.8	21.8	22.1	22.1(673)
환경보호 캠페인활동	17.2	16.8	18.3	14.5	19.5	17.1	15.3	21.6	17.0(518)
불우이웃돕기	13.8	14.1	14.5	13.6	13.4	13.7	14.2	13.9	14.0(426)

위와 반대로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의 <표 Ⅲ-37>와 같다. 현재하고 있는 봉사활동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농촌봉사활동 25.8% 이 성별, 지역별, 학교급별에 상관없이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농촌에서의 일손 부족현상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결과로 볼 수 있고,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 17.0%도 필요한 활동으로 느끼고 있으나 참여율은 낮은 것을 볼 때 자연보호·환경보호에의 관심이 적지 않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4) 전통문화활동 영역

(1) 전통문화 활동에의 참여정도

전통문화 활동은 여덟 개의 활동 영역 중 14.9%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정규 교과과정에서도 거의 취급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외 영역에서도 특별히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주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비록 낮은 참여율이지만 남학생들 12.8% 보다는 여학생들 16.7% 이 조금 높고, 고등학교 학생들 보다는 중학교 학생들이, 서울지역 학생들 보다는 지방 학생들이 그나마 조금 더 참여하고 있다(<표 Ⅲ-38>참조).

<표 Ⅲ-38>

전통문화활동 참여 여부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있 다	12.8	16.7	16.5	14.1	11.0	13.6	15.3	15.1	14.9(202)
없 다	87.2	83.3	83.5	85.9	89.0	86.4	84.7	84.9	85.1(1157)
합계 (실수)	47.6 (647)	52.4 (711)	49.2 (668)	37.5 (509)	13.4 (182)	24.9 (338)	53.7 (731)	21.4 (291)	100.0 (1359)
χ^2	3.78 4.08*		3.72			.56			

(2)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전통문화 활동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떤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을까?

여러 활동 중(<부록 3-10> 참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은 다음의 <표 Ⅲ-39>에서 볼 수 있듯이 민속촌·박물관 견학 27.6%, 민속놀이 22.0%, 민속춤 배우기

17.8% 등이다. 참여하고 있는 활동 중 여학생들은 민속춤 배우기 27.7% 활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민속촌·박물관 견학 26.5%, 민속놀이 14.5%인 반면 남학생들은 민속놀이 32.5% 활동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민속촌·박물관 견학 29.2%, 문화유적지 탐사 19.2%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활동내용이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지역에 따라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과 직할시 지역은 민속촌·박물관 견학, 민속놀이, 민속춤배우기, 문화유적지 탐사활동에 치중해 있는 반면 기타시 지역에서는 이런 활동외에도 민속예절배우기 11.9%, 국악공연 관람 10.2%과 같은 활동도 거의 같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어서 기타시 지역 학생들이 전통문화에 더 많이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9〉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전통문화 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민속촌· 박물관 견학	29.2	26.5	33.8	21.2	24.1	34.3	24.4	28.8	27.6(79)
민속놀이	32.5	14.5	20.9	22.9	24.1	22.4	19.4	28.8	22.0(63)
민속춤배우기	4.2	27.7	20.1	15.3	17.2	14.9	24.4	3.4	17.8(51)
문화유적지탐사	19.2	6.6	11.5	12.7	10.3	13.4	11.3	11.9	11.9(34)
민요배우기	2.5	9.0	4.3	7.6	10.3	7.5	7.5	1.7	6.3(18)

위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전통문화 활동 중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한 응답결과(〈표 Ⅲ-40〉)과는 거의 일치하고 있는 반면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한 응답결과(〈표 Ⅲ-41〉)과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자세한 응답결과는 〈부록 3-11〉〈부록 3-12〉참조).

(3) 전통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전통문화활동중 학생들이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활동과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는 〈표 Ⅲ-40〉과 같다.

전통문화 활동 중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한 학생들

의 생각은 성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들은 민속놀이 24.9%, 민속예절배우기 17.1%, 민요배우기 14.0% 순으로 응답한 반면 여학생들은 민요배우기 19.6%, 민속예절배우기 19.2%, 민속놀이 18.3%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남학생들은 보다 활동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0〉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전통문화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민속놀이	24.9	18.3	19.8	20.9	27.4	25.0	19.3	22.4	21.3(461)
민속예절 배우기	17.1	19.2	17.8	19.7	15.5	14.8	20.0	17.5	18.2(395)
민요배우기	14.0	19.6	15.6	19.4	15.5	18.5	16.7	16.1	17.0(369)
국악공연관람	12.4	12.0	11.9	13.9	8.4	9.0	13.4	12.6	12.2(264)
민속촌 · 박물관 견학	12.3	11.9	13.0	10.7	12.5	12.9	11.7	11.9	12.0(261)

다음〈표 Ⅲ-41〉는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표 Ⅲ-41〉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전통문화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문화유적지 탐사	19.8	18.2	17.1	21.2	18.9	18.2	19.8	17.5	18.9(618)
민속촌 · 박물관 견학	12.9	12.0	11.7	12.9	13.8	10.7	12.6	14.0	12.4(406)
민속춤배우기	9.8	11.9	13.3	8.2	10.0	11.6	10.6	11.0	10.9(357)
무형문화재연구	10.3	10.9	12.6	8.9	8.4	10.4	9.7	13.6	10.7(348)
국악연구	10.0	10.4	10.0	10.9	8.9	10.7	9.9	10.2	10.2(333)

위의 결과에서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활동으로 문화유적지 탐사 18.9%와 민속

촌·박물관 견학 12.4%을 들었지만 현재 많이 하고 있는 활동으로도 응답한 것을 보면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의 경험에 기인하는 것 같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연구 10.7%, 국악연주 10.2% 활동도 다른 활동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고 있어 학생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및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통문화활동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가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5) 과학활동 영역

(1) 과학활동에의 참여정도

과학활동에의 참여율은 26.5%로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학생들은 21.3%에 그쳐 31.9%인 남학생들 보다 더 저조하다. 이는 기기를 조작하고 사물을 관찰하고, 실험하는 활동에는 남학생들이 더 적극적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35.2%과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19.8%의 차이는 15%를 넘고 있는데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컴퓨터 실습에 기인하는 것 같다.

과학활동 참여 여부에 관한 성별, 학교급별, 지역별 비율은 다음의 <표 Ⅲ-42>와 같다.

<표 Ⅲ-42>
 과학활동 참여여부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있 다	31.9	21.3	29.2	19.8	35.2	29.6	24.9	26.7	26.5(360)
없 다	68.1	78.7	70.8	80.2	64.8	70.4	75.1	73.3	73.5(1001)
합계 (실수)	47.6 (648)	52.4 (712)	49.1 (668)	37.5 (511)	13.4 (182)	24.8 (338)	53.7 (731)	21.5 (292)	100.0 (1361)
χ^2	19.06*** 19.60***		21.42***			2.62			

***P< .001

(2)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과학활동

학생들이 현재하고 있는 과학활동은 컴퓨터 배우기가 43.6%로 가장 많을 뿐 그외

의 다른 활동은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식물관찰 12.0%, 동물원·식물원 견학 11.2%, 실험활동 9.6%에 비슷한 비율로 참여하고 있고, 천체관측 활동이나 발명품 전시회 참가 및 견학 활동 등에는 아주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 창의적인 과학활동에는 참여율이 더욱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표 III-43〉). 그리고 학생들이 현재하고 있는 과학활동은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표 III-44〉)와도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활동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성별, 학교급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丑 III-43〉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과학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컴퓨터배우기	44.9	41.7	35.2	47.7	65.8	47.9	49.8	26.2	43.6(222)
동·식물 관찰	10.5	14.2	16.0	8.7	3.8	7.7	12.7	15.6	12.0(61)
동·식물원 견학	7.4	16.2	11.4	10.7	11.4	14.1	10.2	9.8	11.2(57)
실험활동	7.8	12.3	11.7	9.4	2.5	4.9	9.4	15.6	9.6(49)
과학공작활동	11.5	2.8	8.5	7.4	6.3	7.0	6.1	12.3	7.9(42)

위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남학생들은 과학공작 활동에 11.5% 참여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들은 겨우 2.8%만 참여하고 있고 반대로 동·식물원 견학 활동은 여학생들이 16.1%인 반면 남학생들은 반정도인 7.4%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때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과학활동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과학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여러 과학활동 중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학생들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활동에 있어서도 동·식물 관찰 15.7%이나 컴퓨터 배우기 15.0%, 과학시설 견학 13.4%과 같은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들은 동·식물원 견학 18.5%, 동·식물 관찰 17.5% 등 견학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어 성별에 따라 성향이 조금씩 틀림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44〉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과학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동·식물 관찰	15.7	17.5	15.7	17.9	16.9	16.9	16.0	18.3	16.7(364)
동·식물원 견학	13.6	18.5	14.9	17.9	16.6	16.5	16.8	14.3	16.2(354)
컴퓨터배우기	15.0	13.3	16.1	11.9	12.4	14.8	13.8	13.8	14.1(307)
과학시설견학	13.4	14.0	12.6	15.4	13.7	12.4	15.0	12.0	13.7(300)
발명품전시회 참가 및 견학	11.6	14.7	13.1	12.7	15.3	13.9	13.1	13.1	13.3(290)

다음의 〈표 Ⅲ-45〉는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컴퓨터 배우기가 17.3%로 가장 높고 천체관측(15.5%), 실험활동(14.8%), 발명품 전시회 참가 및 견학(12.6%), 과학공작활동(11.0%)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컴퓨터 배우기는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으로도 나타났고,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한 응답결과에도 세번째 비율로 보여 모순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주어진 시간에 강습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볼 때)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막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

〈표 Ⅲ-45〉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과학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컴퓨터 배우기	16.9	17.7	17.8	17.8	13.9	15.9	17.6	18.2	17.3(535)
천체관측	16.1	14.9	15.6	15.4	15.4	17.1	15.3	13.8	15.5(478)
실험활동	15.2	14.5	12.3	17.4	17.0	15.8	15.3	12.2	14.8(458)
발명품 전시회 참가 및 견학	12.1	13.0	14.3	10.7	11.3	11.0	12.8	13.8	12.6(388)
과학공작 활동	10.6	11.4	10.8	11.4	10.8	10.6	11.2	11.1	11.0(340)

과일 것 같다. 그러나 천체관측, 실험활동은 현재하고 있는 활동에서 극히 낮은 참여율을 보여준데 반해 필요한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어 시간이 주어진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활동으로 보여진다.

6) 예능활동 영역

(1) 예능활동에의 참여정도

예능활동에의 학생들의 참여율은 72.3%로 문예활동과 함께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활동내용 중 영화관람과 음악감상이 포함됨으로써 나타난 결과인 것 같다. 이를 성별, 학교급별, 지역별로 살펴보면(〈표 III-46〉) 남학생들 68.6% 보다는 여학생들 75.7%의 참여율이 높고 중학교 학생들 63.5% 보다는 고등학교 학생들 인문고 : 82.7%, 실업고 : 75.8%의 참여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丑 III-46〉

예능활동 참여여부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있 다	68.6	75.7	63.5	82.7	75.8	70.9	70.9	77.7	72.3(983)
없 다	31.4	24.3	36.5	17.3	24.2	29.1	29.1	22.3	27.7(376)
합계 (실수)	47.6 (647)	52.4 (711)	49.2 (668)	37.5 (509)	13.4 (182)	24.8 (337)	53.8 (731)	21.5 (291)	100.0 (1359)
χ^2	8.04** 8.39**		54.70***			5.25			

P< .01, *P< .001

(2)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예능활동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예능활동 중 (〈부록 3-16〉 참조)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을 살펴보면 〈표 III-47〉와 같다.

남학생들은 음악감상 29.1%에 비해 영화관람 36.4%을 더 즐겨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영화관람 25.6% 보다는 음악감상 30.9%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활동외의 다른 활동들은 극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수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에만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학교급별, 지역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하고있는 활동이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과는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표 Ⅲ-48〉참조).

〈표 Ⅲ-47〉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예능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영화관람	36.4	25.6	30.1	30.1	31.3	33.1	30.6	26.3	30.2(576)
음악감상	29.1	30.9	30.5	29.0	33.2	27.6	31.5	29.5	30.1(574)
노래배우기	7.5	9.2	8.0	7.6	12.7	8.6	7.7	10.0	8.5(161)
음악회관람	5.7	7.9	4.9	10.3	1.2	3.5	7.8	8.4	6.9(132)
콘서트관람	5.6	5.4	5.5	4.9	7.7	5.7	6.2	3.7	5.5(105)
악기강습	4.7	5.1	6.3	4.2	3.5	6.2	4.4	4.9	4.9(94)
연극관람	3.2	4.5	2.3	4.6	6.2	7.1	2.2	4.9	3.9(75)
미술·전시회관람	2.5	3.9	3.9	3.3	1.5	1.5	2.8	6.3	3.3(63)

(3) 예능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다음은 예능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로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과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이다(〈표 Ⅲ-48〉, 〈표 Ⅲ-49〉).

〈표 Ⅲ-48〉에 나타난 결과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현재하고 있는 활동과도 많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표 Ⅲ-49〉에 나타난 결과는 학생들이 현재하고 있는 활동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별, 학교급별, 지역에 상관없이 음악감상 22.8%, 영화관람 12.3%, 노래부르기 11.4% 순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Ⅲ-49〉는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결과로서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악기강습 13.7%에 가장 많이 응답했지만, 다른 활동들은 성별, 학교급별,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들은 악기강습에 이어 서예 8.6%, 공예강습 7.9%, 미술강습 7.6%순인데 반해 여

〈표 Ⅲ-48〉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예능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음악감상	22.5	23.0	20.2	25.0	25.5	22.9	22.5	23.4	22.8(614)
영화관람	12.5	12.1	12.1	13.0	11.2	12.5	12.2	12.3	12.3(331)
노래배우기	11.0	11.7	11.1	10.7	14.1	11.5	10.5	13.8	11.4(307)
연극관람	7.7	10.3	8.5	10.4	8.2	9.8	9.3	8.1	9.2(247)
콘서트관람	9.2	7.0	6.7	9.7	8.0	7.3	9.1	5.7	8.0(216)
음악회관람	8.2	7.6	6.6	10.2	5.9	6.1	9.0	6.8	7.9(212)
미술·전시회관람	5.1	6.8	5.6	6.9	5.3	5.6	6.3	5.8	6.0(163)
서예	6.3	5.0	7.8	3.2	4.8	5.0	5.7	6.0	5.6(151)

학생들은 악기강습에 이어 공예강습 9.7%, 미술강습 9.2%, 서예 8.4% 순이었다. 중학교 학생들은 공예강습 10.3% 이 악기강습과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이어서 서예 8.4%, 춤강연 8.3% 역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악기강습이 1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면서 미술강습 10.8%, 서예 8.9%, 공예강습 7.3%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보다 정서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역시 악기강습 13.2%, 음악회관람 10.5%, 미술강

〈표 Ⅲ-49〉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예능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악기강습	14.3	13.2	10.5	17.9	13.2	13.7	14.4	11.7	13.7(434)
공예강습	7.9	9.7	10.3	7.3	8.2	9.1	8.6	9.4	8.9(282)
서예	8.6	8.4	8.4	8.9	8.2	8.7	7.9	10.0	8.5(271)
미술강습	7.6	9.2	6.5	10.8	9.0	7.8	9.3	6.9	8.4(268)
춤강연	6.8	6.6	8.3	5.0	5.5	5.9	7.0	6.9	6.7(212)
음악회관람	7.7	5.6	5.9	6.1	10.5	7.6	5.8	7.4	6.6(208)
음악경연대회	5.6	6.3	5.1	6.8	7.0	4.7	6.7	5.7	6.0(190)
콘서트관람	6.5	5.5	6.0	5.4	7.7	7.3	4.8	7.4	6.0(189)

습 9.0%, 서예 8.2%, 공예강습 8.2%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음악감상이나 영화관람 같은 수동적이고 감상위주가 아닌 직접 참여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제 행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에의 욕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7) 자연체험활동 영역

(1) 자연체험활동에의 참여정도

학생들의 자연체험 활동에의 참여비율은 49.2%로 남학생들 44.9% 보다는 여학생들 52.9%의 참여율이 다소 높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 학생들은 41.9%인데 반해 고등학교 학생들은 10%가 더 높은 55%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서울지역의 학생들 35.5%에 비해 지방학생들의 참여율은 50%가 넘고 있어 15%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결과는 다음의 <표 III-50>과 같다.

<표 III-50> 자연체험활동 참여여부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있 다	44.9	52.9	41.9	56.8	54.4	35.5	51.8	58.2	49.2(669)
없 다	55.1	47.1	58.1	43.2	45.6	64.5	48.2	41.8	50.8(692)
합계 (실수)	47.6 (648)	52.4 (712)	49.1 (668)	37.5 (511)	13.4 (182)	24.8 (338)	53.7 (731)	21.5 (292)	100.0 (1361)
χ^2	8.46** 8.77**		27.80***			36.92***			

*P< .01, *P< .001

(2)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연체험활동

현재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연체험활동은 소풍 및 수학여행 50.5% 외에도 아주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소풍 및 수학여행에의 참여율도 50%선에 그친 것은 아마도 수학여행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풍만 간 경우 부정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인 것 같다.

10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비율 중(<부록 3-19>참조)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순으로 살펴보면(〈표 III-51〉) 남학생들은 소풍 및 수학여행 50.0%에 이어 야외오락활동 17.8%, 야영활동 17.6%이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관광명소 여행도 6.4%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들은 소풍 및 수학여행 51.2%, 야영활동 15.9%, 야외오락활동 13.1%은 남학생들과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화단꾸미기활동에 12.1%나 참여하고 있어 남학생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소풍 및 수학여행	50.0	51.2	49.2	51.6	51.0	53.5	53.3	43.0	50.5(521)
야영활동	17.6	15.9	15.5	18.1	15.5	14.6	14.3	22.9	16.7(172)
야외오락활동	17.8	13.1	15.5	14.3	17.4	16.8	15.3	14.0	15.2(157)
화단꾸미기	5.1	12.1	11.1	6.9	9.7	6.5	8.1	12.5	9.0(93)
관광명소여행	6.4	4.8	6.3	5.8	3.2	5.9	6.2	4.3	5.6(50)

(3) 자연체험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여러 활동영역 중 계획과 준비를 필요로 하는 자연체험 활동에 대해 학생들은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과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다고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표 III-52〉, 〈표 III-53〉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3-20〉, 〈부록 3-21〉참조).

위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성별, 학교급별, 지역에 상관없이 화단꾸미기 활동 35.5%와 야외오락활동 27.1%을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화단꾸미기 활동은 여학생들은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지만 남학생들은 극히 저조해 생각에만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소풍 및 수학여행 10.8%, 야영활동 9.0%, 식물채집 여행 6.8% 등도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풍이나 야영활동 등이 학교나 학교내에서의 특별활동(예를들면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시간을 내야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인 것 같다. 즉, 주어진 시간내에서 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표 Ⅲ-52〉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자연체험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화단꾸미기	30.8	39.4	35.3	36.3	34.1	33.6	34.6	40.0	35.5(688)
야외오락활동	27.0	27.4	25.0	30.2	27.2	27.6	26.1	29.4	27.1(526)
소풍및수학여행	10.8	10.9	10.4	12.0	9.7	123.1	11.2	7.1	10.8(210)
야영활동	10.1	8.0	8.4	8.1	12.9	9.6	9.8	6.14	9.0(174)
식물채집여행	7.7	6.0	8.1	5.3	5.4	6.0	7.5	5.6	6.8(131)

그렇다면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53〉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자연체험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국토조사	19.1	18.4	16.8	20.4	21.3	19.1	18.5	19.0	18.7(619)
조국순례대행진	16.4	15.4	14.8	17.1	16.5	14.1	16.0	17.8	15.9(525)
관광명소여행	10.5	13.5	12.5	11.5	12.5	9.3	13.3	12.5	12.1(400)
식물채집여행	11.4	10.4	11.1	9.9	12.5	13.6	9.8	10.2	10.8(358)
야영활동	9.8	11.7	9.7	13.0	8.6	10.5	11.1	10.4	10.8(357)

이상에서 처럼 자연체험활동 중 학생들이 필요한 활동으로 여기지만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화단꾸미기 0.9%와 야외오락활동 4.2%, 소풍 및 수학여행 6.9%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에 비슷한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국토조사 18.7%와 조국순례 대행진 15.9%, 관광명소 여행 12.1% 활동 등에 대해 많은 필요성과 이런 활동에의 참여욕구를 강하게 느끼고 있으나 현재하고 있는 활

동에 대한 응답결과와 비교해 볼 때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실제로 참여하고 행하기에는 여건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8) 예절수양활동 영역

(1) 예절수양활동에의 참여정도

전통문화활동 다음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예절수양활동에의 학생들의 참여율은 28.0%에 그치고 있다. 남학생들과 여학생들간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학교급별에서 따라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35.5%이 중학교 학생들 21.9% 보다는 거의 15%정도 많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29.1% 보다는 6%정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지역과 직할시 지역 학생들간에는 별차이가 없으나 기타시 지역은 32.5%의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Ⅲ-54>와 같다.

<표 Ⅲ-54> 예절수양활동 참여 여부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있 다	26.2	29.5	21.9	35.5	29.1	25.0	27.5	32.5	28.0(379)
없 다	73.8	70.5	78.1	64.5	70.9	75.0	72.5	67.5	72.0(976)
합계 (실수)	47.6 (645)	52.4 (709)	49.2 (666)	37.4 (507)	13.4 (182)	24.8 (336)	53.7 (727)	21.5 (292)	100.0 (1355)
χ^2	1.64 1.80		26.49***			4.56			

***P< .001

(2)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예절수양활동은 무엇인가

28.0%의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학생들이 현재하고 있는 예절수양활동 중 (<부록 3-22>)참조)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Ⅲ-55>와 같다.

위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은 명절새기 활동

38.6%으로서 중학교 학생들 35.0% 보다는 고등학교 학생들 40.8%의 참여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서울 31.9% 보다는 직할시 38.5%가, 직할시보다는 기타시 45.2%에서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명절새기 활동에 이어 혼례·제례·상례 배우기 15.8%, 식사예절 배우기 13.0%, 존칭 및 호칭 익히기 12.3% 순인데 비해 여학생들은 명절새기 활동에 이어 식사예절배우기 17.5%, 생활관 실습 15.5%, 존칭 및 호칭 익히기 12.0%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III-55〉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예절수양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명절새기운동	43.0	35.0	34.9	40.9	40.7	31.9	38.5	45.2	38.6(243)
식사예절 배우기	1.30	17.5	18.3	12.7	18.5	17.7	14.0	15.8	15.6(98)
존칭및호칭 익히기	12.3	12.0	11.6	13.6	8.6	9.9	14.0	10.3	12.2(77)
생활관실습	4.6	15.5	10.0	9.1	17.3	10.6	11.1	8.9	10.5(66)
혼례·제례·상례 배우기	15.8	4.4	12.0	8.1	7.4	11.3	8.7	9.6	9.5(60)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남학생들은 혼례·제례·상례 배우기 활동에 명절새기 활동 다음으로 많이 참여하는데 반해 여학생들은 7개 활동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아직도 남자중심으로 참여시키고 참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여학생들은 명절새기 활동에 이어 생활관 실습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데 비해 남학생들은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여 일상생활에서의 예절에 대한 관심은 여학생들이 더 높고 이에 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여학생들에게 더 많이 부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예절수양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학생들이 현재 하고있는 활동외에도 다른 활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

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부록 3-23〉 참조) 응답비율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식사예절배우기 26.9%, 존칭 및 호칭 익히기 22.2%, 가훈만들기 22.0% 활동에 대해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명절새기활동도 11.3%가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Ⅲ-56〉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들은 가훈만들기(24.1%), 식사예절 배우기(23.8%), 존칭 및 호칭익히기 22.3%, 가훈만들기 20.3%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남학생들이 가훈만들기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56〉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예절수양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식사예절 배우기	23.8	29.5	27.1	26.8	26.2	26.4	26.2	29.3	26.9(631)
존칭 및 호칭 익히기	22.1	22.3	19.0	25.7	23.9	19.8	23.4	21.9	22.2(522)
가훈만들기	24.1	20.3	22.9	21.7	20.1	24.3	22.2	18.9	22.0(518)
명절새기활동	11.8	10.9	11.3	10.6	13.3	11.3	11.6	10.5	11.3(266)

학생들이 가훈만들기가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현재하고 있는 활동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가족 구성원 전체 특히 부모님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행해지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 같다.

예절수양활동 중 학생들이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살펴본 결과 혼례 · 제례 · 상례 배우기가 30.3%로 가장 높아 아직도 전통존중사상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응답 결과는 〈표 Ⅲ-57〉와 같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별, 학교급별, 지역에 상관없이 혼례·제례·상례 배우기 활동에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는데 이어 전통다도 배우기 22.9%, 생활관 실습 17.5%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전통의례와 전통다도 및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예절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하고 있는 예절수양활동과 비교해 볼 때 이런 활동들은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관심과 실제 알고 행하고 있는 활동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57〉 시간의 많아야만 할 수 있는 예절수양활동

(단위 : %)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혼례·제례·상례 배우기	31.3	29.6	29.1	31.7	31.1	28.9	30.1	32.7	30.3(771)
전통다도 배우기	20.3	24.9	22.4	23.0	24.2	20.6	24.6	21.0	22.6(581)
생활관실습	16.0	18.6	15.1	20.3	18.7	18.2	17.5	16.6	17.5(444)
존칭 및 호칭 익히기	12.1	9.9	12.5	9.1	10.3	11.4	10.8	10.8	10.9(278)

이상에서와 같이 8개 활동영역에 대한 즉 수련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에의 참여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포츠활동 61.7%, 문예활동 72.3%, 봉사활동 18.3%, 전통문화활동 14.9%, 과학활동 26.5%, 예능활동 72.3%, 자연체험활동 49.2%, 예절수양활동 28.0%, 특히 봉사활동과 전통문화활동 영역에서는 극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현재하고 있는 활동들도 극히 수동적이고 단조롭고 정적인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들이 필요로 하지만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활동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때론 협동적이며 봉사적인 활동에의 참여 희망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의례와 전통문화활동에 대한 관심도 많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V. 바람직한 수련활동 시간확보 방법

Ⅳ. 바람직한 수련활동 시간확보 방법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학생청소년들은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부담과 진학 및 지적 교육으로 편중된 학교교육제도로 인해 덕성과 체력단련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수련활동의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수련활동은 학교교육체제속에 제도화되지 않아도 충분히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생활전반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학생청소년들이 갖는 학업의 중압감은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학교내외에서 학생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수련활동의 참여기회가 차단된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참여토록 시간을 확보하여 주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시간확보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우선 지속적인 시간확보의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기회의 측면에서 수련활동참여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련활동의 주체자이며 수혜자인 학생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같은 욕구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확보방법이 모색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학생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실태와 활용방법 그리고 수련활동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토대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알아보고,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인가 탐색하므로써 바람직한 수련활동 시간확보의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무슨 욕구를 가지고 있나

청소년들의 욕구는 개체로서 가질 수 있는 욕구와 함께 삶의 전과정중 가장 변화가 많은 시기라는 점에서 다른 시기보다 훨씬 다양하고 가변적이다.

1) 청소년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동이 성인의 단계로 들어서는 시기인 청소년기는 과도기로서 질풍노도의 시기, 심리적 이유기, 자아발견의 시기로 일컬어지곤 한다. 이는

신체상의 발달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생리적인 면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아동으로서의 통일성이 무너지고 성인으로서의 재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의 과도기적인 시기를 뜻하는 것이다.

즉 성인기에 도달할 때까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기를 거침으로서 인생의 철학적 기초를 다지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다음과 같은 I. V. Hall의 주장에서도 나타난다.

9세에서 11세의 어린이는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발달하고 있다. 즉 그 아이는 아마도 고대의 그리고 비교적 완성된 단계를 가진 종족의 성숙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단계는 어떤 의미에서 정지하고 있으며 온화한 풍토속에서 적응하기 쉽다. 그것은 우리들이 이미 주장한 바와같이 원인류의 시대보다 나중의 인류발달의 최종단계이고, 오래 계속될 시대이다.

청년기의 시작에서 자연과의 오래된 융합과 조화는 포기된다. 즉, 어린이는 낙원으로 부터 격리되어 긴 진보의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보다 높은 인간 세계를 정복하고 새로운 영역으로의 탈출을 하며, 정신·신체적인 기반에 보다 현대적인 과정을 쌓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청소년은 새로운 세계에 눈뜨고, 새로운 세계나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 인생의 장래는 돌연히 그리고 충분히 주어진 새로운 힘을 어떻게 절약하고 방향설정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결정된다. 성격과 인격은 형태가 설정되지만 아직 가연성에 충만되어 있다. 자기 감정과 야심은 강화되어 모든 특색과 능력은 과장과 과잉의 경향을 띠고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놀랄만한 새로운 탄생인 것이다(박아청, 1990).

이처럼 청소년기는 사회에 의해 육성·보호되던 어린이로서의 입장에서 사회의 생산·재생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는 성인기에로 다가가는 최후의 관문으로서 자아 정체감의 확립과 직업, 그외의 사회적 역할의 결정을 내려야 할 기반을 조성하는 유예기간인 것이다.

그리고 이 유예기간이야말로 자유롭게 여러가지 사회적 사상·가치관에 동일시하여 그것을 즐기고, 실험하는 것이 허용되는 시기로서 다양한 역할을 실험적으로 해보아 자신의 사회적인 선택을 여러가지로 시도해 보는 시간인 것이다.

2) 청소년기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기본적 욕구는 무엇인가

모든 행동은 동기지워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어떤 욕구가 충족될때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일상생활 그 자체가 욕구의 만족을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1) 신체적 욕구

신체적인 면에서 급격한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성인과 대등한 신체를 갖게 된다. 이런 급격한 신체적 변화는 배고픔, 목마름, 체온조절욕, 배설욕, 신체상해의 회피욕, 성욕과 같은 일차적 욕구외에도 근력의 증가로 인한 활동욕을 갖게 함과 아울러 휴식욕도 갖게 한다. 즉 신체변화에 정신적 성숙이 미치지 못함으로써 심리적 긴장상태를 유발, 활동욕과 더불어 휴식욕도 같이 갖게 되는 것이다.

(2) 인성적 욕구

사회적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동년배 집단을 형성하고 그 속의 일원이 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집단의 가치와 행동양식에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로 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집단 속에서의 지위나 인정에 더 신경을 쓴다. 그러나 성인의 지위를 얻고 싶어하는 욕구 또한 강해 성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향성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의감과 의리감이 강한 시기라서 남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외에도 봉사욕의 욕구, 우애·협동욕의 욕구 또한 강하게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동질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시기이므로 되도록이면 부모들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자가지향적 인간이 되려고 한다.

따라서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혼자만의 공간을 갖기를 바란다.

(3) 지적욕구

추상적 사고능력과 논리적 추리능력이 가능해지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지적인 발달 뿐만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상상력의 발달로 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흥미와 깊은 이해에 관심을 표명한다. 또한 생의 의미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강한 관심을 나

타내 진리, 종교, 이상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한다. 즉, 철학적 사고가 썩트게 되면서 가치기준에 대해서도 탐구하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적인 욕구와 아울러 창조적 욕구, 취미생활에의 욕구를 갖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급격한 신체적 변화, 지적능력의 발달, 정서적인 면의 성장과 동년배들과의 관계형성을 통한 사회성의 발달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여러가지 욕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욕구는 다가오는 삶의 무한한 가능성이 놓여져있다는 사실 때문에 다양한 욕구를 발산하며 충족하려하지만 사회적 여건이나 개인적 환경으로 인해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좌절조차 제공되지 않는 즉, 욕구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때이다. 청소년들에게 지적인 욕구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원동력이며 이를 충족시키고 계속적으로 동기화시키는 제도적인 과정은 학업중심의 학교제도에서도 입증하듯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지적 욕구만 존재하지 않는다. 지적욕구는 그들이 가진 수많은 욕구의 한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지적 욕구의 제도적 수용으로 인해 다른 욕구가 발생이전 부터 단절된다면 청소년들의 발달은 자연히 기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적인 욕구이외의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은 그들을 청소년답게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3) 욕구충족의 한 방식으로서의 여가생활의 필요성

욕구가 발생하여 만족되지 않을 때 청소년들은 당황하고 긴장하게 된다. 물론 만족 상태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지만 청소년들이 갈등이나 긴장으로 인하여 억압당하지 않고 보다 개방적으로 활동하여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욕구들이 전부 또는 다소라도 실현될 때 인간은 행복해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장이란 어떤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심리적 욕구의 점진적인 만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활동욕과 아울러 휴식욕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여가생활을 통한 욕구 충족의 훈련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들이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특유의 독특한 생활감과 생활양식을 개발하고 발달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가는 단순한 휴식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개인의 재충전과 창의적 개성의 발휘 및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여가생활을 통해 인격의 성장 및 자기실현 과정을 이룩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성인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부족과 여건조성의 미비에서도 기인하지만 우선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시간도 교육과정상의 시간의 연장으로 부족하고 심리적으로도 입시제도에 억눌려 보다 나은 여가활동 유형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여가시간이 주어져도 주로 음악감상(66.2%), 텔레비전 시청(56.3%), 수면(27.15%) 등으로 보내게 된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 연구소, 1988). 이처럼 청소년들은 매우 단조롭고 정적인 여가활동 유형을 보여줌으로써 여가활동을 통한 자기발전 도모는 물론 W.I.Thomas가 기본적 욕구로 제시한 운동, 오락을 통한 새로운 경험에의 욕구 또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4) 일상생활 및 수련활동시간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욕구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하루생활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성인들의 생산활동에 속하는 학교생활, 그리고 자유시간과 수면시간이다. 흔히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생산활동에는 긴장과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여가활동은 다음활동에 활력소를 주고 긴장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생산활동인 학교생활의 질도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주어진 시간의 양 뿐만아니라 질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하루 생활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을 더 갖고 싶어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어하는 것일까?

그들은 하루생활중 협의의 여가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교양 및 취미활동 시간 21.8%,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19.1%, 잠자는 시간 17.5%, 책읽는 시간 15.2%의 순서로 좀 더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응답해 여가시간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반해 좀 줄어들기는 희망하는 시간은 학교의 수업시간이 40.3%였다.

또한 하루의 시간여유가 주어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라는 물음

에 성별이나 교급에 관계없이 여행 32.3%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그 밖에 여학생들은 아르바이트 15.2%, 친구들과의 오락활동 12.4%, 독서 11.4%의 순서였고 남학생들은 친구들과의 오락활동 18.4%, 스포츠활동 14.3%로 나타났다.

이같이 학생청소년들은 자신의 덕성과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의 욕구는 매우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어른과는 달리 스스로 조절하거나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사회적으로 유예된 상태이며 시행착오가 어른에 비해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는 비교적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분방한 욕구가 지적 욕구라는 한 형태만 사회에서 인정되고 계발되어 질 때 청소년들은 이중적인 좌절을 겪을 수 있다. 즉, 격동기에 청소년이 가지는 특징인 다양한 경험과 사고형태가 그것을 유발할 수 있는 욕구의 선택적 허용으로 인해 한편으로 기울어진 발달을 야기하며, 또한 지적 욕구의 장려는 다른 욕구의 상대적인 가치판단을 가져와 욕구의 서열화 또는 차등을 뒀으로써 욕구를 갖는 것조차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는 커다란 잘못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지·덕·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려는 그들의 욕구를 진지하게 수용하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은 올바른 욕구를 찾아내는 동기부여의 방안도 되어질 수 있다.

2. 어떤 기회를 줄 것인가

청소년기는 실제로 성인의 자율성 습득을 위한 신체적 심리적 성장 및 변화의 시기이다. 그러므로 전 부문에 걸쳐 중대한 발달, 변화 그리고 재조직을 하는 시기이다. 예컨대, 사춘기적 현상과 관련된 심리학적 변화, 사고의 발달과 관련된 지적변화, 자아의식 습득과 관련된 심리적 변화 그리고 가족·학교·사회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갖는 관계발전에 따라 사회적 변화 등이 그것이다. 인생의 다른 시기에는 청소년기보다 더 특별하고 중대한 변화를 하는 시기가 거의 없다. 청소년기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생리학적, 지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교육제도 내에서 학교는 학교에의 모든 자원을 청소년들의 지적기능을 신장시키는데만 동원하고 있어 지식편중의 교육은 기형청소년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 교육제도와 교육환경이 발달시켜주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생리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면을 수련활동을 통해 보완시켜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1) 청소년기의 동반자인 친구와의 만남의 시간을 활성화 한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친구의 영향은 부모가 주는 영향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생활 중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청소시간 등을 통해서 심지어는 공부시간 내내 서로의 삶 안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좀 더 자유가 주어지는 활기찬 시간은 등하교길 차속이나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청소년기에 있는 또래끼리의 만남은 자신들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움과 생동감을 갖게 한다.

본 조사에 나타난 학교외에서의 학생청소년들의 ‘친구, 친척 및 이성과의 교제시간’은 평일 55분, 토요일에는 1시간 30분, 일요일 1시간 35분으로 주로 이시간에 이들은 여학생의 76.3%, 남학생의 39.2%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종류의 회로애락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고민과 고충을 의논하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받아주기도 하여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위로하며 서로의 정신적인 긴장감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의 의논 대상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친구를 꼽고 있다.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옛말이 있듯이 동년배 친구들과의 만남과 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의 양과 질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생청소년들에게 ‘좀 더 늘었으면 하는 시간’을 질문한 결과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원한 학생이 19.1%로 두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바램은 특히 인문고 22.2% 학생들이 중학생 17.2%이나 실업고 18.8% 학생보다 강했는데 이는 실업고 1시간 10분, 중학교 1시간 5분, 인문고 40분 순으로 친구들과의 만나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난 결과라고 보겠다.

청소년들이 앞서 제시한 청소년기에 이루어야할 성장을 위해서 가장 큰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청소년들 자신인 친구를 통해서 이다. 따라서 기성세대들은 이들의 교제시간이 좀 더 풍요롭고 알찬 것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단순히 공부시간을 좀 먹는 쓸모없는 시간으로 몰아부치는 태도를 버리고 이 시간을 권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환경조성으로 청소년의

일상생활 중 환희와 즐거움이 넘치는 생동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구미 선진국에는 청소년들이 많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과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이들 국가는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견문을 넓히고 세상을 알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만큼이나 넓고 다양한 세상을 그들에게 열어준다. 구미 청소년들은 자율적으로 그들이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과 삼삼오오 짝을 지어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 친구들과의 여행은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그들 특유의 다양한 요구를 즉 지위에 대한 욕구, 독립의 욕구, 성취욕, 만족스런 생활 원리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이다. 기성세대들은 이들이 바람직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와준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입사 이력서에 여행경력을 기록할 정도로 청소년기 여행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여행에 대한 바람이 강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하루의 시간여유가 주어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 응답한 결과가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으로 남학생 33.5%, 중학교 29.7%, 인문고 36.5%, 실업고 30.4% 할것 없이 모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여행을 택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친구들과 자율적으로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 그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줌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시킨다

오늘의 교육현실에서, 곧 그 제도나 학습구조나 내용 등에서, 교육이 인간의 성숙, 인간다운 인간이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 자체에 대한 형이상학적 본질의 개념적 잔영일 뿐 실체는 아니다. 사회구성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청소년기의 가능성은 기계적으로 재단된다.

사회구성의 성충을 위하여 교육의 한계가 과해진다. 가능성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으로 구체화되면서 그 제약은 구체성, 곧 가능성의 현실화로 설명되고 그것이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설득된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속에 깃들 수 있는 청소년의 비인간화 가능성이다.(정진홍, 1990).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의견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교육자나 전문가, 행정가 모두가 왜곡된 교육현실을 수정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음 또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우리가 너무 크고 획기적이고 단시일에 뒤바꿀 수 있다는 욕심스런 교육제도 개선안을 꿈꾸고 있는 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보다는 오히려 학교교육의 본질을 조금씩 서서히 장시간을 두고 되살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입력되는 컴퓨터가 아니고 자율성과 가능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변질된 학교시간을 살아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일상생활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중학교 7시간 55분, 인문고 8시간 30분, 실업고 7시간 45분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은 청소년들을 인간다운 인간, 성숙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성숙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각각의 특성을 지닌 필수교과목들은 학생청소년 자신들도 감지할 정도로 제 기능과 특성을 잃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은 신뢰와 흥미를 잃고 불만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작품인 시와 소설 등 문학작품을 직접 읽고 그 내용에 대한 감상과 비평을 하는 것이 국어시간 본래의 교육목표인데 반해 개인의 느낌이나 감상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암기하거나 작가와 서명을 일치시키는 외우는 작업이 학습의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적인 교육이 만연되어 있다. 실험한번 안해 보는 교과목이나 입시를 위해 변칙 수업되는 예능과목, 특별활동, 학생회 등 대부분의 과목들이 그 과목본래의 본질을 상실하고, 제 기능을 잃은 상태이다. 모든 교과목은 그 고유의 본질을 살려 그 과목이 갖는 독특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두뇌를 통해 그들의 가슴까지 전달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신적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교과목의 제 기능을 찾아주어 학생들이 이것은 힘들지만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학생들의 인간다움과 성숙을 위해 기여하게 될 때 학교에서의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3) 여가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회문화 양상의 다양화에 따라서 직업과 생활양식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인간의 생활방식이 고도로 복잡다단하여지고 사람들의 취미와 특기도 고도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여가활동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욕구와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몇몇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 의해 청소년 심신의 발달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극히 한정되어 있어 경제적인 여건이 되거나 아주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면 보통의 청소년으로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보통의 청소년들은 95%이상이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바람직한 여가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여가활용의 인식상황에 관한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학업성적을 올리기 위한 것 17%, 불안해소 15%, 심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 51%, 단순히 생활의 무료함을 회피하기 위한 것 12%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여가활동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청소년들의 여가시간에 대한 바램이 지대한 것을 볼 수 있다. 학생청소년들은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자신의 하루 일과 중 학교 공부와 학교의 학습시간을 줄이고 스포츠, 문화, 교양,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친구들과의 교제시간을 더 늘이기를 원하고 있었다. 한편 우리 청소년들은 여가를 즐기고 선용함으로써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과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먼저 전체적인 국민경제가 나아져야 40.4%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여가를 권장하는 문화가 많이 발전되고 14.5%, 여가를 즐기게 하는 단체나 조직이 많아야 하며 12.8%, 또 학교에서 여가교육을 해야하며 여가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고치고 여가를 선도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경제적 요인 다음으로 지적하는 것은 문화적 요인데 여가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볼 뿐아니라 적극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그들을 하나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며 금지적이고 부정적인 요구만을 하고 간섭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권장하여

주고 보급시킬 것을 바라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84).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여가시간이 갖고 있는 효율성과 그 중요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여가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수련활동 기회제공의 기반이 될 것이다.

4) 주말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수업이 없고 입시를 위한 과외공부나 학원수업, 실업고 학생의 경우에는 취직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하는 학원강좌시간 등이 줄어드는 주말에 학교공부나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되어 심리적으로 또한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여유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주말에는 학교공부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된다. 학생청소년들의 주말 하루 일과중 수면시간, 학교수업 및 공부시간 그리고 생활필수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3시간 47분, 일요일 8시간 32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평일보다는 많이 사용하는 잠자는 시간이나 생활필수 시간은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융통성 있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토요일의 학교교육내용을 체육과 예능중심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일주일 내내 끊임없이 능률을 올리지 못하면서 학교공부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성인들이 주말에 휴식을 취하고 월요일부터 새롭게 활기찬 생활을 시작하는 것처럼 학생청소년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공부가 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껏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시간활용 기술의 한 방편으로 생각된다. 예를들어 프랑스 중학교에서는 음악·미술·공작이 포함되는 예술시간은 3시간이고 체육시간은 2시간씩인데 매주 5시간 정도의 예술과 체육시간으로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학교수업이 없는 수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 특별과외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의 학생들은 프랑스 전체의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노는 수요일을 이용해서 여가활동에 열중한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교육부나 시청교육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원조를 아끼지 않으며 부모들도 이를 위해 집안경제여건의 범위안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주말을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이 방학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활

동들은 즉 수영 12.7%, 등산 12.6%, 창작발표회 12.7%, 신문제작 12.7%, 농촌봉사활동 25.6%, 위문활동 22.1%,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 17.0%, 문화유적지 탐사 15.9%, 민속촌 박물관 견학 12.4%, 컴퓨터 배우기 17.3%, 천체관측 15.5%, 악기강습 13.7%, 공예강습 8.9%, 국토조사 18.7%, 조국순례대행진 15.9%, 관광명소여행 12.1% 등으로 주말과 방학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시간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3.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고루 갖춘 바람직한 인격체로서 교육시키기위해 수련활동은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의 하나이다. 현실적으로 이와같은 논리와 필요성에 대한 이의는 없으나 그것은 당위로 그칠 뿐이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사회구조와 그 속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의 역동적 과정에 있으므로 쉽게 설명될 수 없으며 또한 그 고리를 풀기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여러 분야, 그리고 사람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이와같은 문제를 도외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현실에 적합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에 따라 수련활동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청소년 건전육성에 이바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실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수련활동을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제공하느냐 즉 어떤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수련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결과의 성패이전에 실행화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수련활동의 목표와 프로그램이 이상적이라도 그 실효성은 기대할 수 없다. 마치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듯이 수련활동을 위한 시간의 마련은 가장 기초적인 환경요건이 된다.

이같은 수련활동의 참여시간 확보방법은 절대적인 시간의 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간의 제한성은 불가피하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간의 한 부분을 수련활동시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문제에 부딪힌다. 사람들의 생활시간이란 확일적으로 단순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어른들 보다는 어렵지 않게 그들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특히 학생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의 제도교육 속에서 많은 시간을 생활하고 어찌면 나머지 시간도 그것을 지지하고 계획하는 시간

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공부와 학업에 전념—이것은 당연한 그들의 책무이자 권리이기도 하지만—하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과 제도의 변화로 이 시간은 간단히 확보되어 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수련활동이 당연히 바람직한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그 논리적 타당성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작 있어야 할 수련활동시간도 상급학교의 진학이라는 불만스럽고 고통스럽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흐름때문에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시간을 할애하여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높은 수준의 정책적 결단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현재의 학교 교과목 수를 줄이고 수련활동시간을 부여하는 일 등 물리적인 시간의 확보는 매우 단순해 보이고 앞서 말했듯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어려운 일이다.(이 문제는 부록1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욕구도 매우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련활동이 실제 진학이나 자신의 현실적으로 보이는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는 강한 회의를 보인다. 또한 수련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마저 상실한 학생들도 있다. 그들은 주어진대로 생활하며 그 생활이 학습과 학습외 것으로 이분하여 수련활동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으며 삶에 있어서 비중을 갖는 정도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이에 따라 그들에게는 그 욕구를 동기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시간확보방안의 타당성을 찾아야 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만일 제도적으로 시간이 확보가 되었다하더라도 자발성과 모든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이것은 자칫 또 다른 시간의 구속을 가져올 수 있다. 만일 청소년들에게 하루 2시간의 수련활동을 이수하게끔 제도화하여 관리한다면 그것은 수련활동이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 즉,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의 품성과 덕성을 키워 미래의 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상을 지향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주어진 2시간안의 프로그램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의 규제는 학생들의 수동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적 시간 확보방안에서 이와같은 문제를 고려한 후 시간을 마련할 수 있고 여기에는 단순한 시간확보의 방법 뿐만 아니라 수련활동의 질적 양적 요건등 다양한 변인이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학력을 중시으로 한 사회분위기와 의식속에서 하나의 정책적 판단으로 시간확보를 해나간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뿐이 없다.

따라서 본 논의의 중심은 제도적인 시간확보의 필요성을 전제하면서도 그러한 필요성을 현실화되고 또한 참여하는 각 계층의 합의를 유도하기 전에라도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을 제공하여 주는 일이 정책적, 그리고 그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시급한

일이라면 또 다른 시간에서 그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앞서 계속해온 논의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속에서 수련활동시간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숫자화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시간은 의식에 따라서는 매우 복합적인 행위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면화시키는 일이다. 다시말해 어떤 한 시점에서 우리는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고 사실 머릿속으로는 내일의 업무를 생각하듯이 한 시간이 주는 의미는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시간의 양이 문제가 아닌 질의 차원에서 수련활동 참여시간확보 방법을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시간확보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같은 접근은 학생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외에서 그들의 수련활동참여시간이 어떤 형태로 확보될 수 있는가를 예시해 주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물리적 시간을 할애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내용이나 행동의 면에서 시간을 보는 관점도 되며 그를 통한 확보의 방법을 말한다.

1) 학교에서의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방안

앞서 수차례 언급하였듯이 학교는 점차 학업 즉, 진학에 필요한 교과목 중심의 학습과정에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 따라서 예술과 체육활동 등 그들의 정서와 덕성 그리고 신체의 올바른 발달과정을 교과과정화한 과목들도 하나의 지식의 결과로서 분석되고 암기되고 있다. 즉 입체적인 교육과정이 평면화되어 청소년들에게 진학을 위한 도구로 때로는 그것조차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극단적인 사례까지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수련활동을 참여시간 확보방안은 이같은 현실을 정상적인 교육형태로 찾아 가는데 있다.

(1) 학교에서의 교과시간중 음악, 미술, 체육, 자치활동 시간을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학교 교육이 교과목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음악, 미술, 체육, 자치활동의 교과시간은 올바른 덕성 및 신체를 다듬는 수련활동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갖는다. 물론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이러한 활동이

학교당국의 의지와 교사들의 노력으로 원래 목적하는 바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곳곳에서 좌절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굳이 학교에서의 수련활동 시간을 따로 확보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도화하기 보다는 우선 교과과정으로 제시된 수련활동에 관계된 각각의 시간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뒷받침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련활동과 관련된 교과목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은 결국 현실상황에서 시간을 새로이 확보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련활동과 관련된 과목의 정상적인 수행은 그것이 진학을 위한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더 나아가 사회의 인식을 지적 능력학습의 연장선상에서가 아닌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물론 이같은 작업은 그 과목의 특성과 교과목표에 상치될 수도 있지만 올바른 교육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학교의 학생들의 욕구와 실정에 맞게 과감히 그 내용을 구성하는 등 보다 획기적인 발상과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 학생들의 학교내 클럽활동을 활성화하는 일이다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학교내 클럽활동이 크게 활발하지 못한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실 이같은 클럽활동의 활성화는 앞서 말한 수련활동과 관련된 교과목의 정상화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학교교육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1학년때부터 잘못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또한 그와같은 과정속에서 거의 전부의 학생이 공부와 진학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 따라서 클럽활동은 장차 직업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인문, 실업, 예체능계별로 구분하기 이전에 다른 차원에서 그들의 심리·사회적 행동양식을 변화시켜주는 주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수련활동의 하나로서 많은 프로그램을 예시하고 실행할 수 있다. 비록 초기에 많은 학생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이같은 활동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향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문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중 상급학교의 진학에 큰 관심이 없으며 학과의 취미나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문학적 재질이 뛰어나다면 그는 국어나 작문시간외에는 자신의 적성을 계발할 기회가 없으며, 국어등의 시간마저 상

급학교 진학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어 적합치 못한 형편일 수도 있다. 이때 그에게 학교내 클럽활동을 통해서 그와같은 잠재력을 계발하여 주는 과정의 편성은 단순히 진학아니면 직업준비를 통한 사회입문의 이분적인 관점을 재고하게 한다. 또한 클럽활동의 활성화는 학생들에게 청소년기 문화선택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 그들의 정서함양과 자신의 적성을 발견함으로써 수련활동 본래의 목표중 주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3) 청소년들에게 시간활용방법을 교육시킨다

이것은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시간은 그 물량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많은 시간이 곧 유의미한 시간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매우 의미있고 보람된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은 이러한 시간을 보는 개념적 시각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시간의 활용은 공부의 과목별 할당이나 공부를 벗어난 휴식시간의 조절등이 고작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시간활용의 방법을 교육시키는 일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통제하는 방식을 터득케 할 수 있다.

예를들어 하교길에 집으로 올때까지의 시간이 그리 긴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동안에 청소년들은 자신이 시간을 활용하기에 따라서 적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수련활동이 일정한 체계를 갖고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청소년들의 심성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다. 형식에 구애없이 그들 스스로 자아 또는 환경의 인식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조금은 비약일수도 있으나 하교길에 지나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삶의 단면을 느낄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청소년기에 자신의 모습은 심리적인 소용돌이 속에 폐쇄적으로 판단하고 형성될 수 있다. 이 때 많은 다른 모습을 보고 느끼며 생각하는 일은 그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우나 가장 청소년다운 고민과 고뇌 그리고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 수련활동이 청소년들에게 개인의 성장과 사회성을 부여해 주는 지속적인 인 노력이라면 이것을 그들의 생활속에 내면화시키는 일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2) 가정에서의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방안

비록 우리 교육형태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하더라도,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청소년들의 생활현장의 가장 중요한 장인 가정은 구성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방안은 가족의 의지에 따라서 매우 손쉽게 추출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수련활동 참여의 의지와 노력을 보인다하더라도 가정의 도움이 없으면 그 성과는 아주 미약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가정은 그 자체가 수련활동의 장이 되어야 하며 가정에서의 시간이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자연스러운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의 형편에 따라 또는 가정외적인 문제 때문에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수련활동 참여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가능한 방법인지 제시한다.

(1) 가족이 함께 모인 시간을 적극 활용한다

가족 전체가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예를 들면, 아침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단순한 표어로 인식되기 쉬우며 또한 어렵지 않은 일이면서도 실천하기는 힘든 사항이지만 가족내에서 지금의 가족형태와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구조와 기능이 아직도 유교적인 형태로 상호 쉽게 개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정외에 특별한 행사나 행위등 그것이 즉, 자연스럽게 모든 행위가 서로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내에서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어떤 일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식사시간의 경우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시간이며 또한 복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므로 수련활동의 각종 프로그램을 변형시켜 응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런데 이와같은 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저녁식사시간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부모나 학생들이 모두—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서로 바쁜 저녁시간을 활용하기는 무리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비록 짧은 아침식사시간이고 또한 그 시간도 서로 맞추기 힘들지만, 그것은 가족구성원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시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가정내에서 할 수 있는 수련활동프로그램과 학교내외에서의 행동과 태도를 교육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간의 의미는 평소 가정에서 늘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 형제간의 가족내 역동적 상호작용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적합한 수련활동에 교육·참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2) 간단한 가정 예절 교육을 시킨다

간단한 가정 예절을 교육시키는 일은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이며 또한 실제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구성되어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많은 내용과 과정을 함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정예절 교육은 내용의 관점에서가 아닌 청소년들에게 참여시간의 가족내에서 방식을 인지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감사의 인사하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사실 감사하다는 말은 쉬우면서도 우리의 문화 풍토에서 쉽사리 언급되고 있지 않은 말이다. 아직도 우리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언어표현을 통한 감사보다는 마음의 감사를 더욱 의미있는 것이라고 배우며 때로는 감사의 마음을 말로써 표현하는 습관이 되어있지 않음을 느낀다. 여기서는 감사라는 말의 중요성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얻는 한 시점에서의 만족과 성취감에 더 큰 의미를 둔다. 감사라는 어휘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일차적으로 짙게 깔려 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태도나 마음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즉,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이 형식적이라도 그 표현은 자신의 마음에 내재된 언어로서 각인되어진다. 매우 간단하고 짧은 말이며 어느 순간 어디서라도 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것의 이면에는 자신의 마음을 재확인하며 극적인 긍정적 마음의 긴장상태를 유지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서적인 순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더 나아가 자신의 사고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듯 간단한 가정예절 교육은 거의 찰나적인 시간의 확보를 통하여 마음에 유의미한,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긴 시간으로 이끌어 내는 주요한 참여시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3) 기타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방안

수련활동참여시간을 청소년들의 의지로서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이지만 청소년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며 또한 그들의 여건은 어른들의 결정에 의하여 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선택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른이나 사회에 의해서 그들 시간의 대부분이 통제되고 조절될지라도 그들은 나름대로 시간의 물량적인 면이 아닌 질적인 차원에서 시간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을 통한 참여시간의 확보는 더욱 바람직하고 시간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과 접하는 기회를 줄 것이다.

(1) 수련활동의 내용과 의미를 교육시킨다

올바른 수련활동은 건강한 사회구성을 위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청소년기의 즐거움과 의미를 만끽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따라서 만일 수련활동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게 개발될 수 있고 청소년의 미래상을 지향하는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프로그램의 선택과 시행이전에 수련활동의 내용과 의미를 교육시키는 일은 청소년들 스스로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시간확보방안이 된다. 물론 이것은 수련활동 동기유발의 중요한 방법이 되며 그들이 확보한 시간을 계속적으로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해주는 이상적인 확보방법이 될 수 있다.

(2) 방송매체의 이용을 통해 수련활동시간을 확보한다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의 힘은 때로는 정치적인 힘보다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막강하다. 특히 방송매체인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영향력은 매체의 즉시성과 대중성 그리고 시각과 청각을 통한 손쉬운 인지성 때문에 매우 크다. 더우기 청소년들에게 방송매체는 빠른 변환과 사회문화의 다양한 전달등으로 인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도 많은 청소년들은 방송프로그램과 내용이 화제에 오른다. 전날 보았던 코메디프로, 그리고 방송에 출연했던 가수, 최신 유행곡등 그들에게 방송을 거의 공부를 제외한 생활에 커다란 부문이며 심지어는 교우간의 대화를 풀어나가는 필수적인 매체이다.

청소년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한다. 또한 텔레비전을 보면서 공부를 하기도 한다. 교육방송의 등장은 청소년들을 위해 방송매체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보여주었다.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확보도 방송매체를 통해 가능하다. 청소년들이 하루에 방

송매체를 듣고 보는 시간이 적지 않다. 물론 기존의 방송프로그램도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이나 인성계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들의 욕구와 수련활동이 지향하는 목표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편성, 방송은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방송매체와 만나는 시간을 수련활동시간의 확보의 시간으로 전환이라는 복합적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방송매체의 프로그램보다도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이용하는 시간에서 수련 활동에 참여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의미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확보는 제도적인 개혁이나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정책의 개발로써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절대시간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자명하고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관점에서 참여시간을 확보하여 준다고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또 다른 관점에서 시간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청소년들의 현재 생활가운데서의 그들이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본 확보방안은 이같은 시각의 단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청소년들의 욕구와 기회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확보방안을 추출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적 제안이 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V.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기본계획」에 기초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탐색해보는 방안과 함께 청소년들의 생활시간과 시간활용 욕구에 따른 합리적 시간확보방안을 살펴봄으로써 다른 관점에서 시간 확보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참여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기획의 제공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각종의 문헌, 신문, 잡지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문헌연구와 실제 청소년들의 시간활용실태와 수련활동 참여시간에 따른 인식을 알기위해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학생청소년의 하루생활시간과 그 시간에 관한 의식, 그리고 수련활동 참여 시간에 관한 인식영역으로 구성되어, 전국의 청소년인구에 비례에 따라 학생청소년 1,6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경과를 보면 1991년 8월부터 설문구성을 하여 9월 한달동안 선정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10월 부터 회수된 설문지에 대한 통계처리 작업을 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학생청소년의 하루생활시간과 생활시간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 그리고 수련활동참여 시간에 관한 의식등 모두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은 청소년을 지역별 인구비례로 나누어 총 1,600명을 선정하였고 이중 241명이 오류검토작업을 통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아 총 1,359명의 설문지를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청소년의 생활시간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을 그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의미있는 삶의 준비기로서 뿐

만 아니라 그 자체를 의미있는 삶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을 하루, 한달, 그리고 일년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시간의 합리적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삼았다.

(1)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학생청소년들의 하루는 인간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내용과 학교를 중심으로한 학업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같은 시간은 매우 타율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욕구와 상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실제 여러측면에서 시간을 유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시간과 청소년이라는 가변적 특징을 연관시켜주는 하루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준다.

(2) 한달을 어떤 계획으로 생활하나

학생청소년들은 한달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실천하고 평가하여 다음의 달을 준비하는 노력들이 매우 소극적이며 또한 한달을 구성하고 있는 시간의 각기 다른 요인들 때문에 일관성있는 계획을 세워 진행하기는 어려우나 한달의 시간을 주단위 또는 일일 단위로 아니면 내용을 중심으로 배분하며 생활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현실적으로 학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일년동안 무엇을 하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일년의 과정속에서 시간과 시간속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내용과 행동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의미는 잃어가고 있다. 그들은 일년동안 지식을 얻고 학생의 신분에서 오는 면책의 기쁨을 누리지만 자신의 문화와 생각을 행동화 시키는 시간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또한 그것조차 언어적 표현과 시간표처럼 짜여진 행동으로 인식하며 생활하고 있다.

2) 청소년 생활시간활용 및 수련활동시간

(1) 생활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학생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은 활동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시간양에 따라 크게 수면시간, 학교수업과 그외의 공부시간, 식사, 신변잡일 등 생활필수 시간과 여가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설문분석 결과 학생청소년들의 하루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수면시간은 평일 7시간 15분정도이고 토요일 7시간 40분, 일요일 8시간 10분이었으며, 학교수업 및 공부시간은 평일 11시간 30분, 토요일 8시간 30분, 일요일은 3시간 50분이었다. 식사, 등교준비, 이동 등 생활필수시간은 평일 3시간 39분, 토요일 4시간, 일요일 3시간 30분 정도였다. 그리고 여가시간은 평일 3시간, 토요일 4시간, 일요일은 7시간이었다.

학생들이 좀 늘었으면 생각하는 시간은 여가시간 21.8%,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19.1%, 잠자는 시간 17.5%, 책읽는 시간 15.2%,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으로는 여행 32.3%로 제일 많았고 그외에 여학생들은 아르바이트 15.2%, 친구들과의 오락활동 12.4%, 독서 11.4%, 스포츠활동 9.0%이었고, 남학생들은 친구들과의 오락활동 18.4%, 스포츠활동 14.3%, 아르바이트 11.3%, 혼자서의 사색 7.6% 순서로 차이를 보였다.

(2) 수련활동 시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나

청소년 수련활동을 스포츠, 문예, 봉사, 전통문화, 과학, 예능, 자연체험, 예절수양 활동 8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그 활동의 참여여부, 현재하고 있는 활동,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스포츠활동 61.7%, 문예활동 72.3%, 봉사활동 18.3%, 전통문화활동 14.9%, 과학활동 26.5%, 예능활동 72.3%, 자연체험활동 49.2%, 예절수양활동 28.0%로 거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봉사활동과 전통문화활동 영역에서는 극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아야 할 수 있는 활동에서 스포츠활동중 수영 12.7%, 문예활동중 창작발표회 12.7%, 봉사활동중 농촌봉사활동 25.8%, 전통문화활동중 문화유적지탐사 18.9%, 과학활동중 컴퓨터배우기 17.3%, 예능활동영역 악기강습 13.7%, 자연체험활동중국토조사 18.7%, 예절수양활동은 혼례·제례·상례배우기 30.3% 등이 제일 높았다.

또한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스포츠활동중 자전거타기 18.7%, 문예활동중 일기쓰기 33.2%, 봉사활동중 국군장병께 편지쓰기 49.7%, 전통문화활동중 민속놀이 21.3%, 과학활동중 동식물관찰 16.7%, 예능활동중 음악감

사 22.8%, 자연체험활동중 화단꾸미기 35.5%, 예절수양활동중 식사예절배우기 26.9 %등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다.

4) 바람직한 수련활동시간 확보방법

(1) 무슨 욕구를 가지고 있나

학생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욕구는 발달단계상의 욕구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들의 신체적·지적·정의적 사회적 발달에 따라 활동성이 크고 모험심도 충족시킬 수 있으며 협동적이고 창의적 활동에의 참여욕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정체감 확립의 형성시기인 만큼 자신의 존재, 주변과의 관계에 민감함을 보이면서 전통에 대한 의식과 관심도 높은 것으로 미루어 자아발견과 개성발휘에 필요한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흔히 겪는 실존적 공허감을 매우기 위한 활동에의 참여욕구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2) 어떤 기회를 줄 것인가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선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한 환경요인인 가정의 기능강화, 학교교육의 정상적 기능회복, 친구등과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접근해야 하는 한편, 여가활동의 차별화와 다양화를 통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3)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제도적인 시간확보의 방법과 함께 본 논의에서는 그와같은 필요성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속에서 수련활동 참여시간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학교외에서 그들의 수련활동참여시간 확보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안하였다.

가. 학교에서의 교과시간 중 음악, 미술, 체육, 자치활동 시간을 정상화시킨다.

나. 학교내의 클럽활동을 활성화시킨다.

다. 시간활용방법을 교육시킨다.

라. 가족과의 아침식사시간을 통해 자연스러운 수련활동프로그램 중 일부가 용해되

- 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 마. 시간과 그 시간의 활용의미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의 인사하기등의 간단한 가정
예절 프로그램을 생활화한다.
- 바. 수련활동의 내용과 의미를 교육시킨다.
- 사. 직·간접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송매체를 통해 제시함
으로써 자연스러운 수련활동참여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는 시간의 양적인 문제해
결로서 가능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청소년의 반복되는 일상생활시간에 직·간접적
의미와 활동형태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은 그 목적과 취지로 보아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활동이지만 입시위
주의 현행 교육제도와 구조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의식전환과 관련 당
사자와의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의
양을 확보해 수련활동 시간으로 편성, 제도화한다면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자칫 수련활동이 그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입시를 위한 또 하나의 과목, 또는
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관점에서 나온다.

따라서 이렇듯 제도화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에 선행하여 다른 시각에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을 조명하고 수련활동참여시간 확보를 수련활동의 적극적 기회를 만들
어 주기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수련활동의 실행을 위한 환경조성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수련활동의 전체적 참여동기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방법
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논의는 제도적인 수련활동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확보의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와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의지와 합의로서 확보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그간 논의되어 온 교육과정개선 등
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화 하였다[부록 1참조].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대로 청
소년들의 일상생활과 그들의 상황을 고려한 수련활동참여시간 확보의 기본적 방안
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바,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관한 욕구와 참여동기는 강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의 제약성 때문에 청소년들 스스로도 자신을 얹매고 있

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관심은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고리를 풀고 수련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주변여건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의식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련활동참여시간확보 방안은 그 구체적인 방법 마련 이전에 수련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청소년들과 주변 성인들이 자신의 시간을 만들려는 노력이 선행될 때 세부적인 방법이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정이 된다.

여기서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일상생활시간속에서 합리적인 수련활동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의 제안은 상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

제언 1 :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련활동이 청소년 건전육성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국민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실적으로 학생청소년들이 그들의 의지대로 학업이외의 시간을 가질 수 없는 반면, 교양 및 취미활동 등 학업외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실정이다. 이같은 점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이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정책제안자나 수혜자인 청소년들만의 욕구로 수련활동에 대한 시간이 확보되어 질 수는 없다. 즉 학생들의 욕구는 그들의 신분과 청소년이라는 제약때문에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이 앞으로 바람직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요소이며 청소년교육의 주요한 틀이라고 모든 국민이 인식하게 될 때 수련활동의 목표가 성취될 수 있으며 이와함께 시간확보는 당연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제언 2 : 청소년수련활동 시간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속에서 찾아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들의 덕성과 품성, 그리고 신체를 올바르게 발달시키기 위한 조직, 비조직적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면,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은 가능한 한 그들의 일상생활시간 안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만일 획기적인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없이 수련활동의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여 현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욕구나 생활시간주기를 고려하지 못한 채, 제도적으

로 일정시간을 그들에게 제공한다면 이것은 자칫 또 하나의 의무의 시간이 되어 아무리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유익한 수련활동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할지라도 수련활동의 기본적인 목표와 가정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왜곡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의 확보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활동과정과 내용을 토대로, 그 속에서 수련활동으로 전환 또는 구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들어 현재의 학생들의 생활과정속에서 새로운 혼란이 없이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시간 즉 수련활동과 관련한 음악, 미술, 클럽활동등을 정상화, 활성화시키며 가정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같은 방법은 수련활동으로 일정시간을 의무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수혜자에게 지속적인 동기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언 3 : 수련활동시간확보방안을 단순한 환경요인의 변화나 개선이 아닌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청소년 수련활동참여시간 확보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의 측면에서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나아가 고려해야 할 것은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가 피동적인 여건조성의 관점에서 보다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또한 정상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틀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시간확보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의 필요성과 참여의 동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좋은 예는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조사결과에도 보여주듯이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도 대중매체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해 수련활동을 제공하고 또한 그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그들에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내용구성을 한다면 청소년들은 개인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스스로 시간을 찾아서 참여하는 동기요인이 된다.

수련활동참여시간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기회제공의 철학을 갖고 수련활동의 시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는 일은 시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시간활용에 관한 개별적 관심을 유발하게하여 매우 긍정적인 동기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제언 4 : 청소년을 포함해서 국민모두에게 수련활동에 관한 내용과 정확한 의미를 인지시켜야 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청소년들과 주변의 많은 어른들은 학업을 중심으로한 교육과정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많은 수련활동과 관련된 행위와 내용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련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따라 청소년들 스스로의 욕구를 행동화시킬 수 있고, 그들을 둘러싼 주변 어른들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그들의 신체와 덕성, 그리고 품성등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내용을 인지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케 할 수 있다고 본다.

제언 5 : 청소년들에게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시켜야 한다.

시간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라는 것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즉, 시간이 양적인 개념일 수 밖에 없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의 의지와 인식에 따라서는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청소년들에게 많은 교육내용을 제공하면서도 그들이 스스로 또는 제도적으로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등에 대한 훈련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시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똑같은 시간이라도 타율적으로 보낸다는 의식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시간활용에 관한 올바른 교육은 수련활동의 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자신에 맞는 수련활동참여시간을 확보하는 간접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권이종(1989). 청소년문화와 정책. 서울 : 배영사.
- 김영모외(1988). 청소년여가선용을 위한 스포츠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연맹.
- 김영관(1986). 청소년들의 여가활용의 실태와 그 개선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경남대
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집.
- 김유진외(1980).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서울 :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부설 청소년문제연구소.
- 박준형(1990). 하나님께 일들꺼야. 서울 : 고려문화사.
- 박아청(1990). 청년과 아이덴티티. 서울 : 배영사
- 백영현(1986). 우리아이들. 서울 : 녹두.
- 서울특별시교육원(1984). 여가교육. 서울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신용석(1991). 현장에서 본 프랑스교육. 서울 : 서당
- 여운승(1985). 한국청소년의 생활양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 한양대 경제연
구소.
- 이상경(1991). 이땅의 아이들과 함께. 서울 : 친구.
- 이영기외(1982). 한국 청소년의 생활과 산업사회의 사회과교육. 서울 : 한국 정신문
화연구원.
- 이영덕외(1991). 중·고등학생의 생활과 진로에 관한 종단적 연구. 서울 : 서울대 교
육연구소.
-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1989). 밥먹으며 시계보고 시계보며 또 먹고. 서울 : 사계절.
- 한국방송공사(1990). 국민생활시간조사. 서울 : 한국방송공사.
-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1990). 레크리에이션 지도서. 서울 : 한국여가레크리에이
션협회.
- 한국일보사편(1990). 신세대 - 그들은 누구인가 상. 서울 : 한국일보사
- 황정규외(1989).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James F.Murphy(1981). Concepts of Leisure.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 Tony Jeffs and Mark Smith(1987). Youth Work. London : Macmillan Education
Ltd.

부 록

- 부록1.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혁 방안
- 부록2. 설문지
- 부록3. 설문조사표

[부록 1]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혁 방안

1. 필요성

- 현행 교육제도 아래서의 청소년들은 공부와 시험이라는 제도적 쇄사슬에 묶여 삶 자체가 희생되고 있어 청소년정책은 그 실효성이 없을 수 밖에 없고 국가장래도 기약할 수 없다.
- 따라서 학제 교과과정 입시제도 등 교육제도는 사회인력관리제도와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관계자 및 청소년정책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을 입안·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목적

- 청소년의 수련활동 시간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혁방안 탐색한다.

3. 기본방침

- 청소년 건전성장에 결정적 저해요인인 교육문제와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개념화 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혁방안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고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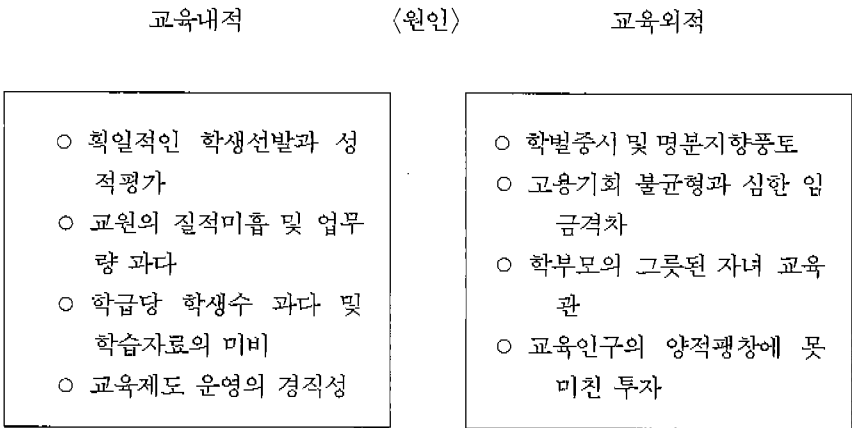
첫째,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은 현재 교육본연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오늘날 학교와 교육풍토는 지, 덕, 체의 조화로운 인격함양을 위한 인간교육에 역점을 두기 보다는 입시위

주의 지식교육에 치우쳐 있다. 앞으로 우리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은 홍익인간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인본성, 민족정체성, 도덕성, 진취성으로 설정한다.

〈문 제〉

- 개성이 무시되는 획일적 교육
-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위주의 교육
- 낙후된 교육환경



둘째, 교육개혁은 적성과 능력본위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로 계발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제도를 탄력성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우선 각급학교의 유형과 수업연한을 다원화하면서, 특히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 학생들의 선택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세째, 학교에서 생활지도와 직업교육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보통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스스로의 생애를 원만히 영위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과 직업준비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네째, 학교의 자율적인 행정역량을 신장해야 한다.

각 지역에 적합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자치제를 활성화하고 학교행정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토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학습효과를 높이고 정서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설비를 현대화해야 하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여섯째,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여건면에서의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출세, 학벌위주의 그릇된 교육관을 시정하고 지나친 대학 진학열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의식개혁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아울러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고용기회의 확대, 학력간 임금격차의 완화 등 사회경제적인 대책들이 포함된다.

4. 정책목표

본 계획은 학생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방안(입시제도, 교육과정, 학제)과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 참여방안이 주요내용으로 다음의 정책목표를 갖는다.

(교육제도개혁)

1. 대학교육기회를 확대한다.
2. 대학교육수요를 축소한다.
3. 대학별 서열철폐 정책을 추진한다.
4. 고교내신제를 개선한다.
5. 대학별 전형방법을 자율화한다.
6. 교육과정의 구조와 운영을 개선한다.
7. 현행 학제(단선형)를 다선형 학제로 전환한다.

(근로, 복무, 무직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방안)

1. 근로청소년을 위해 개인의 취미계발과 자질향상 그리고 노사, 동료간 화합을 조성하고 생산성 제고와 연계된 수련활동을 추진한다.
2. 복무청소년을 위해 복무후 사회적응을 위한 수련활동을 추진한다.
3. 무직청소년을 위해 직업준비를 위한 기능위주의 수련활동을 추진한다.

5. 내용 및 실천방안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교육제도개선방안은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교육과정의 개선 및 학제의 개선이 주요내용이 되며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대학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동시에 대학교육수요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시과열을 완화하며 특히 이와 관련하여 고교내신제를 개선하여 수련활동이 내실화되도록 유도하고 교육과정 역시 지, 덕, 체가 고루 강조되는 전인교육체제를 강화한다.

근로, 복무, 무직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 참여방안은 개인의 취미계발과 자질향상을 지향하는 수련활동에 초점을 둔다.

1) 학생청소년을 위한 교육제도개혁방안

(1) 대학교육 기회의 확대

대학의 정원확대가 대학교육 질의 저하와 고등실업자의 양산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ㄱ) 교육받은 국민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국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ㄴ) 국민들의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ㄷ) 학사관리나 대학운영의 개선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근거에서 다음의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실천방안〉

가. 신설의 허용

나. 현재의 대학별 정원 확대

다. 계절제 대학제도 도입

라. 야간대학 제도의 확대

마. 산업체 부설 대학설립 확대

바. 파트타임 대학진학제도 도입

사. 전문대학, 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전문대 수준의 각종 직업기술의 정원을 확대

(2) 대학교육 수요의 축소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강제로 축소할 수는 없다. 단지 고교교육체제의 조정과 고교졸업만으로도 가치있는 삶의 영위가 가능한 사회여건을 조성하여 학생과 부모 스스로 대학진학보다 사회진출 쪽을 유도하도록 한다.

〈실천방안〉

- 가. 현행 일반계 대 실업계의 비율(68:32)을 약 40:60의 비율로 조정
- 나. 실업계 고교의 내실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 다. 실업계 졸업 후 진로(취직, 진학)을 보장
- 라. 전문대, 방통대, 개방대 중 동일계 학과 지망시 특전부여
- 마. 실업계 과정에서 일반계 고교로 이동할 수 있는 길 허용
- 바. 일반계 과정에 비진학자를 위한 대책 마련
- 사. 일반계 고교 중 비진학자를 위한 대책 마련

(3) 대학별 서열철폐 정책의 추진

입시경쟁을 과열시키는 또 하나의 주요원인은 일류, 이류의 대학별 서열이다. 대학별 서열을 철폐하는 정책은 우선 국립대학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실천방안〉

- 가. 국립대학을 단일체제속에 넣어 교수, 학생, 학점의 교류
- 나. 국립대의 경우 특정대학의 졸업장이 아닌 국립대학 졸업장 수여
- 다. 사립대학도 상호연합하여 비슷한 시스템 구성

(4) 고교내신제의 개선

중, 고교 교육에서 전인교육이란 바람직한 교육의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발기준이 학력위주의 단일기준에서 특기, 취미, 사회활동 등 다양한 기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실천방안〉

가. 고교교육 정상화 및 전인교육적 차원에서 고교내신 성적의 필수

나. 반영과 비율상향 조정(현행 30%이상에서 40%이상으로)

다. 현행 학력일변도 전형방식을 1) 학력 2) 특기(미술, 음악, 체육, 문학 등)
3) 사회봉사활동 4) 수련활동 등 전인적 요소를 평가의 자료도 활용하는 방식
으로 전환

라. 학생들은 고교 3년간의 학교성적, 취미, 특기활동, 사회봉사활동 및 수련활동
사항들이 기록된 내신기록부를 지원대학 제출

마. 내신제의 실효를 위해 등급간의 점수차 확대(현행 10등급→)

* 참조 : 고등학교 내신반영제도는 프랑스를 제외한 주요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각 학교내에서의 일률적인 상대평가로 등급을 정하고, 각 등급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내신의 반영율이 73%인 서독의 경우에도 내신점수의 계산은 20개 기초과정 교과와 성적과 6개 전공교과와 성적의 합산으로 하기 때문에 성적이 높은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높은 내신점수를 받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고등학교에서의 학생평가를 1점 5점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각 점수에 해당되는 학생의 비율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특별활동”이 내신성적에 포함되어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직장생활경험”이 내신성적과 함께 학교배정의 기준이 되는 등 반드시 학생들의 학력만이 내신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5) 대학별 전형방법의 자율화

대학별로 독자적인 전형제도를 운영케하여 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입학전형자료를 다양하게 개발·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입학시기와 지원하는 대학수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부여하여 학생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실천방안〉

가. '94학년부터 대학의 여건에 따른 대학교육 적성시험 대학별 고사의 자율화는 대학의 본질과 현실의 조화적 측면에서 적절하므로 고교내신 성적 필수외에는 대학별로 자율적 시행에 맡긴다.

*대학입시 전형 자율화 유형

—유형 1 : 고교내신

—유형 2 : 고교내신+적성시험

—유형 3 : 고교내신+대학별 고사

—유형 4 : 고교내신+적성시험+대학별 고사

나. 내신을 제외하고 대학별 출제되는 과목의 종류와 수효 합격기준, 그리고 난이수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 학생들은 고교 3년간의 학교성적, 취미, 특기활동, 사회봉사활동 및 기타단체활동 사항등이 기록된 내신기록부(혹은 생활기록부)를 지원대학에 제출한다.

라. 대학간에 복수지원 허용 및 일정기간내에서 대학별 전형시기를 자율화한다.

마. 희망하는 전문대는 입시전형시기를 일반대학의 입시전형시기중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바. 대학복수지원등에 따른 입시행정지원을 위해 중앙평가원 또는 대학교육협의회 등 기관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사. 대학별 자체기준에 의한 입학 및 퇴학권한을 총, 학장에게 전적으로 부여한다.

아. 대학입시 자율화와 병행하여 전문적 지원기능 및 대학의 책임강화 고교내신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대책을 보완한다.

(6) 교육과정의 구조 및 운영개선

교육과정이란 학교교육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어서 학생들이 어떤 교과목을 어느 만큼(이수시간)배우느냐의 문제와 그 내용에 대한 규정을 말한다. 이 교육과정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 교육의 모습과 학생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파행성도 바로 교육과정의 구조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왜곡이 혼합되어 빚어내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실천방안〉

가. 최소 필수 학습량의 기준을 설정한다.

나. 생활경험(예:수련활동)특별과정을 설치한다.

(예:1학기에 2주이상, 1년간 30일 정도)

다. 교과과정상의 격차 최소화(일반계, 실업계, 특수계 고등학교간의 전학이 자

유롭게 이루어지도록)한다.

라. 국, 영, 수 등 도구교과의 난이도를 조정한다.

마. 이수과목의 축소조정(현행 27과목-약 20과목)을 한다.

바. 도구교과의 비중을 축소한다.

사. 수련교과목을 도입·신설한다.

아. 중등보통교육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자. 특정교과에 대한 편중적 비중부여를 지양한다.

차. 대학입학 학력고사에서의 영, 수, 국 비중을 축소한다.

카. 이웃 고등학교간 연계 학사운영을 권장한다.

(7) 학제개선(6-3-3-4의 단선형 학제의 다선형 학제로의 전환)

우리나라 현행 학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삼고 하급학교의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강요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제도하에서 초, 중등교육은 대학진학을 위한 단순한 중간과정으로 강요되기 때문에 중등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실천방안〉

가. 기존의 국공립대학의 교육운영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나. 고등학교 졸업후 누구나 진학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들(예:관광대학, 직업대학)등이 각 시도별로 신설되거나 증설되어야 한다.

다. 현장 학위의 인정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라. 대학이 대학생 선발 및 학기운영에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바. 각급학교, 대학간의 전학 및 편입학 제도가 완전개방되어야 한다.

2) 근로, 복무, 무직 청소년의 수련활동 참여방안

(1) 근로청소년

일반적으로 근로청소년들은 빈곤한 가정, 부족한 교육, 불만스러운 직업환경 등에서 기인되는 생활의 불안, 심신의 피로와 정신적 양식의 결핍으로 인하여 동년배의 학교청소년에 비해 정서적 불안과 자신감의 결여, 열등감 및 사회에 대한

불만감등에 사로잡히기 쉽다. 이들을 위해, 본 계획에서는 취미계발과 자질향상, 그리고 노사, 동료간의 화합 친밀감을 조성하고 생산성 제고와 연계된 수련활동을 추진한다.

〈실천방안〉

- 가. 수련거리의 수준은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
- 나. 교육내용은 근로청소년들의 생활환경과 조건을 감안하여 학교청소년들에 비해 이들에게 결핍되기 쉬운 자아확립과 정서순화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 다. 직장과 학교에서의 여유시간 부족을 감안하여 현장 기숙사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이를 수련활동(생활권 활동)에 활용한다.
- 라. 1년에 2박 3일 정도의 정규 수련활동을 기존의 청소년복지관, 구민회관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 마. 희망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휴가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2박 3일)수련터전에서 즐길 수 있게 하며 이 경우 기업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바. 이것은 근로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노동관과 밝은 생활태도를 갖는데 점차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주에게는 노사간 화합과 작업능률향상으로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게 한다.
- 사. 청소년종합정보센타를 전국에 확산 설치하여 기업단위로 수련활동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복무청소년

군, 경, 수감생 등 복무청소년들은 제도적인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가 손쉬운 단일통제아래 있는 반면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구성된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각각의 특수상황(국가적 목표)을 고려할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정서의 함양과 함께 주어진 의무를 일정기간 이행한 후 사회에 복귀하는데 요구되는 사회재적응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실천방안〉

- 가. 현재 대다수의 복무청소년들에게 매주 수요일(또는 목요일)오후를 전투체력(체력)의 날로 설정하여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그리고 복무의 획일성에서 오는 중압감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렇듯 제도적으로 보장된 시간을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수련의 날’로 그 명칭을 바꾸어 각종의 수련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 나. 청소년 건전육성과 복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체육청소년부의 주관 지원 아래 국방, 내무, 법무부 등에서 실정에 맞게 시행한다.
(군-대대별, 경찰-중대별, 수감청소년-교도소별로 단위사업의 실행주체가 됨)
- 다. 복무청소년 수련대상은 청소년연령층의 의무기간을 복무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한정(직업군인, 경찰, 교도관 등은 제외)한다.
- 라. 수련내용은 정서함양, 협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마. 각 사업실행 단위체의 실정에 따라 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하절기와 동절기 일정기간 동안은 자연권 수련장 또는 지역내 수련관 이나 수련실에 위탁 교육한다.
- 바. 복무청소년들은 주어진 의무를 일정기간 이행한 후 사회에 복귀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사회에 재적응 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사. 현재 복무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재적응훈련은 군, 경찰, 교도소 자체에서 제대 및 출감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사업이 개발되어 있지않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대와 출감을 일주일 앞둔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 및 변화하는 사회흐름을 이해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신교육을 하여야 한다.

(3) 무직청소년

대부분의 무직청소년들은 사회에서 비교적 소외된 계층으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와 무력감을 나타내고 있다. 더우기 무직의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정서적 곤란도 겪게된다. 이들을 수련현장으로 이끌어 삶에 대한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즉 경제적 여건과 사회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청소년에 비해 더욱 세심하고 다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천방안〉

- 가. 무직청소년들은 연령, 학력, 성별, 비행의 여부등 다양한 변인의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세분화 소집단화하여 수련거리와 수련시간을 다양화 하여야 수련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 나. 무직청소년들은 학생이나 근로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많은 반면 이동인구라는 특성때문에 여가선용의 기회를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고려한 시설과 지도자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 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이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소그룹단위로 1년내내 수련거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수련거리와 수련터전을 관리한다. 따라서 대상 청소년을 해당 시·도에 제한하지 말고 인접시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 이러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들을 이 수련거리와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른 기능도 함께하는 청소년 종합정보센터를 여러지역에 분포·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청소년 종합정보센터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종합상담실을 개선 발전시켜 이를 중심으로 무직청소년들을 수련거리에 연결시켜준다.
- 마. 또한 수련활동 이외에 다양한 심리, 사회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심리, 사회적 치료가 병행되어야만 직업훈련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6. 기대효과

1) 장기적 효과

- (1) 학교의 전인적 교육의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 (2) 과열입시현상이 해소되고 중등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다.
- (3) 학교외 청소년(근로, 복무, 무직)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2) 단기적 효과

- (1)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위한 여건과 시간이 확보되어 실질적인 수련활동이 이

루어 질 것이다.

(2) 수련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과정이 개발될 것이다.

(3) 학교외 청소년(근로, 복무, 무직)들에게 취미계발, 자질향상,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수련거리)이 개발·보급될 것이다.

[부록 2]

청소년 일상생활 및 수련활동시간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과 수련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각종 수련활동은 어떤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응답지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답 기재요령〉

1.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응답항을 하나만 선택하여 그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2. 응답항이 ()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응답 내용을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문 1』 다음은 당신의 하루 생활시간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데 (1)평일 (2)토요일 (3)일요일에 평균 어느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1) 잠자는 시간

① 평 일 ()시간

② 토요일 ()시간

③ 일요일 ()시간

2) 식사하는 시간(아침, 점심, 저녁, 야식시간 등을 모두 합해서)

① 평 일 ()시간

② 토요일 ()시간

③ 일요일 ()시간

3) 여러가지 준비하는 시간(세수, 목욕, 옷갈아입기, 등교준비시간 등을 모두 합해서)

① 평 일 ()시간

② 토요일 ()시간

③ 일요일 ()시간

4) 이동하는 시간(학교와 학원 등의 통학시간 등을 모두 합해서)

① 평 일 ()시간

② 토요일 ()시간

③ 일요일 ()시간

5) 학교수업시간(학교내에서의 자율학습시간을 포함해서)

① 평 일 ()시간

② 토요일 ()시간

6) 학교외의 학습시간(학원에서의 수업, 과외, TV과외 시간등을 모두 합해서)

① 평 일 ()시간

② 토요일 ()시간

③ 일요일 ()시간

7) 공부하는 시간(집에서의 예습·복습시간 등을 모두 합해서)

① 평 일 ()시간

② 토요일 ()시간

③ 일요일 ()시간

8) 가정내의 일을 하는 시간(가정내의 청소, 취사, 빨래돕기와 동생 돌보기, 어른들 심부름하는 시간 등을 모두 합해서)

① 평 일 ()시간

② 토요일 ()시간

③ 일요일 ()시간

9)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친구, 친척 및 이성과의 교제시간 등을 모두 합해서)

① 평 일 ()시간

② 토요일 ()시간

③ 일요일 ()시간

10) 여가시간(학교외의 클럽활동, 관람, 감상, 구경, 스포츠, 하이킹, 산책, 교양활동, 취미활동 시간 등을 모두 합해서 단, 독서나 TV시청시간은 제외)

① 평 일 ()시간

② 토요일 ()시간

③ 일요일 ()시간

11) 책 읽는시간(신문, 잡지, 소설 등을 읽는 시간을 모두 합해서)

① 평 일 ()시간

② 토요일 ()시간

③ 일요일 ()시간

12) TV시청 시간(단, TV과외시간은 제외)

① 평 일 ()시간

② 토요일 ()시간

③ 일요일 ()시간

『문 2』 다음의 활동 중 좀 더 늘었으면하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있는대로 골라 해당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① 잠자는 시간 ② 식사하는 시간 ③ 학교 수업 시간 ④ 학교외의 학습시간
나 ⑤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 ⑥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⑦ 가정내의

일을 하는 시간 ⑧ 여가시간 ⑨ 책읽는 시간 ⑩ TV시청 시간

『문 3』 다음의 활동 중 좀 줄었으면하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있는대로 골라 해당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① 잠자는 시간 ② 식사하는 시간 ③ 학교 수업 시간 ④ 학교외의 학습 시간 ⑤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 ⑥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⑦ 가정내의 일을 하는 시간 ⑧ 여가시간 ⑨ 책읽는 시간 ⑩ TV시청 시간

『문 4』 만일 당신에게 하루의 시간여유가 주어진다면 다음 중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은 어느 것입니까?

① 사회경험을 쌓기위한 아르바이트 ② 스포츠 활동 ③ 가족들과의 대화 또는 모임 ④ 독서 ⑤ 교양강좌수강 ⑥ 봉사활동 ⑦ 종교활동 ⑧ 여행 ⑨ 학업의 보충 ⑩ 친구들과의 오락활동 ⑪ 혼자서의 사색

『문 5』 다음 중 당신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다른 활동을 줄인다면 어느 시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① 잠자는 시간 ② 가정일을 돕는 시간 ③ 학교외의 학습시간 ④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 ⑤ 통학시간 ⑥ 학교 수업시간

『문 6』 현재 학교이외의 곳에서 정기적으로 학과수업의 보충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①번 없다에 ○표해 주시고 있다면 한 달의 교습비와 배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없다 ② 있다.



문1) 한달의 교습비는 얼마나 됩니까?

약()원

문2) 배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내가 원해서
- ② 부모님이 시켜서
- ③ 선생님 또는 선배의 권유
- ④ 친구의 권유

『문 7』 당신은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갑니까? 있는대로 골라 해당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 ① 걸어서 ② 버스로 ③ 지하철로 ④ 자전거로 ⑤ 학교버스로

『문 8』 다음은 당신이 접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장 많이 보거나 듣
는 분야는 무엇인지 응답해 주십시오.

1) TV

- ① 연속극 ② 스포츠프로 ③ 쇼프로 ④ 교양제작물 ⑤ 뉴스 ⑥ 국산영
화 ⑦ 외국영화 ⑧ 만화영화 ⑨ 볼 시간이 없음 ⑩ 보지 않음

2) 라디오

- ① 연속극 ② 스포츠 중계 ③ 국산음악(가요) ④ 외국음악(팝송)
⑤ 뉴스 ⑥ 들을 시간이 없음 ⑦ 듣지 않음

3) 일간신문

- ① 정치 ② 경제 ③ 사회 ④ 문화 ⑤ 만화 ⑥ 스포츠 ⑦ 생활과학
⑧ 종교 ⑨ 광고 ⑩ 볼 시간이 없음 ⑪ 보지 않음

『문 9』 다음의 가정일 중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① 청소 ② 밥짓기 ③ 빨래 ④ 동생 돌보기(함께 놀아주기) ⑤ 부모님의
심부름 ⑥ 집안 꾸미기

『문 10』 친구들과 만나서 주로 하는 일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스포츠 활동 ② 봉사활동 ③ 디스코장 가지 ④ 전자오락 ⑤ 연극, 영
화, 음악회, 전시회 관람 ⑥ 등산, 낚시 ⑦ 여행 ⑧ 함께 대화

『문 11』 다음은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8가지 영역으로 나눈 것입
니다.

1) 스포츠 활동

— 보 기 —

(1) 축구 (2) 농구 (3) 족구 (4) 야구 (5) 탁구 (6) 테니스 (7) 배트민턴 (8) 럭비 (9) 배구 (10) 핸드볼 (11) 보울링 (12) 태권도 (13) 합기도 (14) 권투 (15) 씨름 (16) 유도 (17) 수영 (18) 등산 (19) 스키 (20) 눈썰매 (21) 행글라이더 (22) 빙상 (23) 체조 (24) 스케이트보드타기 (25) 롤러스케이트타기 (26) 자전거타기 (27) 승마 (28) 사격 (29) 역도 (30) 양궁

(1) 위의 보기 중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 - 1 있다면 현재하고 있는 활동의 번호를 있는 대로 골라 (가)란에 적어주시고, 또 그 활동을 얼마만에 한번씩 하는지 옆의 보기에서 골라 (나)의 기간란에 그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가)	(나)	보 기
현재하고 있는 활동	기 간	
		(1) 매 일 (2) 일주일에 한번 정도 (3) 한달에 한번 정도 (4) 일년에 한번 정도 (5) 부정기적으로

(2) 위의 보기 중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데로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3) 위의 보기 중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데로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4) 위의 보기 중 자신의 시간여건에 비추어 가장 흥미도 있으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을 골라 그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2) 문예활동

보	기
(1) 독서 (2) 문학의 밤 (3) 웅변 (4) 창작발표회 (5) 방송반 활동 (6) 시, 산문짓기 (7) 일기쓰기 (8) 편지쓰기 (9) 독후감쓰기 (10) 문학강좌 (11) 예쁜 엽서 만들기 (12) 시사토론 (13) 신문 제작(학급신문 등)	

(1) 위의 보기 중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 -1 있다면 현재하고 있는 활동의 번호를 있는대로 골라 (가)란에 적어주시고, 또 그 활동을 얼마만에 한번씩 하는지 위의 보기에서 골라 (나)의 기간란에 그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가) 현재하고 있는 활동	(나) 기 간	보 기
		(1) 매 일 (2) 일주일에 한번 정도 (3) 한달에 한번 정도 (4) 일년에 한번 정도 (5) 부정기적으로

(2) 위의 보기 중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만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대로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3) 위의 보기 중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대로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4) 위의 보기 중 자신의 시간여건에 비추어 가장 흥미도 있으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을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3) 봉사활동

보	기
(1) 위문활동(고아원, 양로원 등)	(2) 국군장병께 편지쓰기
(3) 농촌봉사활동	(4) 교통지도활동
(5) 지역사회 청소활동	(6) 환경 보호 캠페인활동
(7) 불우이웃돕기(바자회, 사랑의 은행)	

(1) 위의 보기 중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 - 1 있다면 현재하고 있는 활동의 번호를 있는대로 골라 (가)란에 적어주시고, 또 그 활동을 얼마만에 한번씩 하는지 옆의 보기에서 골라 (나)의 기간란에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가) 현재하고 있는 활동	(나) 기 간	보 기
		(1) 매 일 (2) 일주일에 한번 정도 (3) 한달에 한번 정도 (4) 일년에 한번 정도 (5) 부정기적으로

(2) 위의 보기 중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대로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3) 위의 보기 중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대로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4) 위의 보기 중 자신의 시간여건에 비추어 가장 흥미도 있으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을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4) 전통문화 활동

보		기	
(1) 민속놀이	(2) 민속예절배우기	(3) 민속축제	(4) 문화유적지 탐사
(5) 민속촌, 박물관 견학	(6) 국악연주	(7) 국악공연관람	(8) 민요배우기
(9) 민속춤 배우기	(10) 무형문화재연구		

(1) 위의 보기 중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 - 1 있다면 현재하고 있는 활동의 번호를 있는대로 골라 (가)란에 적어주시고, 또 그 활동을 얼마만에 한번씩 하는지 옆의 보기에서 골라 (나)의 기간란에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가)	(나)	보	기
현재하고 있는 활동	기 간	(1) 매 일	
		(2) 일주일에 한번 정도	
		(3) 한달에 한번 정도	
		(4) 일년에 한번 정도	
		(5) 부정기적으로	

(2) 위의 보기 중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대로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3) 위의 보기 중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대로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4) 위의 보기 중 자신의 시간여건에 비추어 가장 흥미도 있으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을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5) 과학활동

보		기	
(1) 동식물 관찰	(2) 실험활동	(3) 천체관측	(4) 과학공작활동
(5) 과학시설 견학	(6) 동물원, 식물원 견학	(7) 발명품 전시회	참가 및 견학
(8) 컴퓨터 배우기			

(1) 위의 보기 중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 - 1 있다면 현재하고 있는 활동의 번호를 있는대로 골라 (가)란에 적어주시고, 또 그 활동을 얼마만에 한번씩 하는지 옆의 보기에 서 골라 (나)의 기간란에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가)	(나)	보	기
현재하고 있는 활동	기 간	(1) 매 일	
		(2) 일주일에 한번 정도	
		(3) 한달에 한번 정도	
		(4) 일년에 한번 정도	
		(5) 부정기적으로	

(2) 위의 보기 중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대로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3) 위의 보기 중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대로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4) 위의 보기 중 자신의 시간여건에 비추어 가장 흥미도 있으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을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6) 예능활동

보		기	
(1) 악기	강습	(2) 음악회	관람
(3) 콘서트	관람	(4) 음악감상	
(5) 노래배우기	(6) 미술강습	(7) 음악경연대회	(8) 미술전시회
관람	(9) 사진반	활동	(10) 미술대회
참가	(11) 연극관람	(12)	
영화관람	(13) 춤	강연	(14) 서예
(15) 꽃꽂이	(16) 공예강습		
(등공예, 매듭 등)			

(1) 위의 보기 중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 - 1 있다면 현재하고 있는 활동의 번호를 있는대로 골라 (가)란에 적어주시고, 또 그 활동을 얼마만에 한번씩 하는지 옆의 보기에서 골라 (나)의 기간란에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가)	(나)	보	기
현재하고 있는 활동	기 간		
		(1) 매	일
		(2) 일주일에 한번 정도	
		(3) 한달에 한번 정도	
		(4) 일년에 한번 정도	
		(5) 부정기적으로	

(2) 위의 보기 중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만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대로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3) 위의 보기 중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대로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4) 위의 보기 중 자신의 시간여전에 비추어 가장 흥미도 있으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을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7) 자연체험활동

보		기	
(1) 식물채집 여행	(2) 강 탐사	(3) 국토조사	(4) 조국순례대행진
(5) 화단 꾸미기	(6) 야영활동	(7) 자연농장 운영	(8) 야외오락 활동
(9) 관광명소여행	(10) 소풍 및 수학여행		

(1) 위의 보기 중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1) - 1 있다면 현재하고 있는 활동의 번호를 있는대로 골라 (가)란에 적어주시고, 또 그 활동을 얼마만에 한번씩 하는지 옆의 보기에서 골라 (나)의 기간란에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가) 현재하고 있는 활동	(나) 기 간	보	기
		(1) 매 일	
		(2) 일주일에 한번 정도	
		(3) 한달에 한번 정도	
		(4) 일년에 한번 정도	
		(5) 부정기적으로	

(2) 위의 보기 중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대로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3) 위의 보기 중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대로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4) 위의 보기 중 자신의 시간여건에 비추어 가장 흥미도 있으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을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8) 예절수양활동

보	기
(1) 명절새끼 활동 (2) 혼례, 제례, 상례 배우기 (3) 존칭 및 호칭 익히기 (4) 식사예절 배우기 (5) 생활관 실습 (6) 전통다도 배우기 (7) 가훈만들기	

(1) 위의 보기 중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1) - 1 있다면 현재하고 있는 활동의 번호를 있는대로 골라 (가)란에 적어주시고, 또 그 활동을 얼마만에 한번씩 하는지 옆의 보기에서 골라 (나)의 기간란에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가) 현재하고 있는 활동	(나) 기 간	보 기
		(1) 매 일 (2) 일주일에 한번 정도 (3) 한달에 한번 정도 (4) 일년에 한번 정도 (5) 부정기적으로

(2) 위의 보기 중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대로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3) 위의 보기 중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대로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4) 위의 보기 중 자신의 시간여건에 비추어 가장 흥미도 있으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을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문 12』 당신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문 13』 재학중인 학교는?

- ① 중학교 ② 인문계 고등학교 ③ 실업계 고등학교

『문 14』 당신의 거주지역은?

- ① 서울 ② 직할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③ 기타시

『문 15』 당신의 부모님은?

- ① 양친 모두 계심 ② 아버님만 계심 ③ 어머님만 계심
④ 두분 모두 사망

『문 16』 부모님의 연세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	-----	-----	-----	--------

- ① 아버님 1 2 3 4 5
② 어머님 1 2 3 4 5

『문 17』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 학 원
	졸 업	졸 업	졸 업	졸 업	졸업이상

- ① 아버님 ... 1 2 3 4 5 6
② 어머님 ... 1 2 3 4 5 6

『문 18』 부모님의 직업은?

1	2
아버님	어머님

- 1 1 : 무직
2 2 : 일용근로자(육체노동, 파출부 등)
3 3 : 근로자(기능공, 미용사, 운전기사, 수위 등)
4 4 : 농림어업자(농·어업, 축산, 원예)
5 5 : 자영업(상점·식당·가내공장 경영 등)
6 6 : 사무직(회사원, 공무원, 교사, 기술자, 군인, 경찰 등)

- 7 7 : 관리직(사무직의 고위직:부장, 국장급 등)
 8 8 : 전문직(변호사, 판·검사, 교수, 성직자, 의사
 등)

『문 19』 가족의 월평균 소득(소득이 있는 가족 전체의 합계)은?

- ① 30만원 미만 ② 30-50만원 ③ 50-70만원 ④ 70-90만원 ⑤ 90-110만원
 ⑥ 110-130만원 ⑦ 130-150만원 ⑧ 150만원 이상

『문 20』 현재 살고 있는 가옥의 형태는?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상가 또는 사무실에 딸린 가옥

『문 21』 당신의 종교는?

- ① 기독교(개신교) ② 기독교(카톨릭) ③ 불교 ④ 없다 ⑤ 기타()

감사합니다.

[부록 3] 설문조사표

이하 모든 표의 단위는 %임

[부록 3-1] 현재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 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적할시	기타시	(실수)
축	구	9.7	0.8	6.4	5.0	7.3	5.5	6.1	6.4	6.0 (107)
농	구	15.5	4.1	7.2	15.2	12.8	12.1	10.4	10.6	10.9 (194)
족	구	1.8	1.5	1.2	1.8	3.0	1.3	1.6	2.2	1.7 (30)
야	구	3.7	0.4	3.3	1.2	2.1	1.1	3.3	1.7	2.4 (42)
탁	구	13.4	5.6	9.7	11.8	7.7	11.5	10.0	9.3	10.2 (182)
데	스	2.0	3.7	2.2	3.6	1.7	2.4	2.4	3.7	2.7 (48)
배	트 민	8.1	26.8	19.6	11.8	12.4	13.0	16.3	17.9	15.8 (282)
력	비	0.1				0.4	0.2			0.1 (1)
배	구	5.5	2.6	2.4	8.2	1.3	4.8	5.5	1.2	4.4 (78)
렌	드 볼	0.1	0.4	0.2	0.2	0.4	0.2	0.3		0.2 (4)
보	육 링	2.2	1.2	0.6	2.9	3.4	2.2	1.8	1.2	1.8 (32)
테	권 도	2.3	0.5	1.9	1.1	1.7	1.5	1.4	2.0	1.6 (28)
합	기 도	1.2	0.3	0.7	1.1	0.9	1.1	1.1		0.8 (15)
권	투	0.5		0.2	0.2	0.9	0.7	0.1	0.2	0.3 (5)
씨	름	0.4		0.1	0.2	0.9	0.4	0.2		0.2 (4)
유	도	0.4	0.5	0.3	0.8		0.4	0.5	0.2	0.4 (8)
수	영	3.0	9.4	6.6	5.2	3.0	5.5	6.7	3.2	5.6 (100)
등	산	3.2	5.4	4.2	4.1	3.8	3.5	4.1	4.7	4.1 (73)
스	키	1.0	0.8	1.6	0.3		2.6	0.3	0.2	0.9 (16)
눈	셀 메	0.2	0.4	0.6			0.2	0.3	0.2	0.3 (5)
행	글 라 이	0.1		0.1					0.2	0.1 (1)
빙	상	0.3	0.8	0.3	0.6	0.9	0.7	0.3	0.7	0.5 (9)
체	조	0.4	4.1	1.2	0.9	7.3	1.1	1.3	4.2	1.9 (34)
스	케 이 트 보 드 타 기	3.1	0.4	2.6	1.7	0.4	2.0	1.3	3.4	2.0 (35)
물	러 스 케 이 트 타 기	4.9	11.3	7.4	7.1	9.0	7.0	7.8	7.4	7.5 (134)
자	전 거 타 기	16.2	18.5	18.2	15.2	18.8	17.2	16.7	18.2	17.2 (306)
승	마	0.1		0.1			0.2			0.1 (1)
사	격	0.5	0.1	0.7			0.9	0.1	0.2	0.3 (6)
역	도	0.3		0.3			0.2		0.5	0.2 (3)
양	궁	0.1		0.1			0.2			0.1 (1)
합 계 (실수)		1,046	735	891	659	234	454	923	407	100.0 (1,784)
χ^2		402.11***		211.38***			237.86***			

[부록 3-2]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시읍	직할시	기타시	(실수)
축	구	6.1	1.2	2.5	4.5	5.0	4.1	3.8	2.5	3.6 (109)
농	구	8.9	2.8	3.6	7.7	8.1	7.5	5.6	4.2	5.8 (174)
주	구	5.4	1.6	1.9	4.5	5.8	3.9	3.0	3.9	3.4 (103)
야	구	1.3	0.8	1.2	0.7	1.3	1.1	1.1	0.8	1.0 (31)
탁	구	15.7	7.0	10.6	11.6	12.0	13.2	10.4	10.9	11.2 (338)
테	니 스	2.1	5.0	3.5	4.0	2.9	3.1	3.8	3.7	3.6 (109)
배	드 빈 턴	15.7	20.8	18.8	18.1	17.3	18.9	17.8	19.1	18.3 (554)
릭	비	0.1		0.1		0.3		0.1	0.2	0.1 (2)
배	구	2.2	1.4	1.4	2.7	0.5	1.1	2.3	1.3	1.8 (55)
행	드	0.4	0.4	0.6	0.2	0.5	0.7	0.4	0.3	0.4 (13)
보	울 링	1.2	2.1	1.4	2.0	1.3	1.7	2.0	0.7	1.7 (50)
태	권 도	2.5	1.5	1.8	2.6	1.3	2.4	2.0	1.5	2.0 (61)
합	기 드	1.6	0.8	1.2	1.2	1.3	1.5	1.1	1.2	1.2 (36)
편	부	0.8	0.1	0.5	0.3	0.3	0.3	0.4	0.7	0.4 (13)
씨	름	3.5	1.1	2.9	1.4	2.4	1.3	3.0	1.3	2.3 (68)
유	도	0.8	0.3	0.7	0.4	0.3	0.3	0.7	0.3	0.5 (16)
수	영	3.0	5.7	5.0	4.5	1.6	3.9	5.0	3.5	4.4 (133)
등	산	0.8	2.1	2.2	0.9	0.5	1.2	1.8	0.8	1.5 (44)
스	키	0.2	0.3	0.4	0.1	0.3	0.3	0.2	0.3	0.3 (8)
눈	썬 매	0.9	1.9	1.9	1.2		0.7	1.4	2.2	1.4 (42)
행	글 라 이 디	0.3	0.3	0.4	0.2	0.5	0.4	0.2	0.7	0.3 (1.0)
빙	상	0.3	0.2	0.3	0.1	0.3	0.3	0.1	0.5	0.2 (7)
체	조	1.5	7.7	3.8	4.7	8.1	2.9	4.2	8.4	4.7 (142)
스케이트보드타기		2.9	3.0	3.8	1.7	3.7	4.1	2.6	2.3	2.9 (89)
롤러스케이트타기		4.0	8.7	7.2	5.7	5.8	6.4	7.2	4.4	6.5 (195)
자전거타기		15.2	22.0	19.8	17.5	17.8	17.2	18.7	20.6	18.7 (565)
승	마	0.5	0.3	0.4	0.3	0.3	0.4	0.2	0.8	0.4 (11)
사	적	1.2	0.4	1.0	0.8		0.9	0.4	1.7	0.8 (24)
역	도	0.6	0.1	0.4	0.1	0.8	0.3	0.4	0.3	0.3 (10)
양	궁	0.3	0.3	0.4	0.3		0.3	0.2	0.7	0.3 (10)
합 계 (실수)		1,453	1,566	1,466	1,174	382	751	1,675	596	100.0 (3,022)
χ^2		401.00***		173.61***			132.76***			

[부록 3-3]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적한시	기타시	(실수)
축	구	7.5	2.7	5.7	4.5	3.5	3.3	5.3	6.2	5.0 (164)
농	구	3.4	2.9	3.7	2.6	2.8	2.7	2.9	4.3	3.1 (104)
족	구	0.6	0.8	0.9	0.6	0.5	0.5	0.7	0.9	0.7 (23)
아	구	6.8	1.7	4.6	3.5	3.7	3.0	4.3	4.9	4.1 (136)
탁	구	2.4	2.4	2.4	2.4	2.1	2.2	2.3	2.8	2.4 (79)
테	니 스	2.7	6.4	2.9	6.8	4.9	4.3	4.9	4.0	4.6 (152)
배 드 민	턴	1.2	2.3	2.3	1.0	2.1	2.1	1.5	2.2	1.8 (59)
력 비		2.2	1.3	2.0	1.4	1.9	2.1	1.8	1.3	1.8 (58)
배	구	2.2	2.0	2.1	2.2	1.9	2.5	1.8	2.4	2.1 (70)
헨 드	볼	0.6	1.5	1.6	0.4	0.9	1.4	1.1	0.6	1.1 (35)
보 울	링	3.4	4.6	2.8	4.6	7.3	4.8	4.1	3.0	4.0 (133)
테 권	도	5.5	7.0	5.1	7.3	8.0	5.4	6.3	7.4	6.3 (208)
합 기	도	4.4	3.6	3.0	4.8	5.6	4.1	3.6	4.9	4.0 (132)
편 투		2.5	0.8	1.3	2.1	1.2	1.4	1.9	0.9	1.6 (52)
씨 룬		0.4	0.5	0.6	0.1	0.9	0.5	0.6	0.1	0.5 (15)
유 도		1.6	0.6	0.7	1.4	1.4	0.8	1.2	0.9	1.1 (35)
수 영		9.7	15.4	11.8	14.0	12.2	12.1	12.5	13.8	12.7 (419)
등 산		11.3	13.7	11.2	14.4	12.6	11.5	13.0	12.8	12.6 (416)
스 키		4.1	4.7	4.2	5.4	3.0	4.1	5.0	3.4	4.5 (148)
눈 썰	매	1.0	0.6	0.9	0.6	0.9	0.8	1.1	0.1	0.8 (27)
행 글 라 이	더	7.6	3.9	5.9	5.8	4.2	5.7	6.3	4.0	5.7 (187)
빙 상		1.0	1.8	1.1	1.8	1.6	1.7	1.5	0.9	1.4 (47)
채 조		1.1	2.5	2.6	1.1	1.2	1.8	2.2	1.0	1.8 (61)
스 케 이 트 보 드 타 기		1.2	0.3	0.9	0.6	0.5	0.5	0.9	0.7	0.8 (25)
롬 러 스 케 이 트 타 기		2.2	2.7	2.8	1.6	3.7	1.9	2.1	4.2	2.5 (81)
자 전 거 타 기		2.9	3.1	3.7	2.0	3.3	4.3	2.2	3.6	3.0 (100)
승 마		3.8	5.3	5.9	3.1	4.0	5.9	4.2	3.9	4.6 (151)
사 격		3.2	2.4	3.9	1.9	1.4	4.1	2.3	2.5	2.8 (92)
역 도		1.1	1.0	1.3	0.8	1.2	1.3	1.2	0.6	1.1 (36)
양 궁		2.2	1.4	2.3	1.3	1.4	3.0	1.3	1.6	1.8 (59)
합 계 (실수)		1,570	1,731	1,635	1,242	427	828	1,802	674	100.0 (3,304)
χ^2		228.52***		174.60***			102.06***			

[부록 3-4]

현재 참여하고 있는 문예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한시	기타시	(실수)
독 서	45.3	31.7	43.9	30.1	34.9	36.0	35.8	38.1	36.3 (681)
문 학 의 밤	4.1	2.3	1.8	3.8	2.8	3.7	2.3	3.3	2.9 (54)
응 변	0.6	0.3	0.4	0.3	0.8		0.5	0.8	0.4 (8)
창 작 발 표 회		0.3	0.4	0.1			0.2	0.5	0.2 (4)
방 송 반 활 동	0.8	0.7	1.1	0.7		1.0	0.8	0.3	0.7 (14)
시 · 산 문 쓰 기	6.0	5.2	4.3	6.9	3.6	6.4	5.5	4.0	5.4 (102)
일 기 쓰 기	20.7	27.3	20.7	28.1	27.7	26.2	24.6	24.7	25.1 (470)
편 지 쓰 기	17.6	27.2	21.1	25.6	26.9	22.7	24.5	24.0	23.9 (449)
독 후 감 쓰 기	2.0	1.5	2.8	0.9	0.8	1.2	1.9	1.5	1.7 (31)
문 학 강 좌	0.2		0.1				0.1		0.1 (1)
예 뿐 엽 서 만 들 기	0.9	1.5	1.8	0.6	2.0	1.7	1.0	1.5	1.3 (24)
시 사 토 론	0.8	1.5	0.9	1.8		0.4	1.8	0.8	1.2 (23)
신 문 제 작 (학 급 신 문 등)	1.1	0.6	0.7	0.9	0.4	0.6	0.9	0.5	0.7 (14)
합 계 (실수)	638	1,237	759	867	249	484	995	396	100.0 (1,875)
χ^2	60.51***		78.08***			23.67			

[부록 3-5]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문예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실수)
독	서	16.9	14.1	14.6	16.1	16.1	15.8	15.3	15.1	15.4 (444)
문 학 의	밤	0.8	0.4	0.7	0.4	0.8	0.3	0.5	1.2	0.6 (17)
응	변	2.6	0.9	2.2	1.2	1.0	1.7	2.0	0.7	1.7 (48)
창 작 발 표 회		0.7	0.1	0.7	0.1		0.7	0.2	0.5	0.4 (11)
방 송 반 활 동		1.3	1.8	1.9	1.4	0.8	1.4	2.0	0.7	1.6 (45)
시 · 산 문 쓰 기		10.2	7.5	7.7	9.8	8.8	8.5	9.7	6.3	8.7 (251)
일 기 쓰 기		32.2	34.0	31.7	35.0	33.8	33.6	32.4	35.0	33.2 (960)
편 지 쓰 기		21.0	26.7	22.6	25.4	25.5	22.6	24.2	25.6	24.1 (696)
독 후 감 쓰 기		4.2	5.7	5.9	3.7	5.7	5.8	4.6	5.3	5.0 (145)
문 학 강 좌		0.5	0.5	0.5	0.5	0.3	0.7	0.4	0.5	0.5 (14)
예쁜엽서만들기		7.4	6.1	8.7	3.9	7.0	6.5	6.6	7.0	6.6 (192)
시 사 토 론		1.7	1.4	1.6	1.9	0.3	1.7	1.6	1.2	1.5 (44)
신 문 제 작 (학 급 신 문 등)		0.5	0.9	1.2	0.4		0.7	0.7	1.0	0.8 (22)
합 계 (실수)		1,306	1,583	1,383	1,121	385	720	1,580	589	100.0 (2,889)
χ^2		47.40***		65.68***			634.33***			

[부록 3-6]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문예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실수)
독	서	10.3	7.3	8.0	9.9	7.1	9.3	8.2	9.2	8.6 (267)
문 학 의	밤	7.8	10.0	5.6	13.0	9.8	8.9	9.2	8.4	9.0 (277)
응	변	5.0	3.4	4.4	4.7	1.6	3.1	4.9	3.4	4.1 (128)
창 작 발 표 회		10.3	14.7	12.0	13.3	13.5	11.3	14.2	10.2	12.7 (392)
방 송 반 활 동		6.0	7.3	6.5	6.7	7.4	6.9	6.6	6.6	6.7 (207)
시 · 산 문 쓰 기		6.4	7.9	6.7	7.9	7.4	7.0	7.3	7.3	7.2 (223)
일 기 쓰 기		2.6	0.5	2.2	0.9	0.5	0.7	1.8	1.6	1.5 (46)
편 지 쓰 기		3.3	1.7	2.9	2.2	1.3	2.5	2.4	2.4	2.4 (75)
독 후 감 쓰 기		8.9	4.9	7.2	5.7	8.2	6.5	6.1	8.8	6.7 (208)
문 학 강 좌		9.2	11.3	11.0	10.1	8.5	9.1	10.8	10.5	10.3 (319)
예쁜엽서만들기		4.7	6.4	6.4	3.9	7.9	8.5	4.5	5.3	516 (174)
시 사 토 론		11.8	12.9	13.6	10.7	12.4	12.9	11.9	13.0	12.4 (382)
신 문 제 작 (학 급 신 문 등)		13.8	11.7	13.5	11.1	14.3	13.3	12.2	13.1	12.7 (391)
합 계 (실수)		1,411	1,678	1,517	1,194	378	767	1,705	617	100.0 (3,089)
χ^2		91.24***		93.36***			41.24*			

[부록 3-7]

현재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위 문 활 동	20.0	33.7	16.5	36.9	23.8	43.0	24.7	20.9	28.2 (90)
국군장병곁편지쓰기	11.5	31.0	20.2	22.6	31.0	13.9	16.9	41.9	22.9 (73)
농 촌 봉 사 활 동	5.4	2.1	3.7	2.4	7.1	2.5	3.9	3.5	3.4 (11)
교 통 지 도 활 동	16.2	3.2	8.3	8.3	9.5	1.3	12.3	8.1	8.5 (27)
지 역 사 회 청 소 활 동	9.2	5.9	11.0	4.2	9.5	10.1	6.5	5.8	7.2 (23)
환 경 보 호 캠페인 활동	13.8	10.7	16.5	10.1	9.5	6.3	19.5	4.7	12.2 (39)
불 우 이 웃 돕 기 (바자회·사랑의은행)	23.8	13.4	23.9	15.5	9.5	22.8	16.2	15.1	17.6 (56)
합 계 (실수)	130	187	109	168	42	79	154	86	100.0 (319)
χ^2	41.75***		25.49***			50.90***			

[부록 3-8]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위 문 활 동	3.6	4.8	4.5	3.8	4.9	4.3	4.4	4.1	4.3 (88)
국군장병곁편지쓰기	48.3	50.9	49.3	48.6	53.7	50.4	49.2	49.9	49.7 (1,013)
농 촌 봉 사 활 동	1.7	1.2	1.5	0.7	3.2	0.6	1.4	2.4	1.4 (29)
교 통 지 도 활 동	11.3	9.3	9.2	11.0	11.7	10.0	10.4	9.9	10.2 (208)
지 역 사 회 청 소 활 동	15.2	14.0	14.4	16.6	9.9	13.3	15.5	13.8	14.6 (298)
환 경 보 호 캠페인 활동	7.6	8.9	7.1	10.5	6.7	7.6	8.8	7.7	8.3 (169)
불 우 이 웃 돕 기 (바자회·사랑의은행)	12.2	10.9	14.0	8.9	9.9	13.7	10.3	12.1	11.5 (235)
합 계 (실수)	932	1,106	992	765	283	510	1,117	413	100.0 (2,040)
χ^2	7.37		37.46***			11.42			

[부록 3-9]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실수)
위 문 활 동	21.7	22.4	20.5	24.5	21.0	22.8	21.8	22.1	22.1 (673)
국군장병계편지쓰기	1.4	1.4	1.5	1.4	1.0	1.5	1.3	1.5	1.4 (42)
농 촌 봉 사 활 동	26.9	24.8	24.4	27.8	25.1	25.7	27.0	22.5	25.8 (786)
교 통 지 도 활 동	9.3	10.7	11.3	9.5	7.3	10.1	11.2	7.1	10.1 (308)
지역사회청소활동	9.6	9.7	9.5	8.8	12.7	9.1	9.3	11.3	9.6 (294)
환경보호캠페인활동	17.2	16.8	18.3	14.5	19.5	17.1	15.3	21.6	17.0 (518)
불 우 이 웃 돕 기 (바자회·사랑의은행)	13.8	14.1	14.5	13.6	13.4	13.7	14.2	13.9	14.0 (426)
합 계 (실수)	1,370	1,675	1,479	1,173	395	782	1,673	592	100.0 (3,047)
χ^2	2.97		26.28**			23.90*			

[부록 3-10]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전통문화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실수)
민 속 놀 이	32.5	14.5	20.9	22.9	24.1	22.4	19.4	28.8	22.0 (63)
민 속 예 절 배 우 기	3.3	4.8	3.6	5.9		1.5	2.5	11.9	4.2 (12)
민 속 축 제	2.5	1.8	2.2	0.8	6.9	1.5	2.5	1.7	2.1 (6)
문 화 유 적 지 탐 사	19.2	6.6	11.5	12.7	10.3	13.4	11.3	11.9	11.9 (34)
민속촌·박물관견학	29.2	26.5	33.8	21.2	24.1	34.3	24.4	28.8	27.6 (79)
국 악 연 주	4.2	3.0	1.4	5.9	3.4	3.0	4.4	1.7	3.5 (10)
국 악 공 연 관 람	2.5	6.0	2.2	7.6	3.4	1.5	3.8	10.2	4.5 (13)
민 요 배 우 기	2.5	9.0	4.3	7.6	10.3	7.5	7.5	1.7	6.3 (18)
민 속 춤 배 우 기 무형문화재연구	4.2	27.7	20.1	15.3	17.2	14.9	24.4	3.4	17.8 (51)
합 계 (실수)	120	166	139	118	29	67	160	59	100.0 (286)
χ^2	48.75***		18.28			34.69**			

[부록 3-11]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전통문화 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실수)
민 속 놀 이	24.9	18.3	19.8	20.9	27.4	25.0	19.3	22.4	21.3 (461)
민 속 예 절 배 우 기	17.1	19.2	17.8	19.7	15.5	14.8	20.0	17.5	18.2 (395)
민 속 축 제	5.5	5.1	6.0	3.9	6.4	5.6	5.4	4.4	5.3 (114)
문 화 유 적 지 탐 사	4.2	3.2	4.4	2.4	4.4	2.9	3.5	4.9	3.6 (79)
민속촌 · 박물관견학	12.3	11.9	13.0	10.7	12.5	12.9	11.7	11.9	12.0 (261)
국 악 연 주	4.6	2.9	4.3	2.8	3.7	4.0	3.3	4.2	3.6 (79)
국 악 공 연 관 랑	12.4	12.0	11.9	13.9	8.4	9.0	13.4	12.6	12.2 (264)
민 요 배 우 기	14.0	19.6	15.6	19.4	15.5	18.5	16.7	16.1	17.0 (369)
민 속 춤 배 우 기	3.2	5.8	4.5	5.3	3.0	5.0	4.8	3.5	4.6 (100)
무 형 문 화 재 연 구	1.9	2.1	2.6	1.0	3.0	2.3	1.8	2.3	2.0 (44)
합 계 (실수)	985	1,181	1,044	826	296	520	1,218	428	100.0 (2,166)
χ^2	35.26***		44.12***			24.96			

[부록 3-12]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전통 문화 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실수)
민 속 놀 이	6.5	6.8	5.7	8.1	6.1	7.0	7.3	4.6	6.6 (217)
민 속 예 절 배 우 기	10.3	9.6	8.9	10.4	12.1	9.6	10.2	9.5	9.9 (323)
민 속 축 제	9.5	8.6	7.2	10.9	10.3	8.7	9.4	8.2	9.0 (294)
문 화 유 적 지 탐 사	19.8	18.2	17.1	21.2	18.9	18.2	19.8	17.5	18.9 (618)
민속촌 · 박물관전학	12.9	12.0	11.7	12.9	13.8	10.7	12.6	14.0	12.4 (406)
국 악 연 주	10.0	10.4	10.0	10.9	8.9	10.7	9.9	10.2	10.2 (333)
국 악 공 연 관 랑	4.3	4.0	4.6	3.7	3.5	5.0	4.1	3.0	4.1 (135)
민 요 배 우 기	6.6	7.6	8.8	4.8	7.9	8.2	6.3	8.4	7.2 (235)
민 속 춤 배 우 기	9.8	11.9	13.3	8.2	10.0	11.6	10.6	11.0	10.9 (357)
무 형 문 화 재 연 구	10.3	10.9	12.6	8.9	8.4	10.4	9.7	13.6	10.7 (348)
합 계 (실수)	1,475	1,790	1,604	1,233	428	820	1,789	656	100.0 (3,265)
χ^2	7.87		76.47***			27.04			

[부록 3-13]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과학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실수)
동 식 물 관 찰	10.5	14.2	16.0	8.7	3.8	7.7	12.7	15.6	12.0 (61)
실 험 활 동	7.8	12.3	11.7	9.4	2.5	4.9	9.4	15.6	9.6 (49)
천 체 관 측	6.1	3.3	5.0	6.0	2.5	7.0	3.7	4.9	4.9 (25)
과 학 공 작 활 동	11.5	2.8	8.5	7.4	6.3	7.0	6.1	12.3	7.9 (40)
과 학 시 설 건 학	7.1	6.2	6.8	8.1	3.8	5.6	6.1	9.0	6.7 (34)
동물원 · 식물원견학	7.4	16.1	11.4	10.7	11.4	14.1	10.2	9.8	11.2 (57)
발명품전시회참가및 견 학	4.7	3.3	5.3	2.0	3.8	5.6	2.0	6.6	4.1 (21)
컴 퓨 터 배 우 기	44.9	41.7	35.2	47.7	65.8	47.9	49.8	26.2	43.6 (222)
합 계 (실수)	296	211	281	149	79	142	245	122	100.0 (50.9)
χ^2	27.10***		34.83**			36.60***			

[부록 3-14]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과학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실수)
동 식 물 관 찰	15.7	17.5	15.7	17.9	16.9	16.9	16.0	18.3	16.7 (364)
실 험 활 동	9.9	9.9	12.3	6.7	9.1	7.7	10.3	11.3	9.8 (215)
천 체 관 측	12.5	8.5	9.0	12.2	10.4	11.1	9.8	11.1	10.4 (226)
과 학 공 작 활 동	8.3	3.6	6.3	5.3	5.5	6.8	5.3	6.1	5.8 (127)
과 학 시 설 건 학	13.4	14.0	12.6	15.4	13.7	12.4	15.0	12.0	13.7 (300)
동물원 · 식물원견학	13.6	18.5	14.9	17.9	16.6	16.5	16.8	14.3	16.2 (354)
발명품전시회참가및 견 학	11.6	14.7	13.1	12.7	15.3	13.9	13.1	13.1	13.3 (290)
컴 퓨 터 배 우 기	15.0	13.3	16.1	11.9	12.4	14.8	13.8	13.8	14.1 (307)
합 계 (실수)	1,035	1,146	1,096	780	307	533	1,208	442	100.0 (2,183)
χ^2	43.70***		34.34***			11.97			

[부록 3-15]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과학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실수)
동 식 물 관 찰	10.7	8.4	8.9	9.5	11.6	10.1	9.6	8.3	9.5 (293)
실 험 활 동	15.2	14.5	12.3	17.4	17.0	15.8	15.3	12.2	14.8 (458)
전 체 관 측	16.1	14.9	15.6	15.4	15.4	17.1	15.3	13.8	15.5 (478)
과 학 공 작 활 동	10.6	11.4	10.8	11.4	10.8	10.6	11.2	11.1	11.0 (340)
과 학 시 설 건 학	10.2	10.7	10.6	9.9	11.6	10.4	10.2	11.1	10.4 (322)
동물원·식물원견학	8.3	9.4	9.8	7.9	8.5	9.1	7.9	11.4	8.9 (275)
발명품전시회참가및 견 학	12.1	13.0	14.3	10.7	11.3	11.0	12.8	13.8	12.6 (388)
컴 퓨 터 배 우 기	16.9	17.7	17.8	17.8	13.9	15.9	17.6	18.2	17.3 (535)
합 계 (실수)	1,435	1,651	1,524	1,176	389	772	1,703	614	100.0 (3,089)
χ^2	7.64		29.82**			17.46			

[부록 3-16]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예능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실수)
악 기 강 습	4.7	5.1	6.3	4.2	3.5	6.2	4.4	4.9	4.9 (94)
음 악 회 관 람	5.7	7.9	4.9	10.3	1.2	3.5	7.8	8.4	6.9 (132)
론 서 트 관 람	5.6	5.4	5.5	4.9	7.7	5.7	6.2	3.7	5.5 (105)
음 악 감 상	29.1	30.9	30.5	29.0	33.2	27.6	31.5	29.5	30.1 (574)
노 래 배 우 기	7.5	9.2	8.0	7.6	12.7	8.6	7.7	10.0	8.5 (161)
미 술 강 습	0.7	2.2	2.0	1.7		2.4	1.5	0.9	1.6 (30)
음 악 경 연 대 회	0.6	1.5	1.2	1.1	0.8	0.7	1.4	0.9	1.1 (21)
미 술 전 시 회 관 람	2.5	3.9	3.9	3.3	1.5	1.5	2.8	6.3	3.3 (63)
사 진 반 활 동	0.4	0.5	0.5	0.6		0.2	0.4	0.9	0.5 (9)
미 술 대 회 참 가	0.2	1.2	0.8	0.9	0.4	1.3	0.5	0.9	0.8 (15)
연 극 관 람	3.2	4.5	2.3	4.6	6.2	7.1	2.2	4.9	3.9 (75)
영 화 관 람	36.4	25.6	30.1	30.1	31.3	33.1	30.6	26.3	30.2 (576)
춤 강 연	0.2	0.2	0.1	0.2	0.4	0.2	0.2	0.2	0.2 (4)
서 예	3.0	1.1	3.2	1.1	0.8	1.5	2.1	1.9	1.9 (36)
꽃 꽃 이		0.5	0.4	0.2	0.4	0.2	0.4	0.2	0.3 (6)
공 예 강 습 (등공예·매듭등)	0.1	0.3	0.3	0.2			0.4		0.2 (4)
합 계 (실수)	810	1,092	742	904	259	453	1,022	430	100.0 (1,905)
χ^2	56.60***		469.46***			74.11***			

[부록 3-17]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예능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실수)
악 기 강 습	4.7	2.2	3.6	2.7	4.0	4.9	2.7	3.0	3.3 (89)
음 악 회 관 람	8.2	7.6	6.6	10.2	5.9	6.1	9.0	6.8	7.9 (212)
콘 서 트 관 람	9.2	7.0	6.7	9.7	8.0	7.3	9.1	5.7	8.0 (216)
음 악 감 상	22.5	23.0	20.2	25.0	25.5	22.9	22.5	23.4	22.8 (614)
노 래 배 우 기	11.0	11.7	11.1	10.7	14.1	11.5	10.5	13.8	11.4 (307)
미 술 강 습	1.7	0.7	1.6	0.8	1.1	1.8	0.7	1.7	1.2 (32)
음 악 경 연 대 회	0.4	0.7	0.7	0.3	0.8	0.8	0.6	0.2	0.6 (15)
미 술 전 시 회 관 람	5.1	6.8	5.6	6.9	5.3	5.6	6.3	5.8	6.0 (163)
사 진 반 활 동	3.1	2.8	4.1	1.6	2.9	4.3	2.6	2.3	3.0 (80)
미 술 대 회 참 가	1.3	1.3	1.9	0.6	1.3	1.1	1.3	1.7	1.3 (35)
연 극 관 람	7.7	10.3	8.5	10.4	8.2	9.8	9.3	8.1	9.2 (247)
영 화 관 람	12.5	12.1	12.1	13.0	11.2	12.5	12.2	12.3	12.3 (331)
출 강 연	1.6	0.7	1.5	0.7	1.3	1.2	1.1	1.1	1.2 (31)
서 예	6.3	5.0	7.8	3.2	4.8	5.0	5.7	6.0	5.6 (151)
꽃 꽃 이	2.9	6.0	6.2	2.7	4.5	3.4	4.4	6.6	4.6 (124)
공 예 강 습 (등공예·매듭등)	1.6	2.0	2.0	1.7	1.1	1.8	1.9	1.5	1.8 (48)
합 계 (실수)	1,216	1,476	1,277	1,042	376	655	1,510	530	100.0 (2,695)
χ^2	54.09***		103.47***			45.91*			

[부록 3-18]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예능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실수)
악 기 강 습	14.3	13.2	10.5	17.9	13.2	13.7	14.4	11.7	13.7 (434)
음 악 회 관 람	7.7	5.6	5.9	6.1	10.5	7.6	5.8	7.4	6.6 (208)
콘 서 트 관 람	6.5	5.5	6.0	5.4	7.7	7.3	4.8	7.4	6.0 (189)
음 악 감 상	2.3	1.4	2.4	1.2	1.2	1.3	2.0	2.0	1.8 (58)
노 래 배 우 기	5.1	2.9	4.7	3.0	3.7	3.3	4.3	3.7	3.9 (124)
미 술 강 습	7.6	9.2	6.5	10.8	9.0	7.8	9.3	6.9	8.4 (268)
음 악 경 연 대 회	5.6	6.3	5.1	6.8	7.0	4.7	6.7	5.7	6.0 (190)
미 술 전 시 회 관 람	3.9	4.4	5.1	2.7	4.7	5.3	3.5	4.6	4.2 (132)
사 진 반 활 동	4.9	6.8	5.3	7.2	4.5	4.5	7.3	4.0	5.9 (188)
미 술 대 회 참 가	4.2	5.5	5.2	4.0	6.5	4.6	4.8	5.7	4.9 (156)
연 극 관 람	5.5	4.9	5.2	5.6	3.5	5.6	5.1	4.9	5.2 (164)
영 화 관 람	5.4	4.4	5.7	4.5	2.5	4.7	4.5	6.0	4.9 (154)
춤 강 연	6.8	6.6	8.3	5.0	5.5	5.9	7.0	6.9	6.7 (212)
서 예	8.6	8.4	8.4	8.9	8.2	8.7	7.9	10.0	8.5 (271)
꽃 꽃 이	3.7	5.1	5.4	3.5	4.0	5.8	4.1	4.0	4.5 (142)
공 예 강 습 (등공예·매듭등)	7.9	9.7	10.3	7.3	8.2	9.1	8.6	9.4	8.9 (282)
합 계 (실수)	1,452	1,718	1,562	1,209	401	780	1,740	652	100.0 (3,172)
χ^2	41.08***		145.44***			56.33**			

[부록 3-19]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연체험 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식 물 채 집 여 행	0.9	1.0	1.5	0.6	0.6	0.5	0.9	1.4	1.0 (10)
강 탐 사	0.7		0.2	0.2	0.6		0.4	0.4	0.3 (3)
국 토 조 사	0.2	0.7	0.2	0.9		1.1	0.5		0.5 (5)
조국순례대행진	1.1	0.9	0.2	1.5	1.3	1.1	1.1	0.7	1.0 (10)
화 단 꾸 미 기	5.1	12.1	11.1	6.9	9.7	6.5	8.1	12.5	9.0 (93)
야 영 활 동	17.6	15.9	15.5	18.1	15.5	14.6	14.3	22.9	16.7 (172)
자 연 농 장 운 영	0.2	0.2	0.2		0.6			0.7	6.2 (2)
야 외 오 락 활 동	17.8	13.1	15.5	14.3	17.4	16.8	15.3	14.0	15.2 (157)
관 광 명 소 여 행	6.4	4.8	6.3	5.8	3.2	5.9	6.2	4.3	5.6 (58)
소 품 밋 수 학 여 행	50.0	51.2	49.2	51.6	51.0	53.5	53.3	43.0	50.5 (521)
합 계 (실수)	450	578	413	463	155	185	567	279	100.0 (1,031)
χ^2	24.17**		469.46***			30.77*			

[부록 3-20]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자연체험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식 물 채 집 여 행	7.7	6.0	8.1	5.3	5.4	6.0	7.5	5.6	6.8 (131)
강 탐 사	2.6	1.5	2.4	1.8	1.1	2.2	2.0	1.8	2.0 (39)
국 토 조 사	1.4	1.0	1.6	0.6	1.1	1.1	1.3	1.0	1.2 (23)
조국순례대행진	2.5	1.1	2.6	0.6	1.4	1.8	1.6	2.0	1.8 (34)
화 단 꾸 미 기	30.8	39.4	35.3	36.3	34.1	33.6	34.6	40.0	35.5 (688)
야 영 활 동	10.1	8.0	8.4	8.1	12.9	9.6	9.8	6.1	9.0 (174)
자 연 농 장 운 영	2.9	1.8	2.6	1.3	3.9	2.7	2.1	2.8	2.4 (46)
야 외 오 락 활 동	27.0	27.4	25.0	30.2	27.2	27.6	26.1	29.4	27.1 (526)
관 광 명 소 여 행	4.3	2.8	3.5	3.7	3.2	2.2	3.7	4.3	3.5 (68)
소 품 밋 수 학 여 행	10.8	10.9	10.4	12.0	9.7	13.1	11.2	7.1	10.8 (210)
합 계 (실수)	883	1,053	985	675	279	449	1,095	395	100.0 (1,939)
χ^2	28.32***		111.62***			22.89			

[부록 3-21]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자연체험 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실수)
식물채집여행	11.4	10.4	11.1	9.9	12.5	13.6	9.8	10.2	10.8 (358)
강 탐 사	11.9	9.8	10.7	10.7	11.4	13.4	10.7	7.5	10.7 (355)
국 토 조 사	19.1	18.4	16.8	20.4	21.3	19.1	18.5	19.0	18.7 (619)
조국순례대행진	16.4	15.4	14.8	17.1	16.5	14.1	16.0	17.8	15.9 (525)
화 단 꾸 미 기	1.2	0.7	1.2	0.6	0.9	0.7	0.8	1.4	0.9 (30)
야 영 활 동	9.8	11.7	9.7	13.0	8.6	10.5	11.1	10.4	10.8 (357)
자연농장운영	7.2	10.2	10.4	7.0	8.1	8.5	9.1	8.4	8.8 (291)
야외오락활동	4.6	3.9	4.6	3.8	3.9	4.3	3.7	5.6	4.2 (140)
관광명소여행	10.5	13.5	12.5	11.5	12.5	9.3	13.3	12.5	12.1 (400)
소풍및수학여행	7.9	6.0	8.2	6.1	4.2	6.4	7.0	7.2	6.9 (228)
합 계 (실수)	1,527	1,773	1,615	1,257	431	828	1,811	664	100.0 (3,303)
χ^2	29.09***		44.99***			37.76**			

[부록 3-22]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예절수양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실수)
명절새기활동	43.0	35.0	34.9	40.9	40.7	31.9	38.5	45.2	38.6 (243)
혼례·제례 상례배우기	15.8	4.4	12.0	8.1	7.4	11.3	8.7	9.6	9.5 (60)
존칭및호칭익히기	12.3	12.0	11.6	13.6	8.6	9.9	14.0	10.3	12.2 (77)
식사에절배우기	13.0	17.5	18.3	12.7	18.5	17.7	14.6	15.8	15.6 (98)
생활관실습	4.6	15.5	10.0	9.1	17.3	10.6	11.1	8.9	10.5 (66)
전통다도배우기	3.9	7.0	2.9	9.1		8.5	4.7	4.8	5.6 (35)
가훈만들기	7.4	8.7	10.4	6.5	7.4	9.9	8.5	5.5	8.1 (51)
합 계 (실수)	284	343	241	308	81	141	343	146	100.0 (630)
χ^2	46.46***		29.93**			23.27*			

[부록 3-23]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예절수양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명 절 새 기 활 동	11.8	10.9	11.3	10.6	13.3	11.3	11.6	10.5	11.3 (266)
혼 레 · 제 레 상 레 배 우 기	5.9	3.0	4.5	3.9	4.5	4.9	4.7	2.5	4.3 (101)
존칭및호칭익히기	22.1	22.3	19.0	25.7	23.9	19.8	23.4	21.9	22.2 (522)
식 사 예 절 배 우 기	23.8	29.5	27.1	26.8	26.2	26.4	26.2	29.3	26.9 (631)
생 활 관 실 습	8.1	9.1	10.7	6.7	6.8	8.2	8.1	10.7	8.6 (203)
전 통 다 도 배 우 기	4.2	5.0	4.5	4.6	5.2	5.0	3.9	6.1	4.6 (109)
가 훈 만 들 기	24.1	20.3	22.9	21.7	20.1	24.3	22.2	18.9	22.0 (518)
합 계 (실수)	1,068	1,280	1,129	912	309	575	1,300	475	100.0 (2,350)
χ^2	24.11***		24.64*			18.68			

[부록 3-24]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예절수양활동

	성 별		학 교			지 역			합계 (실수)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서울	직할시	기타시	
명 절 새 기 활 동	8.3	8.0	9.3	7.1	6.6	9.5	7.4	8.4	8.1 (207)
혼 레 · 제 레 상 레 배 우 기	31.3	29.6	29.1	31.7	31.1	28.9	30.1	32.7	30.3 (771)
존칭및호칭익히기	12.1	9.9	12.5	9.1	10.3	11.4	10.8	10.8	10.9 (278)
식 사 예 절 배 우 기	7.5	4.6	6.3	5.5	5.1	6.5	5.5	6.2	5.9 (149)
생 활 관 실 습	16.0	18.6	15.1	20.3	18.7	18.2	17.5	16.6	17.5 (444)
전 통 다 도 배 우 기	20.3	24.9	22.4	23.0	24.2	20.6	24.6	21.0	22.9 (581)
가 훈 만 들 기	4.5	4.4	5.4	3.2	3.9	4.9	4.4	4.4	4.4 (112)
합 계 (실수)	1,138	1,401	1,285	926	331	650	1,391	501	100.0 (2,542)
χ^2	20.84**		28.46**			9.96			

